



새 시대를 맞는

〈해외주재 일선 사범에게〉

어려운 여건 下에서 우리의 값진 문화유산인 국기 태권도의 世界化를 위해 獻身하고 있는 大韓民國의 海外駐在 一線 師範 여러분들의 勞苦를 眞心으로 致賀하는 바입니다.

태권도는 그동안 태권도의 國技化, 世界化를 위하여, 나아가서는 國威宣揚의 旗手로서 또한 나라를 지키는 護國의 旗手로서 努力하여 왔읍니다.

여러분들이 新聞報道를 通하여 周知하고 있으리라 믿습시다만 우리의 태권도가 1975年 10月 國際경기연맹 (GAISF)에 加入된지 5년이 채 못되는 기간 內인 1980年 7月 17日 모스크바 IOC총회에서 태권도는 올림픽 스포츠로 그리고 世界태권도연맹은 IOC가 公認하는 國際聯盟으로 承認을 받았음을 알려 드립니다. 世界卓球聯盟이 50年 歷史와 1億의 修練人口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겨우 2년 前에 IOC의 承認을 받았고 이번 태권도 承認에 있어서 Program委員會가 앞으로 其他, 武道種目的 承認은 困難하다는 但書를 붙인 것으로 볼 때 IOC의 태권도 승인의 意義의 크기는 짐작이 가겠읍니다.

이것은 우리 태권도人 뿐 아니라 大韓民國 國民 모두의 기쁨이라는 데에 더욱 큰 矜持를 느낍니다. 또한 그만큼 태권도 指導者들의 責任이 더 커졌음을 指摘하고 싶습니다. 世界 100個國에서 우리나라의 太極旗를 걸어 놓고 태권도 普及을 通하여 國威宣揚의 旗手로서 活躍하고 있는 現地 師範들은 더욱 奮發하여 태권도가 實際로 올림픽에서 金메달 box가 되어 우리 태권도人과 國民에게 더 큰 기쁨을 안겨주는 날로 直結되도록 밀거름이 되어줄 것을 당부합니다.

머구나 大韓民國을 전북하려는 北傀, 그리고 北傀의 조종을 받는 反韓集團의 蠢動을 비롯하여 國內外 與件이 어느 때 보다는 어렵고 온 國民의 團合된 健全한 精神力와 強力한 指導力을 必要로 하고 있는 이 때에 海外駐在 태권도 사범들은 同時代의 使命感을 自覺하고 오늘날과 같은 國難의 危機를 克服하는데 앞장 서야 할 것은 勿論이거니와 새 時代 새 社會를 구축하고 國家와 民族을 保護하려는 國民의 努力의 旗手가 되어 줄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태권도는 할일이 너무 많고 시간이 너무 없읍니다. 今年 10月의 第1回 CISM 선수권대회, 今年中에 있을 아세아, 汎美, 中東, 구라파, 阿洲태권도大會, 1981年 맥

태권도인의 사명감

世界跆拳道聯盟 總裁
大韓跆拳道協會 會長

金 雲 龍

시코 세계선수권大會, 本人이 NOF(올림픽에서 아직 경기를 하고 있지 않은 公認 27個 國際聯盟(聯合體) 會長으로서 主導하는 태권도, Water ski, 野球, Softball, Badminton, Bowling, Karate, Boxing 등 14개 종목의 綜合경기인 World Game (1981. 7.25~8. 3 미국 Santa Clara), 국제경기연맹총회, 그리고 태권도의 技術研究, 開發, 各種 規定의 現代化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태권도는 여러분들의 힘이 必要합니다. 다시 한번 海外駐在 大韓民國 一線師範여러분들의 勞苦를 致賀하며 계속적인 精進과 健闘를 祝願합니다.

〈국내 일선 사범에게〉

어려운 與件下에서 國技跆拳道의 普及發展에 獻身하는 一線師範 여러분들의 勞苦를 致賀합니다.

跆拳道는 그동안 跆拳道의 國技化 世界化를 위하여 그리고 國威宣揚의 旗手로서 나라를 지키는 護國의 旗手로서 努力하여 왔읍니다.

여러분들이 新聞報道를 通해 周知하고 있으리라 믿습시다만 1980年 7月 17日 모스크바 IOC總會에서 태권도는 올림픽 스포츠로 그리고 世界 跆拳道聯盟은 IOC가 公認하는 國際聯盟으로 承認을 받았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跆拳道人뿐 아니라 온 國民의 기쁨이라는데에 더욱 큰 긍지를 느낍니다. 또한 그만큼 태권도 指導者들의 責任이 더 커졌음을 指摘하고 싶습니다. 跆拳道를 通해 우리나라의 앞날의 일꾼을 教育시키고 있는 여러 師範들은 더욱 奮發하여 技術研究와 開發, 올바른 指導를 通하여 跆拳道人의 團合된 힘이 跆拳道가 實際로 올림픽에서 金메달 box가 되어 國民에게 더 큰 기쁨을 안겨 주는 날로 直結되도록 努力하여 주기를 당부합니다.

더구나 國內外 與件으로 어느 때 보다도 온 國民의 團合된 健全한 精神力과 強力한 指導力이 必要한 이 때에 跆拳道 師範들은 同 時代의 使命感을 自覺하고 오늘날과 같은 國難의 危機를 克服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으로 確信하는 바입니다. 또한 國家에서 推進中인 社會淨化運動에서 跆拳道人들도 例外가 될 수 없음을 自覺하고 새 時代 새 社會를 構築하려는 國民의 努力의 旗手가 되어 줄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健闘를 祝願하면서……

1980年 8月 9日

태권도 국제올림픽 종목으로 승인. 자축연회

Celebration of recognition of TKD and the WTF by the IOC.



1980년 7월 17일 국제올림픽위원회 제83차 총회에서 태권도가 국제올림픽 종목으로 승인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듣고, 국내의 태권도인은 물론 전 국민이 기뻐하고 축하하였다.

대한태권도협회 회장이며 세계태권도연맹총재인 김운용박사는 1980년 8월 7일 태권도 국제올림픽종목승인 및 세계태권도연맹 공인을 기념하기 위하여 호텔신라 대연회실에서 자축 파티를 갖었다.

국내에서 그동안 태권도의 보급 발전에 숨은 공로를 아끼지 않은 태권도인들과 체육계, 정계 학술회의의 주요인사 300여명이 참석하여 환담을 나누며 태권도의 끊임없는 발전을 위해 축배를 들었다.

이날 연회에는 대한체육회 회장 조상호씨, 김세원 부회장, 김성집 선수총훈련단장 등 체육계 인사와 민관식 국회의장, 오세용, 홍성우의원, 이규호 문교부장관, 안세희 연세대총장, 송요찬 장군등 주요 인사와, 모택 한미재단 이사장과 자국 대사, 해외파견 태권도 사범들이 참석, 김운용 회장과 환담을 나누며 연회의 분위기를 북돋우었다.

세계 태권도 연맹이 국제경기연맹에 가입하지 불과 5년도 채 못되는 시점에 항상 열원하고 꿈꾸던 올림픽 가입이 이루어진 것은 태권도의 현대화, 세계화에 적극 주력하고 땀흘린 태권도인들의 영광이라고 김운용회장은 태권도인들의 공로를 치하하며, 앞으로도 더욱 분발, 협동심을



김규호 문교부장관과 환담하는 김운용 회장

이루어 단단한 협동을 기반으로 노력하는 태권도인 패배하지 않는 태권도인, 애국에 죽하는 태권도인, 연구하는 태권도인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제올림픽대회에는 21개 세계 스포츠연맹이 올림픽종목으로 경기를 치루고 있고 올림픽종목으로 승인을 받은 태권도를 비롯 8개의 세계연맹과 종목이 이에 포함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밝히고 세계 탁구 연맹이 50년 역사와 1억이라는 인구를 갖고 있으면서도 2년 전에야 올림픽위원회의 승인을 받았고 88년 경기로서 신청을 냈으나 부결된 것과 비교해 볼 땐, 태권도의 국제올림픽승인의 의의는 자못 크다고 힘주어 말했다.

태권도는 1978년 모험하는 기본으로 대담하게 신청서를 제출, 기준 조사를 받은 한편 2년간 착실히 내실을 기해 지난 6월 IOC 프로그램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데 성공했고, 올림픽집행위원회의 총회의 인준과정에서 신인 올림픽위원장인 사마린치치와 지난 4월 김운용회장의 초청으로 내한한바 있는 기량두씨의 도움을 받아 승인을 받는데 이르는 것이다. 그밖에 도움을 아끼지 않은 사람은 캐나다위원을 비롯 노르웨이, 서독, 캐나다, 스위스, 네덜란드, 케냐, 멕시코 등의 많은 올림픽위원들이다.

다만 우리 태권도의 순수한 노력으로 올림픽가입이라는 장벽을 넘은 것은 바로 우리 국민성이 지니고 있는 끈기와 인내에 의해서가 아닐까.

이날 호스트로서 김운용회장은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언급하며 외적으로 금년 서울에서 열릴 국제 군인 체육대회, 내년에 멕시코에서 열릴 예정인 제 5회 세계 태권도선수권대회, 81년 미국 산타클라라에서 열릴 제 1회 월드게임에 대비한 착실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6대륙의 100여개국의 산하 회원국 협회를 지니고 1천만명의 태권도 수련인구를 보유한 현실점에서는 중주국의 면모를 지키기 위한 끊임 없는 연구와 기술개발이 필요하며, 태권도에 깃든 정신을 이어받아 건전한 사회를 이루는데 우리 태권도인은 혼신의 노력으로 이바지 해야 할 것이다.

韓國人 스포츠의 成果

태권도가 IOC 승인이 되기까지

태권도가 IOC 승인을 받기까지의 과정은 매우 험난했다. 1978년 12월 17일 제 101차 IOC 총회에서 태권도가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되었다. 이는 태권도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다. 태권도는 1978년 12월 17일 제 101차 IOC 총회에서 태권도가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되었다. 이는 태권도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다.

태권도는 1978년 12월 17일 제 101차 IOC 총회에서 태권도가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되었다. 이는 태권도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다.

태권도는 1978년 12월 17일 제 101차 IOC 총회에서 태권도가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되었다. 이는 태권도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다.

태권도는 1978년 12월 17일 제 101차 IOC 총회에서 태권도가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되었다. 이는 태권도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다.



金雲龍

태권도협회 회장

어린이태권도 시범단과 돌아본 미국의 태권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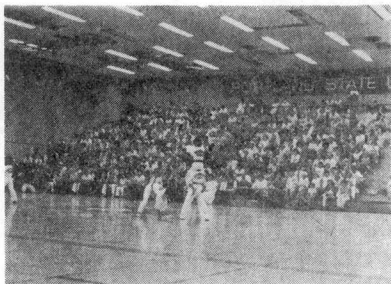


강 원 식
(대한태권도협회 전무이사)

1980년 8월 1일 미국 아
마추어체육연맹 태권도위
원회 위원장인 양동자씨가 미국청소년 체육대회
에 태권도 종목을 삼입키 위한 일환책으로 한국
의 어린이태권도 시범단을 초청케되어 미중국민
학교 태권도 시범단원 26명 및 인솔임원과 함께
김포를 출발했다. 그 동안의 시범일정과 관광일
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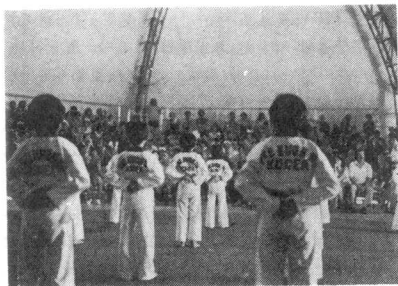
미국순회 태권도시범 일정

- 1980년
8월 1일 김포공항 출국
- 8/2 뉴욕의 이문성태권도도장에서 연무시범
개최. 뉴욕주재 사범들의 노고를 위로.
 - 8/3 마이아미(Miami)의 마이아미시청체육
관(Miami city Hall Gym.)에서 시범
(Miami 시장 후원, 최병호사범주최)
시장주최 만찬회.
 - 8/4 탐파(Tampa)에서 챔벌라인 고등학교
(Chamberlain High School)에서 시범
(전영호사범주최).
 - 8/5 워싱턴(Washington D.C)의 주미한국대
사관 방문. 김용식대사주최 다과회 참
석.
 - 8/6 볼티모어(Baltimore)의 몰간스테이트대
학(Morgan State University)의 체육관
에서 시범(이영일사범주최).
 - 8/7 콜롬비아(Columbia)시장 예방. Norfolk
에서 무니시펄 아레나 강당(Municipal
Arena Auditorium)에서 시범.
 - 8/8 워싱턴 D.C에서 그로베톤고등학교(Gr-



포트랜드에서의 시범

- oveton High School) 체육관에서 시범
(차수영사범주최).
- 8/9 신시네티(Cincinnati)의 아뮤즈먼트공원
(Amusement Park)에서 시범(안정원사
범주최).
- 8/10 인디아나폴리스(Indianapolis)에서 인디
아나 샌트럴대학(Indiana Central Unive-
rsity) 강당에서 시범(윤철구사범주최).
- 8/11 자동차경기장 관람.
- 8/12 케노사(Kenosha)에서 시범(김광웅사범
주최).
- 8/13 포트랜드(Portland)의 대학(Portland St-
ate University Gym.)에서 시범(최태홍
사범주최).
- 8/14 Mt. Hood 관광
- 8/15 산타클라라(Santa Clara) 의 산타클라라
대학(University of Santa clara)의 Buck
show stadium. 미국청소년올림픽게임개
회식에 참가.



신시내티공원에서 시범

- 8/16 버클리(Berkeley)시의 캘리포니아대학
(California University) 하몬(Harmon)
강당에서 시범(민경호사범추치).
- 8/17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 시내 관광.
- 8/18 로스엔젤레스(Los Angeles) 관광.
- 8/19 로스엔젤레스의 고등학교강당에서 시범
(김용길사범추치).
- 8/20 디즈니랜드 관광.
- 8/21 입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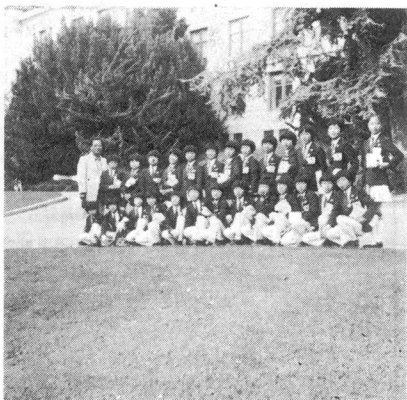
위와같은 약 이십일간의 체류기간동안 미국의 여러도시를 방문하고 한국의 어린이태권도를 소개하면서 내 나름대로 느낀 점을 정리해 보자면 우선 코리아나 가라베(Korean Karate)로만 인식해 오던 미국인들의 의식이 미동국민학교 어린이태권도 시범단이 펼쳐보인 시범으로 인해 태권도는 곧 코리아나 마살 아트(Korean Macial Arts) 즉 한국고유의 호신술이라고 좀더 정확하게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미국 각지를 순회하면서 시범단원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자신들의 기량을 최대한 발휘했으며 모국을 떠나 낯선 곳에서 국가 태권도의 진수를 보여준다는 책임감이 작용해서인지 단체생활의 질서를 잘 지키며 한국의 무서운 꼬마들이라는 이미지를 고수하고 있었다. 가는 곳마다 따뜻한 우애 어린 환영의 준비가 되어 있었고 작고 야무진 손과 발로 펼치는 한국어린이들의 태권도시범에 시종 감탄과 환호, 그리고 아낌없는 갈채로 우리의 마음을 훈훈한 긍지와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일렁이게 했다.

일찍이 태권도의 세계화라는 사명감을 갖고 다른 무도스포츠가 이미 자리잡은 태권도의 불모지에서 그 많은 어려움과 인종차별에 따른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오늘과 같은 수많은 태권도 인구를 보유하게 한 미국주재 태권도 사범들은 이제는 모두 확실한 기반위에서 코리아 한국의 태권도를 보급하며 그들에게 당당한 한국어로 도장내의 질서를 구축하고 한국인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가고 있었다. 다만 넓은 아메리카에 그만큼 천차만별의 인종들 틈에서 동양의 작은 나라라는 한국인의 국적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위해 싸우고 노력한만큼 국내의 세계태권도연맹이나 대한태권도협회가 그들에게 좀더 관심을 갖고 협조하며, 태권도저변확대의 손길을 곳곳에 펼쳐야겠다는 각성이 있었다.

미국의 한인사회에서도 태권도사범들은 어느 누구보다 생활면으로나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국위선양 뿐만 아니라 외화획득에도 중요한 한몫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주지해 볼 때 같은 태권도인으로서 마음 호뭇함을 금할길 없었다.

또한 태권도가 올 7월 국제올림픽종목으로 채택됨을 계기로, 동양무술로서 국제스포츠로 인정을 받았다는 특이한 조건과 인식이 바탕이 되어 태권도를 보급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갖추게 되었다. 이에 해의주재 사범들도 긍지와 자부심



샌프란시스코에서 시범단과 함께

을 더욱 돈독히 갖고 활발한 움직임에의 희망에 분주한 느낌이었다. 또한 그동안 작곡 태권도협회에 무관심하고 개인적인 지도보급에만 열중하던 사범들도 협회를 중심으로 차츰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융화의 계기를 갖는데 협조하고 있다.

현재 해외주재 태권도사범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도 둘도 단합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언어와 생활습관, 환경의 모든 것이 이질적인 나라에서 또한 그러한 모든 것으로 인해 이해의 벽이 가로놓인 외국인에게 다만 국기 태권도의 기술을 가르키며 생활등 보람과 만족을 찾는 여건에선 개인적인 의미에서도 그렇거니와 태권도의 깊은 뿌리를 외국에 내린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도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일 것이다. 백지장도 맞잡아야 가법다는 우리말 속담에서도 시사한 것과 같이 하나의 힘보다는 둘의 힘이 강하고 모이면 모일 수록 그 융화단결의 힘은 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일 것이다. 국내에 있는 사범 및 선수들은 물론 해외주재 사범들도 시대적 사명감을 자각하고 새 시대 새역사의 흐름에 호응하는 국민적 노력의 기수가 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약 26명의 대표시범단 어린이와 함께 순회하며 느낀 것은 학교단위의 시범단도 중요하고, 그 나름대로 태권도 보급발전에 기여하며 충분한 의의를 갖고 있으나, 대외적인 보급, 태

권도 PR 방책으로 국가적인 차원의 국가대표시범단구성이 절실히 요망된다 하겠다. 일종의 민간외교사절단으로서 한국어린이 태권도시범단이 정부당국의 지원아래 구성되어 해외순회시범을 펼친다면 리틀엔젤스가 갖고 있던 대외활동 못지않은 효과와 결실을 맺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미국내에서 소수의 사범이 활약하고 있는 도시에서는 사범들간에 잘 단합된 면모로 화목한 분위기를 유지하며 매사를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처리해 나가고 있었으나, 뉴욕, 시카고 등 대도시에는 많은 사범이 운집해 있는 곳에서는 좀 분산된 듯한 경향이 있어 안타까웠다. 개개인의 사범을 볼때 모두가 각자 유능하고 태권도에 대한 열의와 애정이 있으나 같은 지역에 있는 다른 사범들과의 원만치 못한 융화현상이 두드러져 있는 것 같았으므로,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여 협동하며 단체로서의 힘을 기르는 풍토가 조성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범단과 함께 그들의 따뜻한 환영을 받으며 시범을 마치고, 나는 현지 사범들과 함께할 자리를 마련해 대화를 나누며 다소나마 융합의 길을 모색해 보았다.

태권도가 세계무대에 파고들면 들수록 우리는 태권도 종주국의 일원으로서 기술개발은 물론이거니와 태권도철학의 정립으로 기술보급 못

人間은 自由롭고 또한 自由 그것이다.

우리들이 의지할 곳이 없다면 우리들은 자기의 行爲를 정당화하는 가치나 命令을 面前에서 발견할 수가 없다.

이와같이 우리들은 우리들의 背後나 面前에 명료한 價値의 領域 속에서 자기를 正當化할 수 있는 理由나 評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들은 변명의 여지가 없으므로 고독하다. 나는 그것을 人間은 自由로운 존재로 선고받았다고 표현하고 싶다.

자유로운 存在로 선고받았다는 것은 한편 세계속에 내던져 졌으므로 人間은 自己가 하는 모든일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샤르트르 <實存主義는 휴머니즘이다>

지 않게 태권도정신을 투입시켜 피부색과 언어와 생활습관은 다르지만 전 태권도인은 한줄기 안에 모이고 뭉쳐 인류문화발전에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각 도장을 돌아보고 느낀 것의 주된 옷점은 태권도의 모든 기술용어들이 통일되지 않아 태권도 수련생들간의 일치점을 상실하고 있지않나 하는 것이었다. 태권도전반에 걸친 통일된 기술이론과 각국어 팜플렛제작발급등이 시급히 요청되는 실정이었다.

그리고 순회시범중 오래군주 포트랜트에서의 한인회 여러분들의 성원은 미국 전역을 순회하

면서 가장 호뭇한 것이었다.

80세의 할머니들이 한복차림으로 마치 천손자대하듯 시범단 어린이들을 맞아 주었고, 아직도 굳건한 한국인의 기상을 지니고, 정성스럽게 시범단원들을 보살펴 주시는데는 뭉클한 민족의식 같은 것으로 가슴이 벅찼다.

약 한달간의 순회시범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은 주미 한인 사법들과 여정의 피곤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시범을 하여 한국어린이 태권도의 위력을 과시한 미동국민학교 어린이들에게 마음으로부터 감사함을 느낀다.



一家仁이면 一國興仁하고 一家廉이면 一國이 興廉하며 一人貪戾하면 一國이 作亂하니 其機如此하니 此謂「一言이 僨事며 一人이 定國」이니라.

한 집안이 어질면 한나라에 어짐이 일어나고, 한집안이 사양하면 한 나라에 사양함이 일어나며 한사람이 자기이익만을 탐하면 한나라가 어지러움을 일으키니 그 빌미가 이와같은 것이다. 그래서 「한마디 말이 일을 뒤엎고 한사람이 나라를 안정시킨다」고 말하는 것이다.

一大學의 전문 中一

코리아의 작은 大使들



「국가 대표인 여러분은
금번 미국 전 지역과 일
본에서 태권도 시범을 통
하여 국위 선양은 물론이
고 중주국인 한국의 이미
지를 확고히 심는 것과 동시에 다른면에서도 타
에 추종을 불허하는 올바른 한국인의 「자세」를
남기고 오라.」

세계 태권도연맹 김윤웅 총재님께서 작은 꼬
마(미동국민학교 국가 시범단)들에게 일일이 악
수하시며 격려 해 주시던 말씀이었다.

김포공항 오후 7시, 대한 항공(KAL)으로 출
발 첫번째 시범지역 뉴욕으로 출발했다.

두려움이 앞섰다. 언젠가 한번쯤은 꼭 해보아
야 하는 시범단체의 인술인데 난 막연히 초조하
고 걱정스러웠다.

지난 1978년도 구라파지역 시범초청경기 관계
로 6個月간 순회하였을 때는 물론 혼자였지만, 그
러한 중에도 내면에는 어리석다고 표현 할 정도
로 매일 매일 긴장과 고독을 느꼈었다. 그리고
막상 단체인솔책임자로 중임을 맡고보니 꼬마친
구들-신변보호와 주위의 분위기에 하나 하나 신
경을 쓰게 되고, 어떠한 사고나 부주위가 생기
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 한국을 떠날 때부터
나를 따라다녔다. 그러나 미국 전지역과 일본을
돌아 순회시범을 통하여 어린이시범단이 보여준
공식석상에서의 태도와 시범시의 질서, 그리고
확고한 자세는 오히려 주위사람(어른)들을 안심
시킬 정도로 미더웁고 정연했다. 격려와 환영,
박수갈채가 순회하는 지역마다 우리를 맞아들였
고, 어린이시범단원 하나하나에 대한 찬사는 자
랑스러움 바로 그것이었다.

물론 노력한 만큼의 댓가로서 그만한 보답을
받아야 되겠지만, 가장 값있는 어린이의 망아
지들(어린이시범단)이 보여주는 시범경기는 하

이 규 형
(미농국민학교 태권도시범단 지도사범)

나의 미(美)의 정수였으며, 신비에 가깝다는 메
스컴의 요란한 기사와 대대적인 T.V 방영으로
우리 교민들의 눈시울을 적서주었다.

한국인이라는 자랑과 긍지를 함께한 미국교민
들과의 우정어린 만남도 그렇거니와, 채 한국에
대한 인식이되어 있지않은 외국인들에게 코리아
태권도의 아름다움을 경탄케 했다는 것은 두고
두고 어린이들과 회상케 될 즐거운 자랑이 될것
이다. 시범후에는 깨어진 송판을 들고와 어린이
시범단에게 싸인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
마다 몰려들었다.

어린이시범단원들은 한국을 떠날 때까지는 그
저 무한히 천진난만하고 장난스러운 어린이들이
있는데 예복의 차림(유니폼)과 앞가슴에 붙어있
는 태극마크는 그들을 예의바르게 했고, 뚜렷한
이념과 국가관을 지니게 한 것 같았다. 태권도를
세계 곳곳에 자랑스럽게 알려야하겠다는 태권도
중주국의 한사람으로 뚜렷한 긍지와 신념 속에
똘똘뭉쳐 모두 「작은 대사(大使)」라는 사명감을
갖고 행동하는 것을 볼때 눈시울이 뜨거울 정도
로 자랑스러웠다. 이러한 어린이들에게 「작은
大使」라는 칭호를 붙여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
면서 마음속 깊게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오늘이 있기까지 헌신적인 노력으로 사명감을
갖고 도와주신 여러분과 국가시범단을 초청해
주신 미국 아마추어연맹 회장이시며 하위드레학
교 체육 및 테크레이션부 주임교수이신 양 동자
교수님에게 2년에 걸친 노고에 감사하다. 파인된
육심과 명예를 따지기 전에 지도자로서 바른 자
세와 헌신적인 노력으로 태권도에 더욱 더 발전
을 기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계속 배출되기 바
라며, 서로의 단점을 감싸주며 올바른 무도인의
정신을 본받게 해 줄 수 있는 서로간의 양보의
뜻이 있을 때 태권도는 더욱 더 발전할 수 있으
리라 생각하며 글을 맺는다.

전 코리아 헤럴드(Korea Herald)지 사장이었고, 본 대한태권도협회 이사로 계
셨던 원 경수(元瓊洙)씨가 숙환으로 80년 9월 8일, 64세를 일기로 영면(永眠)했다.
김 운용 회장은 이에 애도의 뜻을 표하며 원 경수씨를 추모했다.

■ 追 悼 文 ■

本協會 理事로 오랜동안 봉직하던 언론인 元 瓊洙씨가 숙환으로 별세했다. 올해 64세.

전체 태권도인들과 함께 故人의 명복을 빌어 마지 않는다.

元 瓊洙(원경수) 이사가 英字紙 코리아·헤럴드 社長으로 재직하던 1973년부터 주한 외국인 및 여자부 태권도 개인선수권대회를 코리아 헤럴드紙의 도움으로 5회에 걸쳐 개최했던 것이 오늘날 외국인 태권도 행사에 이처럼 불길을 일으킨 원동력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다. 그 많은 외국인들과 여자 태권도인들이 본 협회와 코리아 헤럴드가 공동 주관한 태권도 개인선수권대회를 거쳐 태권도 중주국의 실상과 태권도 정신을 온 세계에 전파하여, 우리 국위를 떨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파할 수 없다.

오늘날에도 英字紙 코리아 헤럴드(社長 金 泰東)가 계속하여 주한 외국인 및 여자부 태권도 개인선수권대회를 주관하여 국내외에 그 활약상을 보도 함으로써 그 중요성을 인식케 하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고마워 하고 있는 일이다.

1975년부터 1976년 까지 본 협회 자문위원, 그리고 1977년부터 1980년 9월 7일까지 본 협회 理事로 계시던 故人이 30여년간 언론인으로서 보여준 용기 있고 의협심 있는 행동과 그동안 태권도인 모두에게 불어 넣었던 정열적인 정신적 기개(氣慨)는 우리 가슴속에 길이 간직될 것을 의심치 않는다 다만 이렇게 日就月長하는 한국의 태권도가 非올림픽경기 종목으로까지 인정되어 세계적인 무대에서 빛을 발하러 할 때 유명을 달리한 故人에게 그저 마음 깊이 그간의 업적과 협조에 대해 감사할 뿐이다. 우리는 다시 무척 새 시대에 부응하는 태권도인으로 새 출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태권도의 앞날을 걱정하시던 故人이시어! 고히 잠드소서.

1980년 9월 7일

대한태권도협회 회장 金 雲 龍

어린이 태권도 대회 주치를 도운 서울 남산청년회의소 회장에게 감사패

대한태권도협회 김 운용 회장은 1980년 8월 7일 지난 5월 5일 장충체육관에서 어린이 태권왕 뽑기 태권도대회를 물심 양면으로 도와 준 서울 남산청년회의소의 김 상빈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봉사활동으로 사회의 정화에 참여해 온 청년회의소는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미래의 한국을 이끌어갈 어린이들에게 슬기롭고 튼튼하게 자라도록, 한 자리에 모여 힘과 기를 겨누며 즐거운 하

루를 보낼 수 있도록 대회를 도운 것이다.

이날 태권도 대회에서는 태권도 뿐만이 아니라 어린이들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오락과 장기자랑 시간을 마련하여 시종 화기애애하고 가족적인 분위기를 갖고, 어린이날 대회 의의를 살렸다.

이에 대한태권도협회 김 운용 회장은 서울 남산 청년회의소 회장 김 상빈씨에게 감사패를 전달한 것이다.



케냐의 「THE STANDARD」 신문기사

김 윤용 총재 케냐 방문

1980년 8월 10일경 케냐국의 국무총리인 카리 우키씨의 초청을 받고 케냐를 방문한 김 윤용총재는 8월 20일 정 도순 케냐주재 한국대사가 배석한 가운데 다니엘 아랍 모이 케냐 대통령을 예방하고 환담했다.

지난 1980년 4월 대한태권도협회 김 윤용회장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바 있는 카리우키씨가 이번엔 김총재를 교환 초청하여 아프리카

에 보급된 태권도의 현황과 국제 올림픽 종목으로 승인됨을 계기로 발전될 전망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는데 케냐를 방문한 연후 김 총재는 아프리카와 유럽의 수개국을 방문, 한국인 태권도사범들과 현지에서 태권도 보급현황 등을 논의했으며 새 시대를 맞이하여 모든 태권도사범이 일치단결 국제스포츠로서 조금도 손색이 없는 우리의 태권도를 세계속에 꽃피울 것을 다짐했다.

전국 태권도인 쥘기대회



1980년 8월 25일 약 500여명의 태권도인들이 모여 결의문을 낭독하고 사회정화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쥘기대회를 갖었다.

자 시 도 지부와 세계연맹·그리고 국기원 등 17개 단체와 지방과 서울의 도장 사범들은 “우리 태권도인은 사회정화에 앞장서서 밝은 사회 이룩하자” “사회악 일소에 선봉이 되자” 등의 피켓과 프랫카드를 들고 마음과 목소리를 합해 결의를 굳혔다.

決 議 文

우리 跆拳道人은 國家의 安全과 社會秩序의 確立을 要望하는 全國民의 與望과 國家保衛非常對策委員會의 過熱 課外 解消政策을 全幅的으로 支持하며 이 나라 國民 體位向上을 爲하여 더욱 奮發하고 祖國의 繁榮과 明朗하고 正義로운 社會風土 造成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決議한다.

- 一. 우리 跆拳道人은 果敢하고 英明하신 全斗煥 將軍을 새로운 國家元首로 推戴할 것을 全幅 支持한다.
- 一. 우리 跆拳道人은 教育正常化를 爲하여 國家保衛非常對策委員會의 施策에 積極 呼應하며 이를 實踐한다.
- 一. 우리 跆拳道人은 이 나라 國民體力 向上과 體育振興으로 國威宣揚에 渾身の 힘을 다한다.
- 一. 우리 跆拳道人은 跆拳道 道場의 圓滑한 運營을 圖謀하며 跆拳道人의 良心으로 社會淨化作業에 앞장선다.

一九八〇年 八月 二五日

全國跆拳道人 厥起大會

大會長 金 雲 龍

수도 전기 공업고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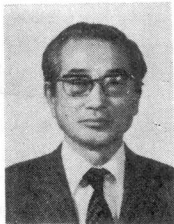
수 많은 역경과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반세기 역사의 전통을 쌓아 온 수도 전기 공업 고등학교.

검푸른 대모산과 구룡산을 뒤로하고 넓은 개포벌에 국가의 기대를 한 몸에 짊어진 채, 우뚝선 기상은 기술 조국의 상징이요, 전당이다. 본교의 교호 '나 하나는 수도의 전부가'를 외치며 '성실, 협동, 정밀'을 교훈으로 국가가 필요로 하는 기술과 인격 수양에 더한층 정진을 가하고 있다. 차근 차근 연구하고 배워 나가면서 국가와 사회에 봉사할 수도의 굳건한 보배들의 외침이 바로 이것 '나 하나는 수도의 전부가'

국가 기간 산업 발전에 원동력이 되는 전력분야의 젊은 기술인이 되고자 전국에서 선발되어 합격의 영광을 차지한 우수한 학도들이 아침마다 정성된 합창이 그것이다. 또한 한국 전력(주)에서 특성화 공교로 개편한 78년 부터는 전교생 전원이 장학생으로, 학비에서부터 육성·회비, 피복, 교과서, 실습기자재, 급식 및 기숙사세이르기까지 일체를 교비로 지급하면서, 오로지 투철한 국가관의 확립과 교도의 기술, 올바른 인간성을 함양하며 이웃을 사랑하게끔 가르치는 것이 그 목적이다.

국기 태권도가 이곳의 문을 두드리고 첫 발을 들여 놓은 때가 이 무렵인 1978년 4월 16일. 전교생 1,800명 전원이 24시간 생활관에서 생활하면서 우선 필요한 단결된 힘과 정신력을 높이는 데 태권도의 중요성을 널리 이해하고 계셨던 홍두표 교장 선생님과 박 상호 체육 주임 선생님의 강한 힘의 배려 덕분에 아닌가 싶다.

아침 5시 50분. 경쾌한 기상음악과 동시에 하루 일과가 시작된다. 6시경자, 국기 게양과 일



교장 홍 두표

조 점호가 실시된다.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멀리 고향에서 교생하시는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아침인사가 끝나고 개포벌이 떠나갈 듯한 우렁찬 소리로 목청을 가다듬는다.

주변장 학생의 '태권도 수련준비 끝' 보고가 끝남과 동시에 약 1시간에 걸쳐 태권도 수련이 시작 된다. 맑은 새벽 공기를 가져가면서 외치는 힘찬 기합 소리와 뜨거운 호흡 소리는 나

나의 자랑이요, 수도의 전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반복되는 태권도 수련의 목적은 유능한 대표 선수가 되려는 것도 아니요 훌륭한 사범이 되려는 것도 결코 아니다. 다만 동방 예의지국의 겸손한 예의와 미덕, 강인한 정신과 단결 및 협동심을 태권도를 통해서 배워 나가기 위함이다

이제 그 결실은 서서히 맺고 있다. 그동안 꾸준히 익힌 실력이 지난 80년 6월 22일에 실시되었던 국기원 승단 심사에서 61명이 합격의 영광을 맛 보았고 현재 3학년 1~2급, 2학년 3~4급 1학년 5~6급으로서 명실공히 전교생 유단화와 유급자의 실력이 나 하나와 함께 수도의 전부를 이룩하고 있다.

특히 태권도를 교기화 한 79년 부터는 전교생 도복 착용과 함께 국내 학교 체육관으로는 완벽하고 충분한 시설과 용구 확보로 어느 학교나 자랑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대단한 열의로 태권도 수련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끝으로 태권도의 배움이 나 하나의 지표가 되어 명실 상부한 수도의 일꾼이 되자는 교장선생님의 당부 말씀과 여러 선생님들의 고마움을 잊지않도록 더욱더 열심히 학업과 수련에 땀 흘리며 국가의 동맹을 이어나갈 조국근대화의 기수로써 국기 태권도의 수련은 계속될 것이다.

초청지도자 강습회를 끝내고

이 기 정

(콜롬비아 주재사범)

남미의 태권도엔 어렵듯이나마 태권도 발전을 위한 이정표가 착실히 세워져가고 있다. 전 세계 태권도인의 피땀어린 노력으로, 태권도가 올림픽의 광장에서 경기를 갖을 날이 머지않아 닥아올 계기를 갖게 되었으며 이미 전세계의 매스컴에 보도되어 세계 태권도인의 가슴에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희망을 가져다준 80년이다.

나는 그동안 착실히 계획하고 노력하였던 초청지도자 강습회를 이곳의 수도 Bogota에서 개최하여 성공리에 끝마치게 되었고 어려운 여건과 여정속에서도 급변 이곳 지도자 강습회를 성공리에 끝내고, 태권도의 이미지와 한국을 이곳 전국에 자상하게 소개한 정재규사범(국제사범)에게 한 사람의 태권도 사범으로써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러한 초청지도자 강습회 내지는 교환강습회가 각국에서 자주 일어나길 바라며 태권도 지면을 통하여 한번 어려웠던 이 과정을 상세히 기고하고자 한다.

태권도를 '남미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쓰고 노력하였던 나날이었고, 그 결과 계속 배출되는 유단자들이 늘어감에 따라 보다 더 새로운 중추국의 기술을 이곳 전태권도인에게 보여주고 싶은 생각에 한국에 있는 정재규사범과 술한 서신의 연락이 오고 갔으며, 급기야는 정재규사범을 CoCambia에 초청하여, 전유단자를 대상으로 한 지도자강습회를 개최할 것을 결정하고 준비에 입했다.

그러나 중남미 어디나 마찬가지이지만 태권도 사범과 유도사범의 진출이 막혀있으며 초청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문제이다. 입국비자를 얻는다는 것도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이곳에도 외무부 비자과에 가면 태권도사범 비자발급증지

표시가 나와 있으며 이미 나온 비자도 수차례 확인하고 나서야 발급하고, 다시 이 나라에 입국시에는 전발급비자는 무효화되고 다시 재차발급을 받아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나는 주위의 여러 제자들의 노력과 협력으로, 이러한 금지된 벽을 깨고 정재규사범을 초청하는 데에 성공하였으며, 그의 훌륭한 고도의 기술은 CoCambia 전 매스컴을 통하여 태권도 소개와 함께 퍼져나갔다. TV 각 신문사에서 특종으로 지면을 할애하여 주었으며 한국의 모습을 자세히 소개하는 기회가 되었다.

그는 8월 9일 Colombia에 입국하여 이곳 매사관의 지연태배사님을 찾아뵙고 태권도 현실을 보고드렸으며, 이곳의 체육회장, 국회, 정보부 등을 들러서 태권도 관계인들과, 태권도의 중요성, 지금의 위치, 현재와 장래, 올림픽의 전망 등을 설명하고 보다 더 태권도의 이미지를 쇄신하는데 최대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떠났다. 이곳 기사평에는 나르는 호랑이로 표현되는 등 태권도의 진가를 서슴없이 보여주었다. 200여명의 유단자와 수많은 관객, 그들은 열심으로 배우고 저 노력하였고, 성의껏 지도했다.

이렇듯 남미의 어느 곳이나 태권도가 보급되어 있지만 한인사범은 줄잡아 해라릴 정도이며, 세계 어느 지역보다 태권도의 취약지구이고, 경제적, 정치적 여러가지 여건 때문에 국제대회가 자주 열리지 않고 있으며 설명 열린다해도 계속 참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기에 매년 한 번씩 한국의 유능한 사범들이 이 취약지구엔 순회강습회를 개최한다면 아주 좋은 결실이 분명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한다. 나는 매년 한번씩 한국사범을 초빙하여 지도자강습회 내지는 품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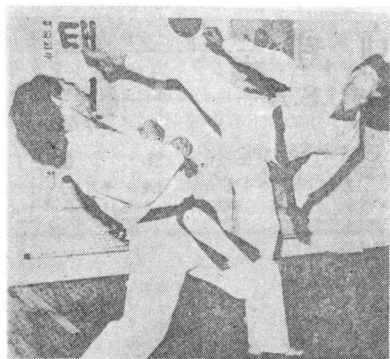


강습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확실히 그렇게 되리라 믿는다.

다행히도 금번에 에쿠아도르에서 제 2회 판암대회가 20여개국이 참가하는 가운데 열릴 예정이고 대회조직위원회에서도 부단한 노력은 경주하고 있으나 과연 얼마나 참가할지 의심스럽다.

현재 남미 각국에 선수를 확보하고 있는 나라가 많지 않다. 내년 제 5차 세계태권도대회가 겹치고 있으며 금번 10월에는 한국에서 국제군인체육회에서 주관하는 시즈경기대회가 열릴 에

정인데 남미에서는 모든 국가가 참가하고 싶으나 현실이 그러하지 못하다. 금번대회에 브라질과 콜롬비아가 참가할 예정으로 있으며 나머지 국가는 어렵다는 소식이다. 이렇게 국제시합이 자주 열리지만, 이 남미에서는 참가가 어렵기 때문에 계속 기술수준이 떨어져가고 있는 것 같다. 시합의 경험부족으로 기술의 격차가 넓어져가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또한 한인사범들에게도 상당한 문제가 계속 표출되고 있다. 남미 제국에는 10여년전 어쩌다가 이민온 한인들이 일



Profesor coreano

Jae Kyu Chung (derecha), profesor coreano de Tae kwon do, en una demostración con el director de la Academia Coreana de Artes Marciales de Bogotá Ki Joung Lee. Kyu Chung, arribó a Colombia para dictar una clínica de este deporte, enviado por la Federación Mundial. Luego proseguirá a Ecuador y Brasil. (Foto de Humberto Rojas)

Clinica de Tae Kwon Do

El lunes próximo se iniciará en la Academia Coreana de Artes Marciales, en Bogotá, una clínica sobre técnicas modernas de Tae Kwon Do, que será dictada por el profesor Jae Kyu Chung, 7o Dan, arbitro internacional, quien fue enviado desde Corea por la respectiva Federación Mundial.

La clínica tendrá lugar en el local de la Academia, en la carrera 16 número 8A-35, durante los días 11, 12, 13 de agosto. Jae Kyu Chung en la actualidad es miembro de la Federación de Técnicos en Tae Kwon Do y es instructor de las Fuerzas Militares coreanas con el grado de capitán. Además, fue campeón de su país en Tae Kwon Do durante

los años de 1966, 67, 68. En 1972 ganó en Tokio el Campeonato Mundial de Karate.

Este curso hace parte del propósito de la Federación Mundial de Tae Kwon Do por difundir su deporte en América. Es la primera vez que Jae Kyu Chung viene a nuestro Continente y después de dictar la clínica en Bogotá seguirá hacia Ecuador y Brasil.

La visita del destacado instructor se debe especialmente al interés de la Academia Coreana de Artes Marciales que dirige el maestro Ki Young Lee, quien ha programado para este año una serie de certámenes a nivel nacional e internacional.

EL TIEMPO
SAN GIL

LUCILA GALVIS DE MUTIS
Calle 12 No. 8-35.
Teléfono 3388

시적인 생활수단의 방편으로 태권도를 가르쳐 왔으며 그런 세월의 흐름속에 이제는 어엿한 고단자가 되었고, 협회장이니 하는 커다란 감투를 가졌다.

그러나 그러한 감투를 자기의 명예와 이권과 직결시키기 전에, 대의명분 아래서 태권도 발전을 위해 보다 더 젊은 엘리트 태권도 사범들에게 바톤을 우정어린 마음으로 넘겨주어야 할 시기다. 그러나, 자기가 아니면 안된다는 사고방식으로 젊은 사범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모순덩어리가 중남미 각국에 산재해 있다. 베네치엘라

파라과이, 브라질 등에서는 수년 전부터 있었던 일이고, 심지어는 후배사범을 추방시키겠다고 악을 쓰고, 인신공격과 현지인을 통하여 중상모략 내지는 법정투쟁등을 하는 행위가 얼마나 많았던가? 그로 인하여 오는 태권도 이미지 손상과 더불어 얼마나 많은 사범이 방랑하였으며 가슴아파 했는가? 도와주고 이끌어주지는 못할망정 깃눌러버려야 식성이 풀리고 자기만 잘했고 훌륭한 지도급 인사라 생각해야 했는가? 그리고 또한 비태권도인이 국위선양한다는 명분아래 태권도 관관을 걸고 하다가 이사고 저사고 저지르고 떠난것도 하나의 이유중의 하나이다. 내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다른 데에 있다.

즉 이번 경우처럼 필요에 의해 사범내지는 강습을 위해 비자신청하면 아예 서류조차 접수시키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모두가 유능하다고 자처한 한인사범과 뒤늦게 들어오는 사범들의 갈등속에서 싸우다 이렇게 되어 버린 것이다. 우리 스스로 조화와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번 이 어려운 중에도 태권도 보급을 위해서 Colombia까지 출강하여 준 정재규사범께 감사드리며 남미에서는 최초로 지도자강습회를 개최하였다는 점에 더욱 더 의의가 있으며, 이곳 지연대 대사님의 자상하신 보살핌과 전 공관 직원께서 주신 깊은 배려속에, 한국을 TV에 소개하고 각종 매스콤에 태권도를 올바르게 인식시킬 수 있었던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다.

이렇듯 중남미각국이 교환내지는 한국에서 초빙하여 강습회를 자주 열릴 수 있기를 바라며, 태권도 발전을 위해 해외 사범들에게 특별한 배려와 조언주시는 대한 태권도협회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올린다.

81년에는 이곳 몇개국의 사범들이 릴레이식으로 태권도 강사를 한국에서 초빙할 예정으로 뜻있는 사범간에 자주 연락되고 있는 지금 그 결실이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지리라 믿으며, 중주국인 대한태권도협회의 보다 더한 후원을 기대하고 있으며, 우리는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뛰고 또 뛰어갈 것이다.

미국의 태권도

Taekwondo in U.S.A

노영철

(일리노어 샌츠틸 AAU 태권도 부회장)



Who breaks this board in half using only his thumb.

봄을 세번 맞고, 개나리꽃과 진달래의 불이 아닌 비푸리는 도시의 막막한 낯설음으로 느껴 오는 봄을 그렇게 손가락을 꼽아가며 보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대단히 개인위주의 사회질서와 인종혼합의 불균형속의 균형을 이루며 고도로 발달한 과학으로 인해 자연적인 정신의 건전함을 조금씩 잃고 있는 것 같았다.

사람들은 개개인 단위로 건강에 대해 신경을 쓰며 운동을 한다. 취미로서 스포츠를 즐기고,

협동을 필요로 하는 운동이든 자신의 체력을 단련시키는 운동이든, 취미로서 재미를 느낄 수 있어야 하고 과학적인 체제가 있어야 한다.

나는 고국을 떠나 이란과 홍콩에서 약 1년간 태권도 사범으로 일하다 미국에 자리를 잡고 3년의 길다면 긴 시간을 태권도의 보급에만 전념해 왔는데, 나름대로 느끼고 깨달은 것은 현대의 스포츠는 지난 시대의 관념과 달리보고 즐기는 것 뿐만 아니라 참여하고 즐기고 보고 생활

에 스포츠가 매우 밀접하게 관계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가진 것은 두주먹 뿐이고 알고 있는 것은 태권의 기술과 정신뿐인 나는 그들의 흥미를 유발시켜 태권도라는 운동의 위력과 레크레이션적인 심심단련의 효과를 알리기에 고심했으며, 좀더 많은 사람, 좀더 광범위한 사회계층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 노력했다. 지금은 미국 일리노어주 3개 지관에 약 600명의 수련생이 태권도를 배우고 있으며 그동안 배출된 유단자가 약 30명에 달하고 있다. 문화권이 다른 동양의 작은 나라 한국에 대해 이들은 어떤 신비감을 지니고 있는 것 같았고, 나 또한 한국민의 우수한 정신력 같은 것을 모범으로 보여주기 위해 특히 태권도 수료과정에서의 예의, 같은 수련생간의 협동·양보·우애와 도장내에서 갖아야 할 엄숙하리만큼의 정숙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나는 무릇 모든 강한 힘은 육체의 주관이 아니라 정신력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중의 한 사람이므로 내 스포츠의 모국이자 태권도종주국인 한국에 대해 당당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물질보다 정신이 아름답고 강한 민족이라는 것을 강조하여 주지시키는 것이다. 현재 유단자로 독

립하여 자기나름대로 문하생을 가르치는 제자들도 인종과 관념의 차이를 초월하여 태권도 정신을 옮겨 보급하려 애쓰고 있다.

올해에는 약 600여명의 광범위한 시설을 갖춘 체육관을 개관하게 되는데 전적으로 태권도만을 위한 과학적인 체육시설을 갖추게 될 것이다.

또한 태권도가 국제올림픽의 새로운 종목으로 인정받게 된 것을 계기로 더욱 활발한 태권도보이 조성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주재 한국대사관의 도움을 받아 1주에 한번씩 한국을 소개하는 필름을 상연하고, 강습과 정신교육 신체단련으로 질과 양을 병행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국내에서 태권도의 발전과 보급에 애쓰고 있는 태권도인은 물론 그리운 고국을 떠나 머나먼 이국 땅에서 이름없는 민간외교의 직분을 묵묵히 수행하는 해외주재 사법들은 태권의 무궁한 발전과 빛나는 영광을 위해 일치단결하여 노력하리라는 믿음으로 오늘도 나는 가슴 가득 들어차는 그리움과 자부심으로 나의 일을 하고 있다.

〈社 告〉

海外 消息 投稿 歡迎

海外 駐在자범의 投稿를 환영합니다. 보내주신 海外師範의 投稿는 본 跆拳道誌의 編輯자로서 海外活動의 현황을 알고, 協會자료에 도움을 주오니 가급적 상세히 기록하여 빠짐없이 투고에 參與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接受된 原稿는 도착 順으로 本誌<세계로 뻗어간 태권도>란 또는 <특별기고>란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보내실 곳 : 서울 중구 무교동 19 대한체육회 609호 대한태권도협회

내가 본美國

강성호
(서울 미동국미학교 6학년 2반 태권도 시범단원)

8월 1일 !

드디어 우리 대한민국의 소년·소녀 태권도 어린이 시범단은 부모님의 보살핌을 벗어나 이 규형 사범님을 따라 미국을 향해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한국의 어린이 태권도를 대표하기 위해 비행기 트랩을 오르는 우리들의 마음과 얼굴에는 기쁨과 희망이 가득차 있었다.

우리들은 처음 타 보는 비행기라 눈이 모두 왕방울만하게 커졌다. 우리가 타고 가는 비행기는 태극기도 선명한 대한항공 008 DC 10기며 좌석 수는 276석이었다. 우리들은 조그맣고 날씬하게만 보이던 비행기가 승객을 276명이나 태운다는 말을 듣고 다시 한번 놀랐다.

우리를 태운 비행기는 예정시간 보다 20분 늦은 7시 30분에 김포공항을 떠났다. 정시에 출발할 수는 없을까? 이륙하고 보니 집들과 산이 저 밑으로 보이고 구름도 우리의 눈 밑을 지나가고 있었다. 고공 30,000피트 상공을 시속 1,000km의 속력으로 날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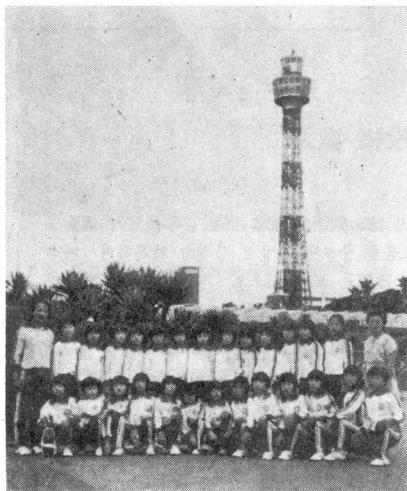
우리들의 얼굴에선 지친 표정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고 오직 활기찬 마음 뿐, 저마다 부모님께 편지를 쓰거나 일기를 쓰는 얼굴은 흥분과 진지한 표정이 엇갈리고 있었다.

지금 어머니는 무얼 하일까?.....저녁시간이 지난 탓인지 모두들 기내에서 맛있게 저녁을 먹고 있었다. 지금 시간 10시 20분! 모두다 노곤해진 몸과 피로 때문인지 일찍 잠이 들었다. 몇 친구들만이 집 생각을 하는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도 이 경란 교장선생님, 이 규형 사범님, 강 원식 전무이사님, 그리고 김 정사 주무님은 우리들 중 누구 하나 다치지 않을까 신경을 쓰시느라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셨다. 우리는 이 분들의 고마움에 감사 드리기 위해 시범을 잘 보여 태권도의 종주국임을 과시해야겠다고 다짐했다.

8월 2일

눈을 떠 보니 지금 시각 7시(미국시간) 한국시간으로 1시다. 어드레 모두 일어나 2시간 후면 당게 될 비행장에 내리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 해가 뜨는 광경을 찍는 아이도 있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해서 눈이 충혈된 아이도 있다.

그리고 보니 아침 식사가 나오려고 한다. 벌써 아이들은 메뉴가 될까? 궁금해 하는 눈치다. 아침 식사는 간단하게 빵과 꿀 그리고 커피가 나왔다. 이런 음식은 어른들에게는 괜찮겠지만, 구수한 된장찌개랑 밥과 김치를 많이 먹는 우리는 아직 이런 음식에 익숙하지가



동경탑 앞에서

않다.

드디어 알래스카(Alaska)의 땅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다. 울창한 숲이며 그림처럼 그려 놓은 구름과 저 멀리 푸르게만 보이는 산들이 눈 앞에 다가오고 있었다. 드디어 알래스카(편집자 註 Alaska) 땅에 도착했다 이곳은 앵커리지(편집자 註 Anchorage)라고 부르는 큰 비행장이다. 현재 시간은 9시(미국시간), 1시간동안 비행기 연료 보급과 청소를 하는 동안 우리는 대합실에서 쉬었다. 공항 대합실을 돌아보니 시계집, 커피숍, 박제점, 음식점 등 없는게 없을 정도로 붐비고 화려했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시선을 제일 많이 끈 것은 키가 우리의 4배나 되고, 몸무게는 5배나 되는 20살짜리 백곰의 표본이다. 이 곰은 북아메리카에서 사냥군에 의해 잡혀 박제가 되어 있었다.

우리들이 모두 '저것 참 좋은데!', 사진 한 장 찍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모두 하고 있을 때 008여객기가 수리하느라 7시간 지연된다고 하였다. 그래서 사범님은 시내 구경을 시켜 주신다고 하면서 우리들을 데리고 나가셨다. 나가서 시내 구경을 하다가 몇날에 이 알래스카의 조상들은 어떻게 살았나를 기록한 박물관에 가서 구경을 한 후 비행장으로 왔다. 오는 중에 차를 타고 밖을 내다 보니 아직 높은 산에는 눈이 쌓여 있었다.

나는 한번 눈을 감고 생각했다. 내가 태권도를 배우지 않았으면 이런 아름다운 경경을 볼 수 있었나 하고..... 이처럼 시내 구경과 식사를 하며 시간을 보내는 동안 벌써 7시간이 다 지나가고 비행기 탈 시간이

되었다. 모두 비행기에 탑승하여 안전벨트를 매고 출발하니 경치가 아름답던 알래스카도 머리 뒤로 유유히 사라져 갔다. 조금 더 지나가니 북극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아이들과 어른들은 너무나 멋져서 경박을 내다 보기도 하고, 사진을 찍기도 하였다.

또한 어제 잠을 덜 잤는지 잠을 청하는 아이도 있었다. 어떤 아이는 부모님께 편지를 쓰면서 국가를 빛낼 수 있기 때문에 국가대표 시범단원이 된 것이 자랑스럽다고 하였다. 그러한 친구를 볼 때 몇 킬로 몇 만리 떨어져 있어도 가슴이 뭉클했다.

밖은 흰 구름과 눈으로 가득차 있었다. 눈을 붙이고 잠이 들어 집에 있는 꿈을 꾸고 있을 때 천무이사님이 저녁식사를 하라고 하시서 일어나 보니 저녁식사가 나와 있었다.

8월 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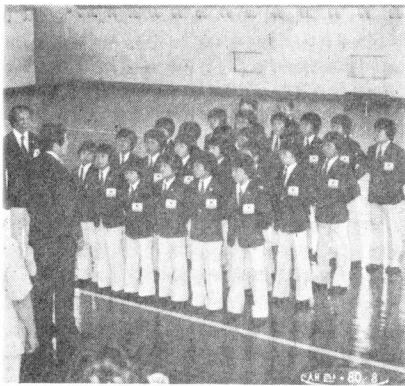
뉴욕까지는 55분 밖에 남지 않았다는 말을 들어서 미국 본토도 이제 한발 한발 내 앞에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했다.

4시에 뉴욕(New York)에 도착하니 미국관광버스가 대기해 있고 자동차가 나와 있어 작으나마 우리를 환영해 주었다. 우리를 중에서도 그중 미국에 온것을 가장 기뻐할 아이는 김 영석이다. 영석이는 7년만에 아버지를 만났기 때문이다. 영석이 아버지지도 나오셔서 우리를 환영해 주셨다. 석이 아버지가 뉴욕의 시가지를 구경시켜 주시면서 어떻게 해서 미국이 이렇게 발전 했는가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1492년 콜럼버스(Columbus)가 인도를 찾아가다 아메리카(America) 남부를 발견하였으며 그 후에 덴버(Denver)가 미국을 발견하고 나라를 세웠다는 것이다. 뉴욕에는 5개의 구역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맨하탄(Manhattan)이 가장 번화한 거리로 빌딩도 많고 길도 넓고 세계에서 제일 높은 엠파이어 빌딩(Empire Building)도 있었다.

우리는 뉴저지주로 가는 길에 엠파이어 빌딩 옆으로 흐르는 허드슨(Hudson) 강도 보았다.

미국은 과연 크고 강대국 같았다. 시외로 빠지니 울창한 숲이 보여 마음이 훨씬 맑아지는 느낌이었다. 어느 곳을 가나 작고 큰 가게도 많고 음식점도 많았다. 맨하탄에서는 길이 더러워 기분이 나빴으나 뉴저지주에서는 아주 상쾌했고 기분이 좋았다. 우리는 또한 미국에서 제일 긴 링컨이라는 터널을 지나 뉴욕 지구에 있는 박 사범님 댁에 도착하였다. 도착하자 가방을 놓고 샤워를 하고 잠깐 잠이 들었다. 한국과 미국은 시차가 크기 때문에 아침에도 잠이 왔다.

이제 시범이다!



결단식에서 김총재님으로부터 훈화말씀들으려

잠깐 눈을 붙였다가 일어나 설레이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였다. 준비운동은 공원에서 하기로 하였다. 런닝을 하면서 공원으로 갔다. 우리나라 공원의 10배나 되는 큰 공원이 온통 잔디로 덮여 있었다. 이 큰 공원에서 누구 하나 일 없이 놀러 오는 사람이 없었다.

시범을 보일 아스토토리로 갔다. 이 도장은 이 문성 사범들이 운영하시는 태권도장이다. 7시 시범에 앞서 자자 몸을 풀고 준비 운동을 하는데 외국 사람과 우리 교포들의 입장이 시작되었다. 많은 사람이 시범을 보기 위해 모여들었다. 시범은 7시 정각에 시작되었다. 첫 시범이라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했다. 참 잘했다고 생각한다. 이제부터 미국에서 시범이 시작되었구나 우리가 닦은 실력을 보여 주자.

시범 후 약간의 자유시간을 가진 후 저녁 식사를 한 국음식점 '명동'에서 하였다. 이 명동 음식점은 한국 음식을 파는데 김밥, 김치, 시금치, 콩나물 등을 잘한다는 말을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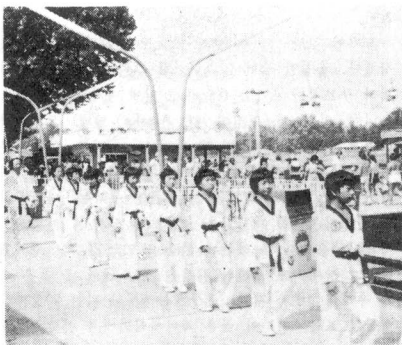
내일 마이아미로 가서 시범을 잘 보이자 생각하면서.....

8월 4일!

아침 9시에 마이아미로 떠나기 때문에 아침 7시도 안 되어서 일어났다. 그 때 벌써 해는 높이 솟아 있었다 일어나 가방을 챙기고 세수를 한 후 비행장에 나갔다 시간이 남아 조금 구경을 하다가 9시 30분 비행기에 올랐다. 진짜 뉴욕에서 우리를 위해 힘써 주신 이 문성 사범님과 박 사범님과 헤어져야 했기 때문에 마음이 아팠다. 곧 비행기가 이륙했다. 비행기는 2시간 반 만에 마이아미에 도착했다. 도착하니 양희장님이 나와 계셨다. 모두들 양희장님께 인사를 한 후 호텔에서 묵기로 했다. 차를 타려고 밖에 나오니 날씨가 하도 더웠으므로 역시 해변도시는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길거리에는 야자나무들이 긴 잎을 드리우고 서 있었고 우리는 타는듯한 태양빛을 받으며 콜롬부스라는 호텔에 도착했다. 굉장히 큰 호텔이지만 엘리베이터를 손으로 움직여야 하는 것을 보면 꽤 오래 전에 세워진 것 같았다.

몸을 씻고 시범이 있을 체육관으로 갔다. 시범 장소에는 시장장까지 나와 더욱 시범을 잘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송판이 두꺼워 격파가 잘 되지 않았다. 실수가 많았다. 어떻게 시범을 끝내고 돌아와서는 어머니께 이렇게 편지를 썼다. "어머니 오늘 시범은 애들 많이 먹었습니니다. 사범님과 함께 다음시범에는 잘 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8월 5일!



아메리칸파크에서 시범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고단했던 몸을 일으키며 상쾌한 아침 햇살을 맞았다. 어제 얼마나 고단했는지 침대에서 떨어지적이 한 두번이 아니었다. 오늘은 탬파(Tampa)에서 시범을 보이는 데 비행기를 타고 20분만 간다고 해서 기분이 좋았다 비행기를 탔다. 비행기가 하늘 높이 솟아 올랐다. 마이아미도 내 발밑에..... 아 황홀한 도시 마이아미(Miami)야 안녕. 눈 깜짝할 사이에 탬파가 보인다. 마이아미 못지 않게 더운 날씨였다. 7시에 시범을 하며 우리는 천날 각오한 바대로 실수없이 잘 끝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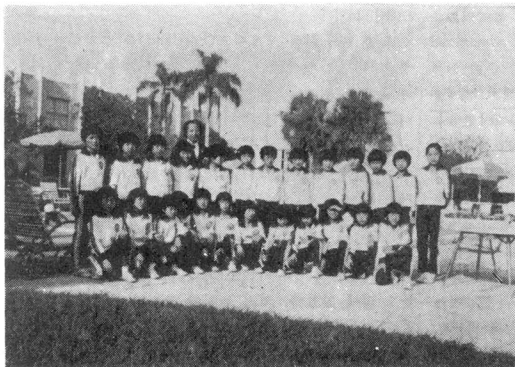
8월 6일!

오늘은 비행기를 2시간 30분 탔다. 어제 탬파(Tampa) 가는 것 보다는 지루했다. 아이튠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 벌써 미국의 수도 워싱턴(Washington)이 눈앞에 보였다. 역시 수도다운 면모가 있었다.

도착하니 양희장님이 나와 계셨다. 우리는 양희장님을 따라 국회의사당을 보았는데 그 조카들은 견고하고 선명하기 짝이 없었다. 안을 구경하다 밖으로 나와 한국 대사관에 가 김 용식 대사님을 만나, 다과회에 초청받고 대사관에서 시범을 열심히 해 달라는 격려의 말씀을 듣고 왔다.

8월 7일!

아침 일찍 일어나 힘차게 기지개를 펴고 유튜브닝복으로 갈아 입은 후 푸른 잔디를 힘차게 밟으며 런닝을 하였다. 얼마나 열심히 하였는지 아이들의 이마에는 구슬 같은 땀이 흘러 내렸다. 10시에 관광을 갔다. 처음 간 곳은 대통령이 계신 백악관이었다. 국회의사당과 같은 웅장함은 찾아볼 수 없었지만 아담하고 잘 정돈되어 있었다. 백악관 앞에서 기념촬영을 했고 그리고 박물관을 구경하고 오면서 워싱턴 시청을 방문하였다. 마



침 시장이 없어 시장 부인과 보좌관께서 나와 환영해 주셨다. 우리를 어린이에게 환영인사를 하고 교장선생님께 패를 전달하였다. 그리고 같이 태권도를 배우는 수련생으로서 선물교환이 있었다. 참 뜻깊은 장면이었다.

시범을 보일 체육관에 도착하였다. 많은 교포가 나와 환영해 주었다. 이번에도 시범이 잘 안되는 것 같았다. 실패가 많았다.

여기에서 미키마우스 시계를 선물 받았다. 다음 시범에는 잘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8월 8일

10시에 양회장님 댁을 떠나 대형버스를 타고 노퍽(Norfolk)으로 향했다. 점심에는 햄버거를 먹었다. 미국에 와 처음으로 바다 밑으로 가는 터널을 통과했다. 나는 어서 커서 우리 나라에도 이런 터널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시범 장소인 체육관에 도착하여 몸을 풀고 어제 보다 잘 해야겠다는 신념속에 시범을 했다. 시범은 좋았고 연필깎기를 선물 받았다. 여기서 성육이 삼촌을 만나, 성육이 삼촌에서 하루밤을 묵었다. 성육이 삼촌에게 고마운 생각이 들었다.

8월 9일!

아침식사를 끝내고 좋은 대우를 해 주신 성육이 삼촌에게 감사 드리며 워싱턴(Washington)으로 향했다. 시범장소인 체육관에 도착해 "어제도 잘 보인 시범 오늘도 잘 보이자" 하며 시범을 보였다. 어느 때 보더라도 잘 보인 시범이었다.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았다. 여기서는 AAU 뱃지와 메달 그리고 A.A.U. 훈장을 주셨다. 제일 추억에 남는 선물이었다. 그리고여기 계시는 교포분들은 우리가 보인 시범을 관람하시며

우리 나라에도 저런 섹션한 어린이가 있었나 하시며 우시는 분도 계셨다. 그리고 메달을 주신 사범님들에게 고마운 생각이 들었고, 가슴이 벅차 눈에서 눈물이 나오려고 하였다. 이 워싱턴에서 나는 조국이 그리운 것을 새삼 느꼈다.

8월 10일!

아침 일찍 일어나 집을 챙기고 서둘렀다 아침식사 시간이 되어 오늘은 구수한 두부국을 해 주셨다. 속까지 얼큰해 지는것 같았다. 아침식사를 맛있게 먹고 공황을 향하여 떠났다. 나는 마음 속으로 양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말했다.

공황에 도착해 양회장님과 일일이 악수하면서 산타클라라(Santa Clara)에서 다시 만나

기로 하고 이별을 하였다. 비행기에 오른 우리들은 짧은 3일이었지만 정들었던 워싱턴에 작별인사를 했다.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준 워싱턴.

깨끗하고 아름다운 워싱턴,

인제 내 발길로 치나가 버리는 워싱턴 안녕.....

얼마를 갔을까 다음 목적지인 신시내티가 눈앞에 보였다. 나는 한 눈에 이 도시 역시 아름다운 도시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 우리의 시범장소는 아메리칸 파크(American Parks)라고 하는 곳이었다. 사람이 많고 있었다. 시범을 하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물려와 밖에서 볼 정도로 성황이었다. 여기서는 시범을 아주 잘 보였는데 날씨가 하도 더워 도복이 다 젖을 정도였다. 시범을 끝내고 아메리칸 파크에 있는 놀이기구를 타고 아이스크림과 사이다, 콜라도 많이먹었다

8월 11일

오늘은 하루였지만 즐겁고 유쾌했던 신시내티(Cincinnati)를 떠나 자동차 경주장으로 유명한 인디아나폴리스(Indiana polis)에 도착하게 되었다. 우리는 하루동안 보살피 주신 박 사범님과 여러 사범님의 전송을 받으며 떠났다. 신시내티를 빠져나와 온화하고 평화로운 시외로 접어들었다. 바람으로 흔들리는 수양버들, 하늘 높이 솟아오른 나무를 이번 대자연에서 한번 숨을 추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인디아나폴리스에 도착하니 윤 사범님이 마중나와 계셨다. 시범 장소는 극장(註: Indiana Central University Auditorium)이었다. 극장에서의 시범은 처음이었다. 시범이 시작되기 전 인사말이 있는 다음 시장이 나와 뱃지를 달아 주고 시범을 참관하였다. 좁은에서 하는 시범이지만 당황하지 않고 시범을 잘했다. 그리

교 AAU 배지를 주었다. 인상에 남은 좋은 선물이었다.

8월 12일 !

10시에 처음으로 관광을 하는 날이다.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큰 자동차 경주장을 보러 떠났다. 2시간쯤 가자 경주장이 보이기 시작해 경주장을 한바퀴 돌고자 동차 박물관에 가 1800년부터 지금까지 우승해온 자동차를 봤다. 그리고 지금까지 모르던 엔진 크락은 헬멧을 실제로 보고 많은 것을 배웠다.

8월 13일 !

오늘은 록키(Rocky)산맥을 넘어 시카고로 갔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뒷바라지를 해 주셨던 윤 사범님에게 감사 드리고 비행장에 도착해 비행기를 타고 떠났다. 미국의 대표적인 산맥인 로키산맥을 조금 있으면 보게 된다고 부풀어 있었다. 이제 록키산맥이 보인다. 하도 길어서 골이 안보였다. 아지 눈으로 둘러싸인 산. 정상에는 흰눈으로 덮혀 있고 밑에는 푸른 나무로 둘러싸인 정말로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시카고에 도착하니 김 광웅 사범님이 기다리고 계셨다. 차를 타고 음식점에 도착했다. 미국에 와서 처음으로

병면을 먹었다. 병면을 먹고 세계에서 제일 높은 C.S.타운을 보러 떠났다. 빌딩의 숲이 웅대한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모두 다 평강히 높은 것 같았다. C.S.타운에 도착하니 태양은 볼 수 없고 그늘만 보였다. 원래 빌딩은 130층인데 우리는 103층까지만 올라갔다. 올라가는데 귀가 멍멍해지는것 같았다. 103층까지 1분도 안걸렸다. 올라가 보니 자동차도 나무도 작게 보이고 사람은 개미만하게 보였다. 그리고 쌍둥이 빌딩도 보였다.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 미국사람들을 능가하여 우리 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끼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할 것을 다짐했다. 오후 김광웅사범님 지역에서 시범을 하고 케노샤(Kenosha)에 잠을 자기로 했다. 그런데 가다가 캐나다(Canada)와 국경을 잇는 미시간(Micigan)호를 보았다. 참 좋은 풍경이었다.

8월 14일 !

오늘 떠나게 될 포트랜드(Portland)를 생각하면서 이불을 박차고 일어났다. 어른들에게 인사를 하고 비행장으로 가기 위해 서둘렀다. 차를 타고 비행장으로 향했다. 비행장에 도착해 하루였지만 우리를 위해 힘써 주신 김 사범님에게 감사 드리고 비행기에 올랐다. 몇시간 몇 분을 갔는지 우리 교포들이 많이 사는 포트랜드가 서서히 보이기 시작했다. 이 도시도 평화롭고 온화한 도시 같았다. 매합실에 내리니 최 사범님이 나와계셨다. 우리는 최사범님 덕에다 짐을 놓고 오늘 있을 시범에 대비했다. 차를 타고 가니 코가도르가 있고 큰배들도 많이 있었다. 역사 발전된 도시라고 생각했다 시범 장소는 체육관이 여러개나 있는 학교(Portland University Gym)였다. 우리는 시범에 대비, 몸을 풀고 정신을 가다듬은 후 시범에 임했다. 시범을 시작하니 우뢰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우리는 이 뜨거운 박수 소리를 듣고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시범을 아주 잘 보였다. 시범이 끝난 후 우리 시범단 단원이 탈춤까지 추어 많은 인기를 받았다 그리고 거기에서 태권도 시범을 보러 온

사람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고 교포들과 얘기도 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그런데 여기에 많은 교포분들이 오셨는데 색동저고리 같은 한복을 입고 나오셔서 기분이 좋았다. 우리는 중국집에서 우리를 위해 미국인들이 엉터리 태권도 시합을 벌여 한동안 웃음 바다를 만들었다. 저녁을 먹고 일찍 잠이 들었다.

8월 15일

아침에 일어나 관광을 하기 위해 서둘렀다. 준비를 끝내고 차를 타고 관광을 하였다. 달려보니 침엽수림이 여기 저기에 있었다. 날씨는 흐리 기분이 좋지 않았다. 우리가 가는 곳은 마운틴 후드(Mt. Hood) 산인데 가다가 미국에서 두번째로 긴 콜롬비아(Columbia) 강도 보고 폭포도 보았다. 강과 폭포가 어울리는 것 같았다. 꼭대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다. 도착하니 밑에는 침엽수림에 가려 땅이 안보였다. 그리고 저 멀리 산이 또



마이아미에서



보인다. 아직 정상은 겨울인지 눈이 있어 스키를 타는 사람도 있었다.

내려오는 도중에 수력발전소에 가 발전소 구경도 하고 작은 물고기도 봤다. 그리고 우리 키텔만한 메기와 송어도 보았다. 이런 것을 보고 좋은 공부를 한다 생각했다. 구경을 끝내고 돌아왔다.

8월 16일!

오늘은 포트랜드에서 마지막 날이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로 떠나기 위해 짐을 챙기고 비행장으로 향했다.

비행장에 도착해 최 사범님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교포 할머니들의 전송을 받으며 비행기에 올랐다. 언덕의 도시 샌프란시스코를 간단히 하니 빨리 도착했으면 하고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시간이 늦게 가는 것 같았다. 드디어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해 민교수님을 만났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영성이 아버지님을 만났다. 차를 타고 호텔에 도착해 여장을 풀고 다시 차를타고 영사관에 가 영사님과 공사님 교육관님을 만나고 돌아와 자유시간을 가졌다. 아이들과 강남을 치다 시계를 보니 9시여서 잠을 자기로 하였다.

8월 17일!

오늘은 그토록 유명한 금문교에 간다는 말을 듣고 귀가 솔깃해졌다. 우리들은 이야기를 나누며 “금문교는 남해대교 보다 더 높으면 아니야?”라고 말하여 기뻐하고 있으니 오늘은 호텔을 옮겨 한국사람이 경영하는 호텔에 간다고 하여서 더욱 기뻐했다. 그간 우리를 위해 친부모님과 같이 해주신 천무이사님께서 한국에 급한 사정이 있어 떠나시게 되어 작별인사를 하였다. 같이 고국까지 못가는 것이 슬펐다. 짐을 풀어놓고 금문교 구경을 갔다. 금문교에 도착하니 인개가 끼어 금문교의 폭대기가 안보였다. 바람이 불고 있는데 바람은 매우 세었다. 갈매기가 훨훨 날고 있었다.

구경을 마치고 호텔로 와 점심 식사를 하고 오늘 있는 미국 주니어 올림피아 대회 개최식에 인사를 하러

산타클라라(Santa Clara)에 도착하니(University of Santa Clara Gym.)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다. 귀빈 관람석에 앉아 구경을 하는데, 각 도마다 입장식이 있은 다음 우리의 소개가 있었다. 소개가 있자 미국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휘파람도 불며 환영해 주었다. 기억에 남을 좋은 구경이었다. 개회식에 참석한 후 저녁식사를 하고 호텔로 와 오늘 있었던 일을 일기에도 쓰고 편지를 쓰며 시간을 보내다 잠이 들었다.

8월 18일

아침에 일어나 오늘 보게 될 거리 구경과 시범을 하기 위해 서둘렀다. 준비가 끝나고 바다 구경을 하기 위해 차를 타고 시외로 빠지니 몇 분만에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다. 저 멀리 수평선을 따라 해가 솟아 오르고 있었다. 참 멋진 것은 광경을 보고 차를 타고 달려보니 과연 언덕의 도시가 보였다. 이 도시를 따라 올라가다 책에서만 보던 전차도 보고 많은 것을 배우고 백화점에 가 보았다. 노인회에서 옷을 하나씩 사 주시고 트로피도 주었다. 체육관에 도착해 많은 교포가 보는데서 시범을 잘 하고 호텔로 와서 친구들과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8월 19일!

오늘은 바닷가로 가서 바위섬에 물개들이 올라 앉아 평화롭게 노는 것을 보았다.

잔잔한 바다에 물고기가 헤엄쳐 다니는 것도 보고 갈매기가 바다 위로 날아다니는 것을 봤을 때 참 평화로운 것을 느꼈다. 그리고 여러가지 관광을 하였다.

8월 20일!

그동안 우리를 보살펴 주신 민 교수님과 작별인사를 하고 미국에서의 마지막 코오스인 로스앤젤레스(Los



호텔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Angeles)로 떠났다. 그동안 정들었던 곳인데…… 무척 떠나기가 싫었다.

비행기를 타면서도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다. 일기를 쓰며 편지를 쓰다 보니 엘 에이(L.A.)가 눈 앞에 보이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교포가 제일 많이 산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부풀기 시작하였다. 도착하니 김 사법님이 나와서 환영해주었다. 우리는 한일편이라는 곳에서 점심을 먹고 오하시스 호텔에 짐을 놓고 나와 영사관에 들려 영사님 교육관님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한 다음 도장에 가슴을 꿰고 호텔로 돌아와 짐을 풀었다. 그리고 사법님의 정신 교육의 말씀을 듣고 잠자리에 들었다.

8월 21일

아침 일찍 일어나 가벼운 마음으로 오늘 가게 될 유니버설 스튜디오(Universal Studio)를 생각하며 집합을 하여 차를 타고 떠나는 데 조금 가니까 스튜디오가 보였다. 도착해 가지고 제일 처음에 드라큘라 영화를 보았는데 드라큘라, 프랑크쉬타인 헐크의 실물도 보였다. 아주 시설이 잘 돼 있었다. 무경을 끝내고 모노레일을 타고, 스타워즈, 죠스, 심계 등도 보고 6백만 불 사나이로 어떻게 촬영하는지도 알았다. 2중 촬영으로 하는 것을 보고 기술이 참 발달 되었다고 생각했다. 다시 말하는 앵무새와 길쭉어진 개, 또 원숭이도 구경하고 서부영화도 보았는데 정말 연기들도 참잘하는 것 같았다.

구경을 끝내고 시범을 보이기 위해 체육관으로 갔다.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정신을 차리고 시범을 한 결과 많은 성과를 얻었다. 우리가 격파 하나 하나를 할 때마다 우리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시범을 끝낸 후 저녁을 먹고 호텔로 와 내일 가게 될 꿈의 궁전 디즈니랜드를 생각하며 일찍 잠이 들었다.

8월 22일

상쾌한 마음으로 기지개를 펴고 일어나 꿈에 궁전으로 가기 위해 서둘렀다. 가지 전에 사진판에 카메라를 하나씩 사 주었다. 그런데 이 동네는 순 한국말로 간판이 있었다. 차를 타고 40분쯤 가니 디즈니랜드의 성이 보이기 시작했다. 꿈에 그리던 디즈니랜드 이제 사실일까? 하고 생각하였다. 도착하니 마침 25주년 기념이었다. 그래서 기차를 타고 원시시대를 비롯해 디즈니랜드를 기차로 한바퀴 일주하고 25주년 기념 퍼레이드를 보았다. 미키마우스, 백설공주, 신데렐라 개들을 보고 우리들은 생전 처음 보는 것이라 사진을 찍기에 바빴다.

퍼레이드 구경을 끝내고 영화관에 들어가 미국 세계

를 영화로 일주하고 나왔다. 그런데 영화에서 우리가 지나온 워싱턴,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을 볼 때 마음이 뿌듯했다. 청룡열차도 타 보고 자동차도 타보았다 유쾌한 하루였다. 저녁 9시쯤 되자 전기로 기구를 만들어 퍼레이드를 하는데 참 멋있었다. 풍물, 달팽이, 거북이 등의 모양을 전구로 이어 만들었는데 참 멋있었다. 이것이 끝나고 25주년을 축하하는 불꽃놀이가 있었다. 하늘에 여러개의 색이 멋있게 수놓아 졌다. 구경을 끝내고 호텔로 와 너무 피곤해 잠이 들었다.

8월 23일

이제 미국은 오늘이 마지막 날……

그동안 즐거웠던 일과 슬픈 일을 같이 보였던 미국 지금은 떠나고 싶지 않은 생각이 간절하다. 하루만 더 있었으면 하고 생각했지만…… 그동안 우리를 구경시켜 주시느라 수고하신 김 관광님이 너무나 고맙웠다. 인사를 마치고 점보 747 비행기로 일본을 향해 떠났다. 가다가 호노룰루에서 1시간 머무르고 다시 비행기를 탔다. 몇 시간을 갔는지 일본이 눈앞에 보이고 비행기가 활주로를 내려 앉았다. 맑은 지금 비가 오고 있었다.

내리니 저녁 9시(한국). 우리는 동경으로 가기 때문에 나리다 국제공항에서 내려 차를 타고 또 몇 시간을 달렸다. 새벽 4시 동경에 도착해 한국 거주민단이라고 하는 데서 아침을 먹고 9층 숙소에서 가 잠깐 눈을 붙였다. 그리고 7시쯤 대사관을 가기 위해 일어났다. 대사관에 도착하니 매미가 소리 높혀 울고 있었다. 대사님께 인사드리고 민단본부에 와 민단 회장님과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렸다. 오후에 요코하마라는 항구에 가 배들도 보고 모노레일도 보았다. 공원에 들어가 거기 있는 배를 구경하기로 하였다. 이 배는 원래 미국을 왔다 갔다 하는 배인데 지금은 관광선으로 있다고 하였다. 그 안에 들어가 구경하는데 금문교, 마이아미, 뉴욕 등 우리가 들렀던 곳을 보니 기분이 아주 좋았다. 여기서 기념촬영을 하고 숙소로와 일기를 쓰며 시간을 보냈다. 우리가 이 거주민단이라는 곳에서 묵는 것은 일본에는 조총련(북한)과 민단이 있어서 호텔에서 자면 납치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개인 행동을 하면 안된다고 생각하였다.

8월 24일 !

우리나라 사람이 경영하는 은행을 오늘 가기로 하였다. 상업은행이라고 한국 사람이 경영하는 은행도 가보고, 스승이신 최영의 회장님이 경영하는 통일일보도 가보았다.

그리고 일본 천왕이 사는 자택도 가보았다. 풀이 우

거지고 옆에는 호수가 있어 적의 침공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었다. 여기서 일본사람은 천왕을 무척 존경한다는 것을 알았다.

또 일본의 시장도 가 보고 절에도 가고 거기서 5층식탑도 보고 평화의 상징 비둘기를 한 2천마리쯤 구경하고 불공을 드리고 왔다. 내일 시범을 위해 간단히 몸을 풀고 잠자리에 들었다.

8월 25일

오늘은 시범을 하기 때문에 몸을 풀고 마음을 가다듬었다. 또 오늘 한국 기업인이 일본에서 제일 큰 시설을 만들어 놓은 곳에도 가 보기로 했다. 연회식 등 여러가지 시설을 만들어 놓은 건물에 가서 한국인이 얼마나 훌륭한가를 보고 한국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고 민단 본부로 왔다. 천천히 몸을 풀고 시범에 대비했다. 많은 관람객이 왔다. 또 채널 12에서 촬영을 했다. 우리는 정신을 집중해 시범을 잘하고 온천탕에 가 목욕을 하고 돌아와 잠자리에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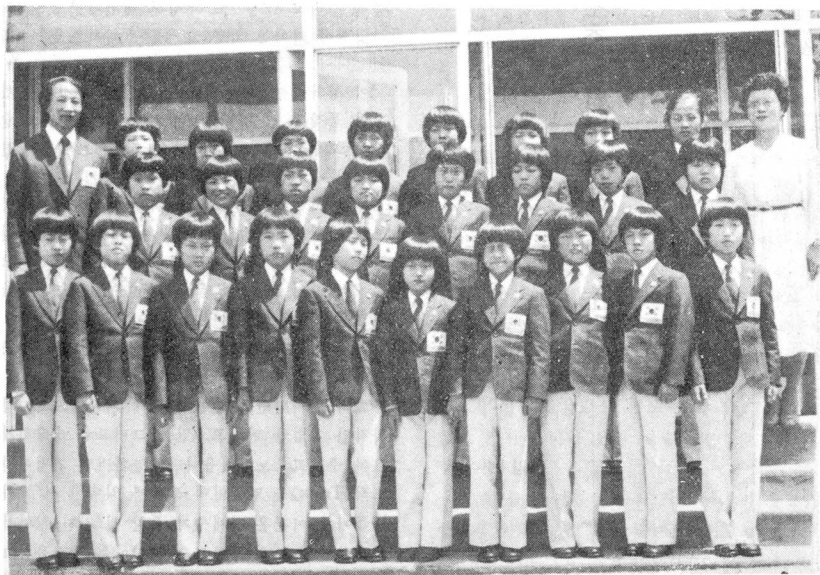
내일 그국에 돌아간다는 생각에 2시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다 2시 30분에 잠을 잤다.

8월 26일

이제 그국에 돌아간다. 얼마나 기다리던 날이었건가 분주하게 짐을 챙기고 옷을 입고 일찍 동경을 떠나 나리다 공항으로 향했다.

공항에 도착해 DC 10기로 그국으로 떠난다는 부론생각에 잠겼다. 그동안 고맙게 도와주신 조 회장님 박 부회장님, 총무이사님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비행기를 탔다. 우리는 비로서 나리다 공항을 뒤로 하고 떠났다. 나는 비행기 안에 모든 시범의 일정을 무사히 마친데 대해 감사 드렸다. 조금 있으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땅에 닿게 된다. 한달만에 밝게 되는 내조국의 땅이다. 모두 다 부모님을 만나는 생각에 두 눈이 초롱초롱 빛났다. 내 나라의 국기인 태극기를 가슴에 달고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한 26일간의 일정을 마친 것이다. 정말 추억에 남는 일이었다. 시범을 보일 때 마다 사람들의 열렬한 환영과 박수소리가 먹리를 스쳐갔다.

또 우리나라 국기인 태권도가 미국에서도 크게 발전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무척 기뻐다. 더욱 열심히 수련하여 우리나라 국기인 태권도를 더욱 빛내겠다고 다짐했다.



상을 받고 나서

제2회 튀니지 국제스포츠 영화제 특상수상 소감

이 규림 (한국방송공사(KBS))

1980년 4월 1일에서 4월 8일 사이에 열렸던 제 2회 튀니지 국제스포츠 영화제에서 “태권도”가 선진 여러 나라의 우수한 작품을 제치고 특상을 받았읍니다.

「태권도」는 내가 1976년 4월 국립영화제작소에 근무할 당시에 만든 단편 문화영화(천연색 18분품)인데 이번 국제대회에서 상을 받으면서 세인의 이목을 받게 된 작품입니다.

국립영화제작소에서는 우리나라 문화와 역사를 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단편 문화영화를 많이 만들어 해외에 소개하고 있는데 「태권도」도 그와 같은 목적에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신문지상에도 소개 되었듯이 나는 이 영화에서 태권도의 발전 과정을 역사적으로 맥을 짚어 경주 석굴암의 금강역사상, 고구려 무용총 벽화에 있는 겨루기 자세, 그리고 1790년 조선시대에 발간된 무예도보통지에 실려있는 태권자세를 자세히 소개했으며 태권의 비술을 후대에 전승시켜 주고 있는 고려의 송 덕기 응의 유연한 몸 동작 그리고 12명으로 구성된 대한태권도협회의 시범단이 벌이는 각종 묘기를 효과적으로 수록했읍니다.

이 영화에서 나는 특히 배경 선정에 신경을 썼으며 동작의 연결과 전체의 몸 움직임 그리고 슬로우 모션(Slow motion)과 새로운 효과음을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였읍니다.

우선 고전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장소를 고궁으로 정했으며 서 있는 사람의 자세가 수직선인 점을 감안해서 배경에 흐르는 그림을 수평선으로 잡았으며 흰 색의 도복이 잘 어울리는 곳을 촬영장소로 정했읍니다.

이같은 화면 설정에서 얻어진 것이 길게 뻗은 경복궁 담장과 푸른 잔디밭이었읍니다.

그리고 시범단을 출연시킬 때 의식적으로 영화적인 기법을 피하고, 있는 그대로를 순수하게 보여 주려고 노력했읍니다. 영화적인 기법이란 트릭(Trick)을 말함인데 트릭에 익숙한 서구 사람들에게 이같은 잔재주가 통할 것 같지 않아서 처음부터 트릭을 무시하고 움직이는 동작을 그대로 보여 줌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사로 잡고저

했으며 슬로우 모션으로 동작을 분해함으로써 느낌을 더욱 강조했습니다.

다음으로 고심한 것이 효과음이었습니다. 선수들의 기압 소리와 송관 또는 기왓장 격파시에 나는 소리를 슬로우 모션으로 잡았을 때 과연 어떤 효과음을 내느냐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슬로우 모션식으로 스피드(Speed)를 늘려서 실제의 소리를 들어 보니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 다.

그래서 선수들을 일일이 녹음실로 불러서 슬로우 모션 그림에 맞추어서 기압 소리를 내게했 으며 기왓장 깨지는 소리도 그림에 맞게 스튜디오(Studio)에서 만들어 넣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을 거쳐서 완성된 것이 바로 「태권도」 영화였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나는 이 「태권도」 영화 한 편에다 한국인의 혼을 집어 넣으려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 후 「태권도」는 7개국 말로 번역되며 우리나라와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대상국 방송망을 통해 세계 여러 곳에서 방송되었으며 태권도 보급을 위해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사범들이 이 영화를 많이 활용했습니다.

특히 이 영화에 직접 출연했던 시범단원들의 해외 진출 활약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신문지상에 보도된 심사위원들의 평을 읽고 나서 나의 노력에 헛되지 않았음을 실감했습니다.

최근에 안 사실이지만 보잘것 없는 이 단편영화 한 편으로 말미암아 태권도를 보는 세계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지자 이에 편승해서 “무적가 라페”라는 기록영화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마치 태권도인 양 위장해서 특을 보려는 사례도있 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만든 영화가 세계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아울러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세계에 바르게 알리게 됨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 니다.

나는 1978년 11월 말에 국립영화제작소를 그만두고 한국방송공사(KBS)로 자리를 옮겼습니

다.

튀니지에서 영화제가 벌어지고 있는동안 나는 어린이 프로그램(Program)을 제작하기 위해서 동남아(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홍콩)를 돌고 있었으며 예정대로 일을 마치고 4월 15일 귀국한 후에야 태권도 수상 소식을 들을 수 있었 습니다.

수상소식 보다 더욱 반가운 일은 태권도 경기 자체가 국제스포츠경기연맹에 가입했다는 사실과 태권도가 국제 올림픽 종목으로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올림픽 종목에 태권도가 들어간 사실은 우리나라의 금메달 획득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단 체육인들 뿐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문화영화 「태권도」가 국제영화제에서 수상한 이상의 기쁨이며 쾌사입니다.

대한태권도협회 김 운용 회장님께서 1980년 6월 5일자로 본인에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권도 발전과 세계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패를 주셨는데 나는 오히려 이같은 말씀을 김 운용 회장님께 되돌려 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앞으로 더 좋은 작품을 만들어 주고 더욱 더 이 길로 정진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감사패를 마음속 깊이 간직하렵니다.

나는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우리의 문화와 역사 속에서 숨쉬며 살아 나갈 것이며 한국인으로서는 한국 혼을 노래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1960년 부터 지금까지 20여년간 60여편의 작품을 만들면서 내가 깨달은 바가 있다면 예술이란 창작이요, 창작은 고뇌의 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뇌가 없는 창작이란 있을 수 없고 창작이 아닌 것은 예술이라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 내 자신과 나의 작품을 보아 주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예술은 사랑할 때 꽃피고 팔매 시든다는 사실입니다.

예술은 사람의 눈이, 보다 많은 사람의 눈이

보아줄 때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마련입니다. 반면 예술가들이 예술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할 때 그 다른 것을 위해 예술을 팔 때 예술은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시들게 마련입니다.

태권도 보급을 위해 노력하시는 체육인 여러분이나 작품을 만드는 제 자신이 다 함께 명심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아 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불멸의 작품! 이런 작품을 만드는 것이 나의 꿈이며 바램입니다.

나는 이 길을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생을 깨닫고 연초시켜 갈 것입니다.

1960년 8월 3일

이 규임

〈社 告〉

계간 태권도지 구독안내

날로 떨어가는 태권도는 세계를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아울러 태권도지 애독자도 나날이 늘어가고 있어 회를 거듭할수록 발행부수가 늘어가는 기쁜소식을 애독자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태권도지 구독을 문의하시는 많은 애독자를 위하여 정기구독 신청을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접수하고 있으니 이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보낼곳 : 우편번호 100

서울 중구 무교동 19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지 구독담당자앞

1년간 구독료	2,000원(송료 포함) 국내
	8,000원(송료포함) 해외

.....절.....취.....선.....

No

주 소			우편번호	
성 명		구독구분	년	개월
* 1. 정자로 정확히 명기할 것. 2. 구독구분에는 년간과 개월을 정확히 구분하여 쓸 것. 3. 구독료는 소액환으로 등기우편으로 보낼 것.				

이 산골에 태권의 얼을

서 탁 원

(낙안북국민학교 교사)

신록의 푸르름이 온 누리에 펼쳐지는 계절에 켜는듯한 장마가 오려는지 짜증스러운 일상생활이지만 매일 매일 수련을 시작한다는 신념과 각오로 생활하고 있다.

“딩그렁 덩그렁” 시골길을 버스가 요란히 소릴 내면서 달린다. 낙안(樂安)의 너른 들판이 멀리 보이고 그 앞의 높은 산허리에 가느스름한 길이 보이는데 그 길을 향해서 버스는 줄달음치고 있다.

옛 성터를 기억하라는 듯 이곳 저곳엔 웅장하고 무거운 있지만 초라하게 서있는 성벽이 눈에 신기하게 보여고 산허리 부근엔 舊松林社라는 못말 위에 절터와 조그마한 돌탑이 버스 유리창너머로 보여서 어떻게 생각하면 여행하는 기분이다.

벼랑 위의 아슬아슬한 고갯길을 거북이 처럼 기어가는 버스 속엔 부부가 같이 앉아서 마음을 조이면서 첫 부임지로 가고 있다.

벽지 학교!

몇 번이고 망설이다가 이곳을 희망하고 왔다



교장 임 경순

정말 산골이다. 별교에서 한 시간을 비포장 도로로 버스를 타고 가니까 조그마한 학교가 보이는데 앞 뒤가 온통 산이다. 머릿속엔 수 많은 생각들이 스쳐가고 다시 밀물처럼 되돌아 오기도 한다.

지금 운동장에서 교사리 같은 손으로 120여명이 지르는 “얏” 기합소리가 들려싸인 산에 메아리되어 산골을 찌른다.

그러니까 교대를 띌 때 권투를 시작했을 때 부터 투기 운동에 관심을 갖았었다. 그 후 태권도를 배우기로 결심하고 수련을 했었다. 그 당시만 해도 교과서에는 태권도가 없었다 지난날 새벽 5시부터 태권도를 남 몰래 배우면서 수련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의 수련생활 그리고 중앙 본관 관장님을 찾기 위해서 대한태권도협회에 5번이나 서신을 보내서 만났던 일이며 지도자 교육(9기)때의 서울에서 과의 수련등은 지금의 지도자로서 서 있을 수 있었던 좌우명이 될 수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된다.

73년 처음으로 학교에서 태권도를 시작할 무렵 학교 주위에는 전과범이 5명이나 난무하고 걸핏하면 직원실에 쳐들어오던 때에 대화와 “태권도”라는 세 글자로 정화했던 그 학교에서의 5년의 기간이 지도자로서의 시련이라고 볼 수 있었다. 그 후 또 학교를 옮기어 태권도를 보급시키는 학교는 두번째가 되는데 2년 동안 지도 했었지만 시련이 많았었다. 그러나 국기원 유단자를 배출하고 그 제자들이 지금도 수련하고 있는 것을 보면 가슴 뿌듯하다.

이제 세번째 태권도를 보급시키고 있는 학교가 산골에 있는 벽지 학교이다. 3,4월에는 방과





린이들에게 알려 주어서 부단히 수련하기 때문에 이번 심사에서 17명이 6급을 승급했는데 다음에 배울 태극 4장의 열차기를 바르게 했을 때 조그마한 보람을 느꼈었다.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남자 어린이가 도시 학교의 2학급이 못되는 어린이들이다. 이 어린이들이 언젠가는 이 산골을 떠나 다른 곳에 갈때 느끼는 심적인 부담을 줄여 주고 국기인 태권도의 정신을 살린다면 보다 더 떳떳하게 생활할 수 있으리라 고 본다.

후에 지도 했었고 요지음은 더워서 아침일찍 가르치고 있다. 이마에 흐르는 땀을 씻으면서 무엇인가 남보다 더 뛰고 있다는 생각에 항상 마음 뿌듯하다.

이 학교 어린이들은 개교이래 처음 있는 일이고 해서 열의가 대단하다.

현재 90여명이 도복을 갖춰 입었고 3월 18일 시작할 때 태극 1장을 교과서(5년 체육)를 보고 열심히 노력해 온 교사리 손을 보았을 때 그 순간 지도자로서 얼마나 감회를 느꼈는지 모른다 그리고 태극 2장도 교과서를 보고 연습해 왔으며 이젠 3장, 빠른 어린이들을 4장을 익히고 있다.

1주일에 한 번씩 태권도지에 나오는 학교순례나 해외 태권도소식 그리고 태권도의 역사 등을 꼭 들려 주고 있으며 마의막의 주춤 몸통지르기 앞차기가 끝나면 훈화시간인데 태권도의 예의를 바르게 지도해서 국기인 태권도를 배우면서 바른 인성지도에 주력하고 있다.

비가 오는 날이나 비온 뒤에는 운동장 사정이 나빠서 몇 일간 수련을 못하고 쉬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120여명을 조그마한 교실에 넣고 1/3씩 교대로 꼭 지도해 주는 나의 성의 때문에 고된 훈련도 별 탈없이 따르고있다

그리고 태극 폼세를 배울 때마다 자장의 중요한 동작은 기본동작 시간에 지도하고 사전에 어

물소리 새소리와 공기 맑은 이곳에서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고 땀 흘리면서 수련하는 모습이 학교 앞의 냇가에서 얼굴을 시원한 물속에 넣어 씻고 나오는 귀여운 수련생을 하나씩 하나씩 보자면 어느새 나 자신은 돈키호테 처럼 먼 곳을 말타고 달리는 기분이다.

선배 제원들이 닦아 놓은 길을 걷고 있지만 성실과 진실을 가지고 사랑으로서 태권도를 지도하니 어린이들의 무한한 소질을 개발할 수 있으리라 고 본다.

이젠 전남태권도협회에 학교 도장을 등록했으며 호구와 삼배대 등을 불원관에 구입해서 발의 동작과 기본자세가 바른 어린이 부터 겨루기 기본동작을 훈련시켜 순천시 교육청(교육장 정 병욱) 주최 체육대회에 출전시킬 선수를 육성시키는 일이다. 그리고 또한 그동안 꾸준히 협조를 해주신 학교(교장 임 경순) 직원과 학부모임을 모시고 보일 시범 준비가 남아 있다.

끝으로 그동안 저를 이끌어 주신 국기원 기술지도위원이신 이 용우 관장님께 감사 드리며 사범 9기생의 건투를 빈다.

우리 모두 다함께 소망의 열매가 하나 둘씩 열기를 기원하면서 한국의 태권도가 세계의 곳곳에 펼쳐질 때 지구인의 지구技가 태권도가 되어 외계의세계에 돌보일때까지 우리 모두 합심 합시다.

협 회 동 정

1980년 7월 16일

모스크바올림픽 위원회 제83차 총회에서 태권도 올림픽 공식종목으로 승인

1980년 7월 27일

제118회 승품심사대회 개최

장 소 : 국기원

응심자수 : 891명

1980년 7월 31일

미국체육회의 태권도협회 초청으로 어린이 태권도 대표 시범단이 미국순회 시범 차 출국

어린이 태권도 시범단은 미국의 뉴욕 워싱턴, 볼티모어, 켄시네티, 시카고, 켄사스, 샌프란시스코, 산타클라라, 로스앤젤레스등지를 순회시범하게 됨.

8월 15일 81년 월드컵게임 개최지인 산타클라라시에서 열리는 미국 소년체전 개최식에서의 태권도 연무시범을 비롯 돌아오는 길에 일본에서도 시범을 갖을 예정

태권도 시범단원명수 : 30명

1980년 7월 31일

관암 태권도 연맹의 돈 모로우 화장은 제2회 판·암 태권도 선수권대회를 에파도르의 가야길에서 20여개국의 참가로 1980년 12월 9일부터 14일까지 개최하기로 한 것을 통보.

(제1회 판·암 태권도 대회는 지난 1978년 멕시코시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개최하였었다.)

1980년 8월 10일

제120회 승품심사대회 개최

장 소 : 국기원

응심자수 : 407명

8월 16일

제95회 전국 고단자 승단심사

장 소 : 국기원

응심자수 : 15명

8월 17일

제95회 승단심사 대회

장 소 : 국기원

응심자수 : 564명

8월 23일

전국태권도인 켈기대회

장 소 : 국기원

참가인원 : 500명

8월 24일

제121회 승품심사 대회

장 소 : 국기원

응심자수 : 622명

9월 7일

제122회 승품심사대회

장 소 : 국기원

응심자수 : 394명

K T A Journal

16 July 1980

Celebrate Recognition of Taekwondo and the World Taekwondo Federation by the 83th IOC General Meeting.

27 July 1980

The 118th Poom Promotion Test
Place: Kukkiwon
Applicants: 891 Persons

31 July 1980

The Midong Primary School's Taekwondo Demonstration Team go U.S.A.'s exhibition tour

31 July 1980

The 2nd Pan Am Taekwondo Tournament will be held 9, December 1980 at Kayagil, Ecuador

10 August 1980

The 120th Poom Promotion Test
Place: Kukkiwon
Applicants: 407 persons

16 August 1980

The 95th High Dan Promotion Test
Place: Kukkiwon
Applicants: 15 persons

17 August 1980

The 95th Dan Promotion Test
Place: Kukkiwon
Applicants: 564 persons

23 August 1980

National Taekwondoist Rally for Clean Society
Place: Kukkiwon
Applicants: 500 persons

24 August 1980

The 121st Poom Promotion Test
Place: Kukkiwon
Participants: 622 persons

7 September 1980

The 122 Poom Promotion Test
Place: Kukkiwon
Participants: 394 persons

跆拳道界의 師道觀의 定立策



白 雲 大

(육군 태권도부 총무)

目 次

1. 序 論

2. 本 論

가. 師範이 門下生을 對하는 資勢

나. 門下生이 師範을 對하는 資勢

3. 結 論

1. 序 論

跆拳道는 순수한 韓國古有의 武道이기에 韓國人의 歷史性과 精神이 담겨져 있으며 이 나라가 危機에 처해졌을 때 跆拳道 精神에 의해서 유구한 역사를 創造하프로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세계 무대에서 光榮을 받고 있는 이유는 첫째 韓國人의 전통적인 武道精神과 둘째는 뛰어난 기술과 위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跆拳道는 上·下 卽 스승과 문학생 간에 있어서 예의를 重要시 여기프로서 武道의 체계를 確立할 것이며, 歷史的으로 보아도 韓國의 歷史는 武術에 의한 예의가 더욱 重要시 되었음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 그래서 「禮儀」는 東洋人의 美德이라는 말이 있듯 이는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行動으로 표현되는 것으로 高貴한 人格의 基本으로서 跆拳道人의 姿勢에서 배놓을 수 없는 것이다. 本論에서 師道界에 上·下간의 禮儀에 관한 內容을 約述코져 한다.

2. 本 論

師道界에서 特性이라면 年齡의 高下를 떠나 사범과 문학생과의 사이에서 이루어진 값진 人

格의 形成이다. 곧 禮儀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허리 굽혀 절을 꾸벅 하는 것 만 이 禮儀라고 할 수 없는 것이며 跆拳道에서 人格形成은 正義具現과 精神 修養 그리고 身心 鍛鍊에 있다고 보며 精神은 禮儀에서 나온다고 본다.

禮는 儒敎에서 나오는 五常에서 나오는 仁·義 禮·智·信중의 곧 우리의 몸가짐인 것이자 禮儀는 常互間에 人格의 교환이며 제자(문학생이) 스승(사범)에게 존경심을 나타내는 表示로서 아래 사람이 위사람에게 高貴한 人品으로 받드는 姿勢인 것이다.

社會의 한 集團인 조직체가 규율 확립을 爲해서는 禮儀로서 질서를 유지해 나가듯 師道界의 生命이 「禮儀」로 부터라고 하겠다. 예의를 차릴 때는 時期와 場所에 따라 行動 범위가 結定되며 대표적인 치를 예를 들어 본다면 室內에서 道場 內에서, 도복을 착용하였을 때, 電話로 對할 때, 社會와 家庭에서, 승차시, 식사때, 방문시 또는 수행을 할 때 등 예의의 범위는 광범위 하며 이와 같이 社會속의 한 사람으로서 師道界의 예의는 사회인의 모범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며 사범(관장)으로서 문학생에게 恒時 言行 하나하나를 거울 삼기 때문에 자별히 注意를 해야 할 것이다.

가. 師範으로서 문학생을 對하는 姿勢

(1) 門下生 앞에서는 동로나 위사람의 험구나 비방을 삼가해야 하며,

(2) 추한 언행을 일체 해서는 안되며,

- (3) 항상 大望의 理想과 좌표를 定하여 주고
- (4) 態度를 明白히 하고 거짓말과 순간적인 기교를 부려서는 안되며,
- (5) 많은 말을 하지 말 것이며 엄숙해야 한다
- (6) 그리고 가정환경 또는 개인의 고충을 주의 깊게 살펴 성의껏 도와 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門下生이 師範을 對할 때 姿勢
- (1) 먼저 예의를 표해야 한다.
- (2) 거짓을 삼가해야 하고,
- (3) 의리를 배반하지 말 것이며,
- (4) 자기의 애로사항을 서슴치 말고 이야기해야 하며,
- (5) 고성을 내어서는 안될 것이다.

上記에서 禮儀는 마음 속에서 우려나와 行動으로 표현되는 高貴한 人格의 基本임을 알수 있다. 우리는 예의 규범을 통하여 이 지구위에 있는 모든 태권도 가족이 바르고 품위있는 예의로

서 높은 人品을 만들어 나가야겠다.

3. 結 論

武道人의 人格形成은 精神과 禮儀에서 시작되며 여기서 社會의 훈이 되는 忠孝精神이 나올것이고 跆拳道界가 사회질서의 선구자가 되어 언제 어디서나 존경을 받는 위치를 만들게 될 것이며 國技 跆拳道는 어느 곳에서나 영구히 작광을 받게 될것이며 지도자인 사범이나 관장은 責任感을 갖고 國家的 次元에서 禮儀 규범을 가르쳐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어야 高段者가 고령이 되어서도 존경을 받는 美德을 찾을 수 있으며 사도계 질서가 확립되어 나갈 것이다. 고상하고 정확한 言語와 우아한 몸가짐 단정하고 절도있는 태도는 건전한 生活의 지혜가 되며 共同生活의 화목과 단결의 근원을 이루는 것이다
이상에서 師道觀의 定立策을 約述하여 보았다

宗廟之禮는 所以序昭穆也 序爵은 所以辨貴賤也요

序事는 所以辨賢也요 旅酬에 下, 爲上은 所以遠賤也요

燕毛는 所以序齒也니라.

- ◎ 宗廟(종묘)의 예의는 昭穆(소목)의 次序(차서)를 세우는 所以(소이)요, 지위의 차례를 세우는 貴賤(귀천)을 분별하는 소이요, 일의차 배합은 현명함을 분별하는 소이요, 旅酬(려수)에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위하는 것은 천한 사람에게도 미치게 하는 소이요, 燕毛(연모)는 나이의 차서를 세우는 소이이다.

跆拳道 競技力이 體格 體力 技術에 미치는 決定要因 分析

熙 成
〈明知大學 大學院 體育學科〉

IV. 研究結果 및 解釋

이 章에서는 提示된 研究問題別로 檢證된 結果를 提示하고 이를 解釋하고자 한다.

〔研究問題 1〕 競技力 水準을 決定하는 體格要因 分析

이 問題는 다섯가지의 體格要因(신장, 체중, 흉위, 하지장, 팔길이)이 競技力 水準에 作用하는 決定寄與도와 豫言變量을 推定하여 分析하였다. 이러한 體格要因(表 9)의 相互相關係數에 의하면 競技力과 體格變因간에 意義있는 相關係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작고

〈表 9〉

體格變因과 競技力간의 相互關數

	체	중	신	장	작	고	하	지	장	팔	길	이	흉	위	경	기	력
운	동	경	력														
체		중															
신			장														
작				고													
하					장												
팔						길											
흉							위										

☆☆……1%수준에서 의의있는 상관계수

☆……5%수준에서 의의있는 상관계수

變因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해 주고 있다. 〈9〉의 相互相關係數에 의한 重多回歸分析 結果는 다음 〈表 10〉과 같다.

〈表 10〉의 競技力 水準을 決定하는 體格變因들의 相對的 寄與度(B係數)에 의하면 體格變因중 어느것도 統計的으로 意義있는 比重値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다. 단지 統計的으로 意義는 없으나 작고(-.27)의 比重이 他變因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27)뿐이다. 위의 相關係數는 얇은키가 다소 적을수록(상체가 짙을수록) 競技力이 높음을 의미한다. 위와 같은 結果는 跆拳道 競技가 손보다는 발로 의해 수행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이상과 같은 體格變因과 競技力간의 相關係數는 體格變因이 동등한 競技經歷을 가진 選手들의 競技力을 決定하는 외에 運動經歷을 獨立變因으로 投入함으로써 競技力에 영향을 미치는 護變因들의 相對的 決定寄與度를 分析하였다. 決定寄與度는 다음과 같은 〈表 9〉의 體格變因과 競技力간의 相互相關係數(Inter Correlation Coefficient)에 의해 分析되었다.

結果에 의하면 體格變因은 어느것도 競技力 水準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 分析된 決定係數(ΣR^2)에 의하면 投入된 전체 體格變因이 競技力 水準決定에 作用하는 變量은 약 6%에 불과하다. 이중 작고가 차지하는 變量은 약 4% 수준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結果는 體格變因이 競技力 水準에 對해 낮은 決定力으로 나타난 것은 다음 두가지 측면에서 論議될 수 있을 것으로 豫想된다.

〈表 10〉 競技力決定 體格變因의 回歸分析結果

	표준회귀계수 (B)	변인별 F值	중다상관계수 (ΣR)	결정계수 (ΣR^2)	예언 변량	전체변 인의 F值
좌 고	-.27	2.55	.21	.042	.042	2.55
하 지 장	.08	.79	.24	.055	.013	1.67
신 장	.08	.12	.24	.057	.002	1.14
팔 길 이	-.05	.09	.24	.058	.002	.86
몸 위	.04	.07	.25	.060	.001	.69
운동경력	.03	.03	.25	.061	.001	.58

첫째: 標集對象은 이미 상당기간의 運動經歷을 가지고 있고 또 이들의 競技力이 오랜 競技經驗과 技術 습득으로 분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水準에 도달되어 있다는 점, 分析結果 얻은 統計値는 變因相互相關係數 意義度, 標準回歸係數(B係數), 변인별 F值, 重多相關係數(ΣR) 決定係數(ΣR^2), 변인별 豫言變量등이다.

〔研究問題 2〕 競技力 水準을 決定하는 體力要因 分析

이 문제는 9가지의 體力要因(약력), 턱길이, 넓이뛰

기, 윗몸일으키기, 100m달리기, 왕복달리기, 균형잡기, 윗몸앞으로굽히기)이 競技力 水準에 작용하는 決定寄與度와 豫言變量을 추정하여 分析하였다. 決定寄與度는 다음과 같은 〈11〉의 體力要因과 競技力간의 相互相關係數 (Inter Correl Ation Coefficient)에 의해 分析되었다.

〈表 11〉의 相互相關係數에 의하면 競技力과 體力變因間에는 統計學的으로 意義가 없게 나타났다. 즉 競技力 水準에 體力要因은 실제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一般的으로 위의 相互相關係數에 의하면 要因內的 相互相關係數 體力 變因간의 相互相關係數 보다 높다는 점이다. 體力 要因중 특히 넓이뛰기, 종목은 윗몸일으키기, 1,000m달리기, 왕복달리기, 종목과 意義있는 相關을 보이고 있다. 이와같은 結果는 跆拳道 選手집단의 경우 손발력(넓이뛰기) 筋持久力, 敏捷性등이 相互相關係數와 관련이 있음을 시사해 준다.

위의 體力 變因이 競技力 決定에 意義있는 關係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表 11〉의 相互相關係數에 의한 重多回歸分析 結果는 다음 〈表 12〉과 같다.

〈表 11〉

體力變因과 競技力간의 相互相關係數

	턱길이	넓이뛰기	윗몸일으키기	몸 100m 달리기	100m 달리기	왕복 달리기	균형잡기	윗몸앞으로 굽히기	경기력
압력	-.26☆	.46☆☆	.19	-.10	.03	.03	.00	.23☆	-.03
턱길이	-.18		-.16	.16	-.00	-.15	-.11	.35☆☆	.04
넓이뛰기			.40☆☆	.19	.40☆☆	-.35	-.04	.01	.03
윗몸일으키기				.09	.28☆	-.296	-.21	.08	.13
100m달리기					.14	-.06	-.239	.09	-.14
1,000m달리기						-.17	-.14	.04	-.11
왕복달리기							.11	.272	-.11
균형잡기								.15	.19
윗몸앞으로굽히기									.10

☆..... 수준에서 有意있는 차

☆☆..... 수준에서 有意있는 차

〈表 12〉

競技力決定 體力要因의 回歸分析結果

	표준회귀계수 (B)	변인별 F值	중다상관계수 (ΣR)	결정계수 (ΣR^2)	예언 변량	전체변인의 F值
균 형 잡 기	.20	2.25	.19	.037	.037	2.25
윗 몸 일 으 키 기	.21	1.84	.26	.067	.030	2.06
1,000m	-.17	1.16	.29	.086	.019	1.76
왕 복 달 리 기	-.05	.59	.31	.096	.010	1.46
100m 달 리 기	-.13		.32	.104	.008	1.25
턱 길 이	-.09	.53	.34	.112	.009	1.12
약 력	-.09	.16	.34	.116	.003	.97

널 이 뛰 기	.09	.22	.35	.119	.004	.86
윗몸앞으로 굽히기	.02	.02	.35	.120	.000	.76

〈表 12〉의 競技力 水準을 決定하는 體力變因의 相對의 寄與度(B係數)에 의하면 體力要因중 어느것도 統計學的으로 意義있는 比重値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다. 統計學的으로 意義는 없으나 4형잡기(.20) 윗몸 일으키기(.21)의 比重이 他變因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을 뿐이다. 위의 結果는 體力要因에 대하여 어느 것도 競技力 水準에 意義있는 影響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研究問題 3〕 競技力 水準을 決定하는 技術要因 分析

이 問題는 24개의 下位技術에 대한 評價結果를 크게 나누어 손기술, 지르기기술, 발기술등 세가지의 技術이 競技力 水準에 作用하는 決定寄與度와 豫言變量을 추정하여 分析하였다. 決定寄與度는 다음과 같은 〈表 13〉의 技術變因과 競技力間의 相互相關係數에 의해 分析되었다.

〈 13〉 技術變因과 競技力間의 相互相關係數

	지르기기술	발기술	경기력
손 기 술	.70☆☆	.26☆☆	.14
지 르 기 기 술		.53☆☆	.21
발 기 술			.38☆☆

☆☆……1% 수준에서 有意있는 상관계수

☆……5% 수준에서 有意있는 상관계수

〈表 13〉의 相互相關係數에 의하면 競技力과 技術變因間에는 統計學的으로 意義있는 相關係數을 나타내고 있다. 즉 발기술과 競技力 간에는 1% 水準에서 統計學的으로 意義있는 상관계수(.38)를 보이고 있다. 이외에도 統計學的으로는 없으나 지르기技術과 競技力間에는 比較의 높은 相關을 보이고 있다. 이와같은 結果는 競技力 水準이 技術에 技術變因은 實際 影響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기력과 技術變因間의 意義있는 相關에도 불구하고 이 두가지 變因間의 相關 보다는 技術變因 相互間의 相關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손기술과 지르기기술간의 相關係數(.70)은 손기술이 좋은 사람은 지르기기술도 좋다는 점을 추측할 수 있으며 이러한 意義있는 關前性은 지르기기술과 발기술간에도 나타나고 있다. 위의 結果를 綜合하면 技術變因은 競技力에 影響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며 지르기기술은 손기술과 발기술에 共

通的으로 意義있는 相關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辨別力이 약한 技術로 간주할 수 있다.

〈表 14〉의 相互相關係數에 의한 重多回歸分析 結果는 다음 〈表 14〉과 같다.

〈表 14〉 競技力 決定 技術變因의 回歸分析結果

	변추회귀계수(B)	변인별 E 值	중다상관계수(ΣR²)	결정계수(ΣR²)	예언의 변량	잔차변인 E 值
다 리 기 술	.39	9.90☆☆	.38	.146	.146	9.90☆☆
손 기 술	.08	.14	.38	.148	.002	4.95☆
지르기기술	0.6	.09	.39	.149	.001	3.28☆

☆☆……5% 水準에서 의의 있는차

☆……5% 水準에서 의의 있는차

〈表 14〉의 競技力 水準을 決定하는 技術變因의 相對의 寄與度(B係數)에 의하면 다리기술(.39)이 가장 높은 比重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統計學的으로는 意義가 없으나 손技術, 지르기技術 順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結果에 의하면 競技力水準에 決定的인 역할을 하는 變因은 다리技術에 치중되어 있을 뿐이며 기타의 손技術, 지르기技術은 순수한 立場에서 競技力의 水準 決定에 作用하지 못한다. 分析된 重多相關係數에 의하면 技術變因과 競技力 變인에는(.39) 정도의 關聯性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結果는 體格 體力 變因에 비해 매우 높다. 그리고 投入된 全體 技術變因이 競技力 水準 決定에 作用하는 變量 즉 決定係數(ΣR²)는 약 149%에 해당한다. 이중 다리技術 變因이 차지하는 變量은 .146%로서 거의 전체를 차지하고 있으며 손技術 지르기技術이 차지하는 變量은 0.3%에 불과하다. 위의 分析된 結果를 綜合해 보면 跆拳道의 競技力 水準은 발技術에 의해 거의 전적으로 決定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이상에서 分析된 3개의 研究問題 結果를 綜合해 보면 體格, 體力, 技術變因중 競技力 水準에 影響을 미치는 變因은 技術要因 뿐이며 技術要因 가운데서 단지 다리技術만이 競技力 水準 決定에 統計學的으로 意義있는 變量을 차지하고 있다. 體格, 體力, 技術變因이 競技力 水準 決定에 作用하는 變量은 體格變인이 6.1%, 體力變인이 12.0%, 技術變인 14.9%로 나타났다. 3개의 變因에 投入된 하위변인의 수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相對的으로 比較하기에는 다소의 무리가 있으나

競技力水準決定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技術, 體力, 體格順이다. 競技力決定에 體格, 體力, 技術變因이 綜合的으로 영향을 미치는 變量은 약 33.0%이다. 따라서 나머지 67%는 體格, 體力, 技術 이외의 其他變因에 의해 決定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V. 結論 및 提言

앞에서 分析 檢證된 結果를 기초로 結論을 추출하고 이를 토대로 跆拳道의 競技力을 向上시키기 위한 方案을 提示하고자 한다.

1. 結 論

1) 跆拳道 選手의 體格水準은 競技力과는 統計學的으로 意義가 없다. 跆拳道 選手의 體格이 競技力決定에 作用하는 變量은 약 6%에 불과하다. 그러나 投入된 體格變因 가운데에서는 좌고나 다른 變因에 비해 競技力과 가장 큰 관련이 있다.

2) 跆拳道 選手의 體力水準 역시 競技力에 統計學的으로 意義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跆拳道 選手의 體力이 競技力決定에 作用하는 變量은 약 12% 정도이다. 그러나 統計學的인 意義는 없다 할지라도 투입된 9개 體力變因중에서 平衡性(균형잡기검사)과 筋持久力(윗몸일으키기검사) 要因은 다른 體力要因에 비해 競技力과 가장 큰 관련이 있다.

3) 跆拳道 選手의 技術水準은 競技力에 統計學的으로 意義있는 영향을 미친다. 競技力水準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技術은 다리技術이다. 競技力決定에 作用하는 전체 技術要因의 變量은 14.9%이며 이중 다리技術이 차지하는 變量은 14.6%이다. 따라서 跆拳道 競技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要因은 다리技術이며 다리技術이 높은水準에 있을때 競技力은 向上될수 있다.

2. 提 言

이상에서 추출된 結論을 토대로 競技力을 향상시키기 위한 몇가지 方案을 提示하면 다음과 같다.

1) 跆拳道의 競技力을 向上시키기 위해서는 다리技術을 開發시키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여러가지 技術중 특히 다리技術의水準이 向上될 때 競技力은 向上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技術開發을 위한 訓練에서 다리技術訓練의 비중은 크게 부각되어야 할 것이며 訓練方法 역시 科學的인 資料를 토대로 혁신되어야 할 것이다.

2) 跆拳道의 競技力決定에 體格과 體力水準이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跆拳道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體格과 體力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할 필수조건은 아니지만 상당한 運動經歷을 쌓은 경우 體格과 體力은 競技力水準을 決定하는데 充分條件은 되지 못하지만 競技經歷을 쌓은 후에는 技術自體에 의해 競技力이 決定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結果는 競技經歷이 많은 사람일수록 訓練過程에서 技術의 質을 向上시키기 위한 訓練計劃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3) 競技力決定에 體格, 體力, 技術要因이 綜合的으로 영향을 미치는 變량이 약 33% 정도이다. 비록 다리技術이 차지하는 變량이 14.6%를 차지하고는 있지만 競技力決定에 作用하는 나머지 變量 67%는 體格, 體力, 技術要因 이외의 知的 情意的特性이 決定하고 있다는 점을看過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러한 結果를 基礎로 한다면 跆拳道 指導者는 技術開發 뿐만 아니라 知的 情意的 特性的 開發과 指導者 自身の 實質向上에 치밀한 計劃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같은 方法에 의해 分析된 結果는 다음과 같다.

1) 跆拳道 選手의 體格水準은 競技力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跆拳道 選手의 體格이 競技力決定에 作用하는 變量은 약 6%에 불과하다.

2) 跆拳道 選手의 體力水準 역시 競技力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跆拳道 選手의 體力이 競技力決定에 作用하는 變因은 약 12% 정도이다.

3) 跆拳道 選手의 技術水準은 競技力에 영향을 미친다. 競技力決定에 作用하는 技術變因의 變量은 약 14.9%이다. 技術變因중 競技力決定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技術은 다리技術이다.

參 考 文 獻

1. 姜相兆, 體力構成要素, 서울: 행동과학연구소 1964.
2. 姜相兆, 基礎體力 運動遂行能力檢査제작연구, 서울 행동과학연구소 1974.
3. 姜容鎬, 씨름競技에 미치는 運動適性, 한국체육학회지, 제 2호 1976.
4. 金大植(의 2명), 體育心理學, 普信文化社 1973.
5. 金健洙, 體育醫學, 普信文化社 1974.
6. 金一相, 태권도 위력 측정, 태권도지 20호 1977.
7. 金泰基, 跆拳道 示範의 意義와 규범론, 태권도지

15호 1975.

8. 金明基, 柔道の 技術이 競技力에 미치는 影響, 明知大學 大學院 1978.
9. 金雲龍, 跆拳道誌, 서울대한공문사 12호 1974.
10. 文教部 體育評價(체육자료총서 10), 서울신문사 출판국 1974.
11. 文教部 體育研究法(체육자료총서 29), 서울신문사 출판국 1975.
12. 朴喆斌, 청소년축구선수의 體格 및 競技內容에 관한 研究, 스포츠과학연구소 1968.
13. 申甲浩, 體操(理論과 實際), 進明文化社 1978.
14. 이종우, 태권도교본, 대한태권도협회 출판부 1975.
15. 吳章煥, 體格, 體力의 相關研究, 경희대학교 대학원 1972.
16. 鄭行道, 重量負荷運動이 筋收縮速度에 미치는 影響, 韓國體育學會紙 7호 1972.
17. 崔仁範, 體育概論, 受賞界社 1973.
18. 洪長杓, 柔道選手의 知能, 性格이 競技力에 미치는 影響, 明知大學 大學院 1978.
19. 松井三雄, 體育測定法, 東京, 體育會 科學社 1959.
20. Hebbelinok, M. and Ross. W.D. Bod trpe and Peryormaree In L.A. Larson (ed) Now York: Macillan 1974.
21. Hunsicker, B. Human Perfrnrance factors In L. A. Larson (ed) Fitness, Health, and Working Capacity New York Macmillan 1974.
22. Cureten, T.K. and Hunsicker P. Body build as a Framework of reference for interpreting Physical fitness and Athletic Performance The Research Quarterly, 12. 1941.

圖 文 抄 錄

이 研究는 跆拳道 選手의 體格, 體力, 技術이 競技力에 影響을 미치는 지의 여부를 分析 검정함으로써 跆拳道 競技를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必要한 要因을 추출하는데 目的이 있다. 이와같은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研究에서는 다음과 같은 問題를 分析하였다.

[문제 1] 競技力 水準을 決定하는 體格要因 分析

[문제 2] 競技力 水準을 決定하는 體力要因 分析

[문제 3] 競技力 水準을 決定하는 技術要因 分析

이 研究의 對象은 大韓柔道學校 學生中 跆拳道專攻 60名을 有層無邊標集(Stratified Random Sampling)하였다. 이 研究에서는 年齡水準과 跆拳道經歷을 4년이 상 8년이하로 制限하였다. 競技力 決定要因을 分析하기 위해 使用된 道具는 5개의 體格檢査 9個의 體力檢査, 24個의 技術檢査(평정척도) 競技力 評定尺度 등이다.

이와 같은 方法을 통하여 分析된 結果는 다음과 같다.

첫째, 跆拳道 選手의 體格 水準은 競技力에 影響을 미치지 못한다. 體格이 競技力 決定에 作用하는 變량은 약 6%에 불과하다. 그중 후입된 變因 가운데 좌고 가 다른 變因에 비해 競技力과 가장 큰 관련이 있다.

둘째, 跆拳道 選手의 體力水準 역시 競技力에 影響을 미치지 못한다. 體力이 競技力 決定에 作用하는 變량은 약 12%정도이다. 그 중 9개 體力變因中에서 平衡性과 筋持久力이 다른 變因에 비해 競技力에 비중이 크다.

세째, 跆拳道 選手의 技術 水準은 競技力에 影響을 미친다. 技術이 競技力 決定에 作用하는 變량은 약 14.9%이며 그 중 다리技術이 차지하는 變량은 14.6%이다. 따라서 競技力 水準은 다리技術에 의해 주로 決定된다.

-ABSTRACT-

ANALYSIS OF PRIMARY FACTOR IN DETERMINATION OF GAME ABILITY OF PHYSICAL CONDITION, PHYSICAL STRENGTH AND TECHNIQUE

by: Park, He Sung

Dept. of Physical Education
Graduate School
Myungji Colleg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tract the primary factors required for effective performance of the Taekwondo game by analysing and testing whether the physical condition, physical strength and technique of the Taekwondo player influence any effect to the game ability or not.

The following problems were analyzed in this study in order to accomplish such purope.

(Problem 1) Analysis of the primary factors of the physical condition which determines the level of the game ability

(Problem 2) Analysis of the primary factors of the physical strength which determines the level of the game ability

(Problem 3) Analysis of the technical element which determines the level of the game ability

The stratified random sampling was conducted on the 60 students who major in Taekwondo among the students in Korea Yudo School as the object persons of this study. The systematic method was applied in process of the sampling. The age level and the experience in Taekwondo were restricted to more than 4 years and less than 8 years in this study. The tools used for analysis of the primary factors which determine the game ability are 5 tests of the physical condition, 9 tests of physical strength, 24 technical tests (evaluation scale) and the evaluation scale of the game ability, etc.

The results of the analysis made by the means mentioned above are as follows:

First, the level of the Taekwondo player's physical condition does not influence on the game

ability. Amount of the transition, that physical condition influences on determination of the game ability, is only about 6%. It has the most closest relation to the game ability in comparison with the cause of the change of which sitting height is different among the other causes of the change given.

Second, the level of the Taekwondo player's physical strength also does not influence on the game ability. Amount of the transition, that physical strength influences on determination of the game ability, is about 12%. The equilibrium and the muscle endurance have relative importance in the game ability in comparison with the other cause of the change among the 9 causes of the change in physical strength.

Third, the technical level of the Taekwondo player influences on the game ability.

Amount of transition, that technique influences on determination of the game ability, is about 14.9% and 14.6% of it is influenced by the technique of legs. Therefore, level of the game ability is determined mainly by technique of the legs.

<社 告>

● 독자 원고 모집 ●

跆拳道誌를 꾸미는데 독자의 原稿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종 류: 論文(태권도 발전을 위한 內容), 수필, 시, 수련기, 콩트, 단편소설
2. 방 법: 200자 원고지 20매 내외, (단 論文과 단편소설은 매수 제한 없음.)
3. 보내실곳: 우편번호 100

서울 중구 무교동 19번지 대한태권도협회 편집실

※벽지나 도색지방의 학교소식도 기 바랍니다.

跆拳道 競技에서 받아차기가 勝負에 미치는 影響

劉 永 權
(國民大 體育강사)

I. 序 論

跆拳道를 포함한 모든 格闘技는 人間 自體의 本能인 自己 防禦手段으로 發生하였으며 文化社會의 環境에 따라 그 나름대로의 特異한 形式과 內容을 갖추면서 점차 오늘날의 스포츠種目으로 發達하였다.

跆拳道는 우리나라가 宗主國이며 아울러 國技로서 자랑하고 있는 武道이다. 跆拳道는 世界的으로 널리 普及되어 왔으며 오늘날 世界的 公認을 받는 世界的인 스포츠가 되어가고 있다.¹⁾

跆拳道는 이제 武術이 아니라 스포츠種目으로 採擇되어 다른 어떠한 競氣種目 보다 많은 人口가 國內는 勿論 國外에서까지 修練하고 있기 때문에 現代 스포츠로서 昇化시키기 위하여서는 보다 體系化된 理論과 姿勢 確立에 많은 努力이 必要이다.

이제 跆拳道의 現代化를 위해서는 힘과 技를 修養하는 次元을 넘어서 頭腦運動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²⁾

跆拳道는 基本動作, 品勢, 겨루기, 擊破, 護身術로 區分할 수 있다. 基本動作은 力學的인 要素를 지니고 있어 攻擊과 防禦의 主武器가 되며 品勢는 幾何學의 原理와 定義에 입각하여 짜여

진 것으로서 實戰에서 自由自在로 變化하는 動作에 對應하여 攻擊과 방어 技術을 익히게 하는 것이다. 또 겨루기는 實戰에 對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擊破術은 손과 발을 단련시키므로써 破壞力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고 護身術은 接近戰에서 이용되는 것이다.³⁾ 이러한 다섯가지를 修練하고 高度의 技術을 익히므로써 攻擊과 防禦의 術은 완벽하게 되는 것이다. 즉, 人體의 關節을 武器로 使用할 수 있도록 基本動作을 단련하고 이 武器를 자유로이 쓸 수 있게 前後左右 攻擊에 빠르게 피하고 막고 다시 지르고 차는 品勢가 있고 이러한 技術을 손쉽게 使用하는 겨루기가 있다.⁴⁾

이렇게 現代化된 跆拳道는 3個의 기구가 創設되었으며⁵⁾ 文教部令에 의해 國·中·高·大學에서 正式으로 跆拳道가 體育教育 課程으로 採擇되기에 이르렀다. 또 60萬 全 國軍이 跆拳道를 義務의 修練하고 있으며 世界 跆拳道聯盟의 創設과 더불어 地域跆拳道聯盟도 結成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4회에 걸친 世界選手權大會⁶⁾를 치렀다. 또한 GAISF(國際競技聯盟)·CISM(國際

3) 태권도 수첩(서울: 大韓跆拳道協會 事務局, 1977) pp. 11~13.

4) 體育教育資料 總書. 40. 跆拳道(서울: 서울신문사 출판국 1976) p. 6.

5) 1961. 6. 16. 大韓跆拳道協會 創設
1972. 11. 30. 國技院 創設
1973. 5. 30. 世界聯盟 創設

1) 대한체육회 체육 제16호(서울: 대한체육회, 1975) p. 11

2) 태권도 교본(서울:跆拳道協會 出版部, 1972) p. 6

軍人選手權大會)의 두 團體에 正式種目으로 採擇되므로써 世界化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점차로 世界化하는 추세에 따라 宗主國으로서의 位置를 確固히 하기 위해서는 單一化된 理論의 定立과 함께 實力으로서 世界의 頂上을 차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重要하다. 그러나 世界選手權大會가 回를 거듭할 수록 우리의 메달 獲得 數는 줄어들고 있다. 韓國이 연속해서 綜合優勝을 차지하여 왔지만 차츰 重量級 일수록 優勝을 바라 보기가 힘들어지고 있는 實情이므로 이렇게 나아간다면 綜合優勝을 他國에 빼앗기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時點에 있어서 새로운 技術의 開發은 우리가 當面한 時急한 課題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새로운 眼目으로 모든 跆拳道人과 跆拳道 關係人들의 競技에 對한 研究가 眞摯히 要請된다. 이에 本 研究者도 수년간의 競技 指導를 통하여 얻은 것을 跆拳道原理에 입각하여 技術을 改善해 보고자 한다.

A. 研究의 必要性

跆拳道의 本質은 주로 발차기와 주먹치기를 攻擊手段으로 使用하는 運動競技이다. 지금까지의 研究에 依하면 運動競技에 있어서 앞차기를 主導로하는 攻擊形態가 勝率이 높은 것으로 認識되어 왔다. 그러나 이 앞차기 主導型 攻擊은 이제 限界에 이르지 않았나 하고 생각된다. 이제 跆拳道는 이미 國際무대로 擴散하여 점점 國際大會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런 상태에서 특히 重量級 選手들은 西洋選手들에 견주어 볼때 體格이 劣勢하므로 長足の 選手를 對敵하는데 무리가 있었으며, 실제로 第4回 世界選手權大會에서도 重量級에서는不振한 成績을 보였다.⁶⁾ 이러한 實情을 감안할 때 우리 選手들의

體格的인 短點을 保完하고 그 特性을 살린 技術을 開發해야 함은 時急한 問題이다.

兩方의 選手가 實力이 비슷할 경우, 短驅인 選手가 相對方과 對敵하여 勝利하기는 무척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體格的 短點을 克服하고 어떻게 하면 勝利할 수 있을까 하는 窮理 끝에 着案한 것이 발차하기 技術이다. 選手가 自己보다 長足인 選手를 相對하여 싸우는데는 相對方이 攻擊하여 올 때, 그 때에 생기는 虛點을 捕捉하여 攻擊하는 발차하기가 有利하다고 생각하였다.

本人이 選手生活를 해 오면서 또 수년간 訓練團의 監督이 되어 갖게 된 이 생각을 실제로 集中的인 訓練을 시켜 본 結果, 所期の 成果를 얻었던 바 있다. 이에 理論的인 定立을 하므로써 이 발차기 主導型 攻擊의 重要性을 널리 認識시키고자 한다.

本稿는 일선 선수들에게 設問紙를 돌리고 그것에 答하게 하여 그것을 根據로 그들의 見解를 調査하였다. 또 實際競技를 直接 點檢하고, 技術의 흐름을 把握 分析하므로써 발차기 技術의 練習方法과 指導方向을 提示해 보고자 한다.

B. 研究의 目的

跆拳道 競技에 있어서 그 主된 動作을 크게 발차기와 주먹치기의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것이 使用되는 比率로는 발차기가 3/2 주먹 지르기가 3/1 정도가 된다. 또 발 자세로서는 편히서기, 앞서기, 범서기, 11자형 겨루기 자세로 區分되며, 주먹 지르기는 앞주먹과 뒷주먹이 있다.

跆拳道는 攻擊하여 오는 相對方의 팔과 다리를 보고 防禦하면서 同時に 行動해야 하므로 反應速度가 빨라야 하고 敏捷해야 한다. 이러한 特性이 발차기를 主導의으로 使用해야 한다는 主張의 始點이다. 공격하여 오는 상대선수는 공격하는 量만큼 危險負擔率을 갖고 있는데, 이는 몸의 자세와 거리상에서 虛點이 있기 때문이다. 이 虛點을 利用한 것이 곧 발차기이다.

따라서 같은 實力水準인 選手끼리 對敵했을때 不利하게 되는 短驅의 選手이거나, 또 相對方을 먼저 攻擊하여 이기기 어렵다고 判斷될 때 이

6) 1973. 5.25~27. 第1回 世界選手權大會 개최지 서울, 국기원.
1975. 8.28~30. 第2回 世界選手權大會 개최지 서울, 국기원.
1977. 9.15~17. 第3回 世界選手權大會 개최지 미국, 시카고.
1979. 1.25~27. 第4回 世界選手權大會 개최지 서독, 슈트가르트.
7) 第4回 世界選手權大會에서 웰터급, L-미들급, 헤비급 敗함.

받아차기가 競技의 主流로서 使用될 수 있다.

그러므로 一線 選手들의 實力을 向上시키고 跆拳道 技術 開發에 조그마한 보탬이 되고자 하는 데 이의 目的이 있다.

II. 研究의 方法

A. 研究의 對象

本 研究의 一般集團은 全國 大統領旗 爭奪戰 第四回 世界 選手權大會 國內 最終選拔戰·全國 大學職盟戰·全國 最優秀 選手權大會에서 2位 以上 入賞한 者로서, 全體 80名을 對象으로 하였다.

또 上記 大會에 參觀한 跆拳道 關係人들(審判 競技委員·各 팀의 代表者)의 競技 內容에 대한 意見을 包含하였다.

B. 研究의 內容과 方法

1. 內 容

本 研究者는 一線에서 받아차기의 技術을 研究하고 받아차기가 勝負에 미치는 影響을 一線의 指導者와 選手들에게 設問으로 調査하여 매 競技 때마다 그 結果를 實際로 競技에서 確認해 보고 競技의 內容을 分析하여 그 優秀性を 研究하였다.

2. 方 法

上記 四個 大會의 選手中 2位 以上 入賞한 選手 80名을 對象으로 競技 때마다 ① 技術의 結果, ② 받아차기를 使用하는 수준, ③ 練習의 比重度, ④ 勝負에 미치는 影響, ⑤ 攻擊과 守備의 方法, ⑥ 得點度, ⑦ 必要性 및 優秀性, ⑧ 받아차기의 認識度, ⑨ 競技에 利用되는 理由, ⑩ 받아차기와 치기의 得點 順位 등을 內容으로 하는 設問紙를 重點으로 하였고, 또 本人이 매 競技에서 체크한 것과 直接 面談한 것을 包含시켜 調査하였다.

III. 結果 및 考察

A. 받아차기의 理論的 定義 및 定立

前述한 바와 같이 받아차기는 다른 말로 되받

아차기, 되차기 등으로 使用되고 있다.

1. 앞차기와 이단 앞차기의 받아들차기

a. 제자리에 : 돌이 같이 마주 보고 약 50cm~100cm 정면에서 반대방향으로 선다.

b. 몸통자세 : 몸의 中心點을 낮춘 安定된 姿勢와 不安定한 姿勢에서 실시한다.

c. 발자세 : 11자形 겨루기 姿勢·편히서기·범서기·앞주춤·앞서기 등이 있다.

d. 실시요령 : 서로 護具 着用後 攻擊하는 사람이 20cm~50cm 정도 앞으로 前進하면서 앞차기를 하면 받아들차는 사람은 20cm~50cm 정도 뒤로 물러나면서 제자리에서 차거나 혹은 one step과 two step으로 뒤로 후퇴하여 찬다. 이 때 앞차기·앞돌려차기·뒤차기·뒤돌려차기·빗차기·앞주먹·뒤주먹을 使用하여 차는데 발 끝은 펴서 차는 것이 가장 效果의이다. 차는 方向은 직선거리나 지그재그로 移動하면서 찬다.

e. 훈련 목적 : 攻擊과 防禦의 訓練效果 및 接近戰 技術을 發揮할 수 있으며 차는 目表는 얼굴·가슴·배·左右 옆구리가 된다. 받아차기의 強度는⁸⁾ 得點에 連結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最大 힘(maximum power)을 바탕으로 20~25초가 限界點이⁹⁾ 되도록 하고 反覆해서 實施한다.

2. 앞돌려차기와 이단 앞돌려차기의 받아들차기

a. 제자리에 : 돌이 같이 마주 보고 약 50cm~100cm 정면에서 반대방향으로 선다.

b. 몸통자세 : 몸의 中心點을 낮춘 安定된 姿勢와 不安定한 姿勢에서 실시한다.

c. 발자세 : 11자形 겨루기 姿勢·편히서기·범서기·앞주춤·앞서기 등이 있다.

d. 실시요령 : 서로 護具 着用後 攻擊하는 사람이 20cm~50cm 정도 앞으로 前進하면서 앞돌려차기를 하면 받아들차는 사람은 20cm~50cm 정도 뒤로 물러나면서 제자리에서 차거나 혹은 one step과 two step으로 뒤로 후퇴하며 찬다. 이

8) 跆拳道協會의 競技規則에 있어서 60파운드 이상 의 소리와 힘을 가진 펀치.

9) 朴喆斌·申吉洙, 體力育成의 科學的 基礎(全北 : 圓光大學校 出版局, 1975) p. 118.

때 앞차기·앞돌려차기·뒤차기·뒤돌려차기·빗차기·앞주먹·뒤주먹을 使用하여 차는데 발 끝은 펴서 차는 것이 가장 效果의이다. 차는 方向은 직선거리나 지그재그로 移動하면서 찬다.

e. 훈련목적: 攻擊과 防禦의 訓練 效果 및 接近戰 技術을 發揮할 수 있으며 차는 目表는 얼굴·가슴·배·左右 옆구리가 된다. 받아차기의 強度는 得點에 連結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이 때는 最大힘을 바탕으로 하고 體力의 7대 要素¹⁰⁾가 要求된다.

3. 들어밀기와 이단 들어밀기의 받아차기

a. 제자리에: 돌이 같이 마주 보고 약 50cm~100cm 정면에서 반대방향으로 신다.

b. 몸통자세: 安定된 姿勢와 不安定한 姿勢에서 실시한다.

c. 발자세: 11자形 겨루기姿勢·편히서기·범서기·앞주춤·앞서기 등이 있다.

d. 실시요령: 서로 護具 着用後 攻擊하는 사람이 20cm~50cm 정도 앞으로 전진하면서 들어밀기를 하면 받아차는 사람은 20cm~50cm 정도 뒤로 물러나면서 제자리에서 차거나 혹은 one step, two step으로 뒤로 後退하여 찬다. 이때 앞차기·앞돌려차기·뒤차기·빗차기·앞주먹·뒤주먹을 使用하여 차는데 발끝은 펴서 차는 것이 가장 效果의이다. 이때 발은 몸의 中心線 안쪽으로 차며 무릎은 펴서 차는 것과 당겨서 차는 方法이 있다. 차는 方向은 直線거리나 지그재그로 移動하면서 찬다.

e. 訓練 目的: 攻擊과 防禦의 訓練效果 및 찬스把握·反應感覺이 가장 要求되는 技術이며 몸의 中心 移動이 가장 重要하다. 차는 目表는 얼굴·가슴·배·左右 옆구리가 되며 차는 強度는 得點에 連結해야 한다. 이 때는 最大힘을 바탕으로 하고 體力의 7대 要素가 要求된다.

4. 들어찍기와 이단 들어찍기의 받아차기

a. 제자리에: 돌이 같이 마주 보고 약 50cm~100cm 정면에서 반대방향으로 신다.

b. 몸통자세: 安定된 姿勢와 不安定한 姿勢에서 실시한다.

서 실시한다.

c. 발자세: 11자形 겨루기姿勢 편히 서기·범서기·앞주춤·앞서기 등이 있다.

d. 실시요령: 서로 護具 着用後 攻擊하는 사람이 20cm~50cm 정도 앞으로 前進하면서 들어찍기를 하면 받아차는 사람은 20cm~50cm 정도 뒤로 물러나면서 제자리에서 차거나 혹은 on step과 two step으로 뒤로 후퇴하여 찬다. 이때 앞차기·앞돌려차기·뒤차기·뒤돌려차기·빗차기·앞주먹·뒤주먹을 使用하여 차는데 발 끝은 펴서 차는 것이 效果의이다. 차는 方向은 직선거리나 지그재그로 移動하면서 찬다.

e. 훈련 목적: 얼굴을 攻擊하는 技術이며 防禦의 範圍를 얼굴로 해야하며 받아차는 目表는 가슴·배·左右 옆구리가 된다. 받아차기의 強度는 得點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때는 最大힘을 바탕으로 하고 體力의 7대 要素가 要請된다.

5. 뒤차기와 이단 뒤차기의 받아차기

a. 제자리에: 돌이 마주 보고 약 50cm~100cm 정면에서 반대방향으로 신다.

b. 몸통자세: 安定된 姿勢와 不安定한 姿勢에서 실시한다.

c. 발자세: 11자形 겨루기姿勢·편히서기·범서기·앞주춤·앞서기 등이 있다.

d. 실시요령: 서로 護具 着用後 攻擊하는 사람이 20cm~50cm 정도 앞으로 前進하면서 뒤차기를 하면 받아차는 사람은 20cm~50cm 정도 뒤로 물러나면서 제자리에서 차거나 혹은 one step과 two step으로 뒤로 후퇴하면서 찬다. 이때 앞차기·앞돌려차기·빗차기·앞주먹·뒤주먹을 使用하여 차는데 발끝은 펴서 차는 것이 가장 效果의이다. 차는 方向은 직선거리나 지그재그로 移動하면서 찬다.

e. 실시목적: 뒤차기는 강한 힘이 있는 破壞力의 발차기이다. 防禦의 幅을 넓히고 받아차는 目表는 가슴·배·얼굴·左右 옆구리가 된다. 차는 強度는 得點에 連結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때는 最大힘을 바탕으로 하고 反應速度가 要求된다.

10) 朴基斌·申吉洙, 體力育成的 科學的 基礎(서울: 敎學社, 1977) pp. 14~15.

6. 뒤돌려차기와 이단 뒤돌려차기의 발차기
a. 제자리에 : 돌이 같이 마주 보고 약 50cm~100cm 정면에서 반대방향으로 선다.

b. 몸통자세 : 中心點을 낮은 安定된 姿勢와 不安定한 姿勢에서 실시한다.

c. 발자세 : 11字形 겨루기 姿勢·편히서기·범서기·앞주춤·앞서기 등이 있다.

d. 실시요령 : 서로 護具 着用後 攻擊하는 사람이 20cm~50cm 정도 앞으로 前進하면서 뒤돌려차기를 하면 받아차는 사람은 20cm~50cm 정도 뒤로 물러나면서 제자리에서 차거나 혹은 one step과 two step으로 뒤로 후퇴하면서 찬다. 이때 앞차기·앞돌려차기·빗차기·옆차기·뒤차기·앞주먹·뒤주먹을 사용하여 차는데 발 끝은 펴서 차는 것이 가장 效果의이다. 무릎은 펴서 차는 것과 당겨서 차는 方法이 있다. 차는 方向은 직선거리나 지그재그로 移動하면서 찬다.

e. 훈련목적 : 몸의 中心을 잡기 힘든 技術이다. 高度의 技術이 必要하며 KO율이 가장 높은 技術이다. 中心을 잡기 이전에 받아차는 사람은 果敢하고 迅速하게 차야 하며 目標는 가슴·배·얼굴·左右 옆구리가 된다. 차는 強度는 得點에 連結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 때는 最大힘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7. 앞차기와 앞돌려차기의 주먹으로 받아치기
a. 제자리에 : 돌이 마주보고 약 50cm~100cm 정면에서 반대방향으로 선다.

b. 몸통자세 : 安定된 자세와 불안정한 姿勢에서 실시한다.

c. 발자세 : 11字形 겨루기 姿勢·편히서기·범서기·앞서기·앞주춤 등이 있다.

d. 실시요령 : 서로 護具 着用後 攻擊하는 사람이 앞차기와 앞돌려차기로 前進하면서 차면 왼손으로 막고 주먹으로 치는 뒷주먹과 그 反對로 치는 앞주먹이 있다. 이것은 接近戰에서 가장 有利하며 攻擊의 리듬役割인 만큼 가장 빠르고 強하게 쳐야 한다. 치는 目標는 가슴이 주가 되어야 한다.

e. 실시목적 : 주먹 攻擊은 발攻擊 보다 接近戰에서 특히 重要하다. 正確한 주먹은 得點과 容易

게 連結되므로 가장 容易할 수 있는 技術이다. 치는 目標는 가슴·배·左右 옆구리가 된다. 이 때는 最大힘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8. 混合技術의 양손과 몸통으로 防禦 後 발차기와 치기

a. 제자리에 : 돌이 마주 보고 약 50cm~100cm 정면에서 반대방향과 다른 方向으로 선다.

b. 몸통자세 : 安定된 姿勢와 不安定한 姿勢에서 실시한다.

c. 발자세 : 11字形 겨루기 姿勢·편히서기·범서기·앞서기·앞주춤 등이 있다.

d. 실시요령 : 서로 護具 着用後 시작 구령에 攻擊하는 사람은 混合된 技術로서 攻擊을 하면 그에 適切하게 받아차기와 치기를 하면서 빠른 速度로서 進行을 한다. 돌이서 시계 가는 方向으로 圓을 그리면서 하는 것과 또는 그 반대 方向의 攻擊이 있다. 또 직선거리와 지그재그의 方向도 있다. 攻擊과 받아차는 것은 同時에 해야 하며 차는 方向으로 양손을 내려 주되 이 때는 몸을 攻擊者 몸에 재빨리 攻擊하는 方向으로 붙여야 한다.

e. 실시목적 : 混合된 技術을 使用하면서 攻擊하여 오는 사람에게 받아차기와 치기를 適切하게 구사한다. 그리고 攻擊者의 虛點을 보고 차며 接近戰과 밀어져 있는 狀態의 技術을 使用한다. 目標는 가슴·배·左右 옆구리·얼굴이 되며 最大힘을 바탕으로 하되 이 때는 體力의 7大要素가 必要하다.

C. 競技 記錄 및 內容 分析

a. 1979年 大統領旗爭奪戰 競技內容 記錄製

〈表-11〉 Pin Weight 받아차기의 得點率

選手 區分	청(이선수) 원호단			홍(정선수)동부도장		
	總 數	得點數	得點率(%)	總 數	得點數	得點率(%)
技術	발技術	25	1	4	20	1
	손技術	10	1	10	18	1
技術	計	35	2	5.7	38	2
	받아차기	6	2	33.3	9	1
總	計	41	4	9.8	47	3

〈表-11〉에서 청選手는 總 得點率이 9.7%인데 비하여 받아차기는 33.3%이며 홍選手는 總得點率이 6.4%인데 비해 받아차기는 11.1%의 높은

得點率을 나타내고 있다.

〈表-12〉 Fly Weight 받아차기의 得點率

選手 區分 技術	청(김선수) 명지대	홍(최선수) 삼척대			
	總 數	得點數	得點率 (%)	總 數	得點數
他 技 術	발技術	20	1	5	25
	손技術	10	1	10	15
	計	30	2	6.7	40
받아차기	7	2	28.6	3	1
總 計	37	4	10.8	43	3

〈表-12〉에서 청選手는 總 得點率이 10.8%인데 비해 받아차기는 28.6%이며 홍選手는 總 得點率이 7%인데 비해 받아차기는 33.3%의 比率을 나타내고 있다.

〈表-13〉 Ban tam Weight 받아차기의 得點率

選手 區分 技術	청(손선수) 명지대	홍(김선수) 도산도장			
	總 數	得點數	得點率 (%)	總 數	得點數
他 技 術	발技術	26	1	3.8	19
	손技術	19	1	5.3	12
	計	45	2	4.4	31
받아차기	9	2	22.2	5	1
總 計	54	4	7.4	36	3

〈表-13〉에서 청選手는 總 得點率이 7.4%인데 비해 받아차기는 22.2%이며 홍選手는 總 得點率이 8.3%이며 받아차기는 20%의 比率로 나타나고 있다.

〈表-14〉 Feather Weight 받아차기의 得點率

選手 區分 技術	청(배선수) 한국사회사업대학	홍(김선수) 유도대학			
	總 數	得點數	得點率 (%)	總 數	得點數
타 기 술	발기술	10	1	10	15
	손기술	9	1	11.1	7
	計	19	2	10.5	22
받아차기	7	1	14.3	4	1
總 計	26	3	11.5	26	2

〈表-14〉에서 청選手는 總 得點率이 11.5%인데 비해 받아차기는 14.3%이며 홍選手는 總 得點率이 7.7%인데 받아차기는 25%의 比率로 나타나고 있다.

〈表-15〉 Light Weight 받아차기의 得點率

選手 區分 技術	청(김선수) 동아대학	홍(김선수) 원호단			
	總 數	得點數	得點率 (%)	總 數	得點數
他 技 術	발技術	26	1	3.8	25
	손技術	13	1	7.7	10
	計	39	2	5.1	35
받아차기	5	1	20	9	1
總 計	44	3	6.8	44	2

〈表-15〉에서 청選手는 總 得點率이 6.8%인데 비해 받아차기는 20%이며 홍選手는 總 得點率이 4.5%인데 받아차기는 11.1%의 比率을 나타내고 있다.

〈表-16〉 Welter Weight 받아차기 得點率 청(박선수) 유도대학 · 기권승, 홍(김선수) 동아대학

〈表-17〉 Light Middle Weight 받아차기 得點率

選手 區分 技術	청(권선수) 원호단	홍(차선수) 한체대			
	總 數	得點數	得點率 (%)	總 數	得點數
他 技 術	발技術	13	2	15.3	18
	손技術	8	1	12.5	5
	計	21	3	14.2	23
받아차기	3	1	33.3	4	1
總 計	24	4	16.6	27	2

〈表-17〉에서 청選手는 總 得點率이 16.6%인데 비해 받아차기는 33.3%이며 홍選手는 總 得點率이 7.4%인데 비해 받아차기는 25%의 比率을 나타낸다.

〈表-18〉 Middle Weight 받아차기 得點率

選手 區分 技術	청(정선수) 동아대학	홍(장선수) 원호단			
	總 數	得點數	得點率 (%)	總 數	得點數
他 技 術	발技術	16	1	6.3	21
	손技術	3	0	0	4
	計	19	1	5.3	25
받아차기	9	2	22.2	5	1
總 計	28	3	10.7	30	2

〈表-18〉에서 청選手는 總 得點率이 10.7%인데 비해 받아차기는 22.2%이며 홍選手는 總 得點率이 6.7%인데 비해 받아차기는 20%의 比率을 나타

타내고 있다.

〈表-19〉 Light Heavy Weight 받아차기 得點率

選手 區分 技術		청(이선수) 동아대학			홍(이선수) 한국사 회사업대학		
		總 數	得點數	得點率 (%)	總 數	得點數	得點率 (%)
他 技 術	발技術	20	1	5	13	1	7.7
	손技術	11	1	9.1	7	0	0
	計	31	2	6.4	20	1	5
받아차기		9	2	22.2	5	1	20
總 計		40	4	10	25	2	8

〈表-19〉에서 청選手는 總得點率이 10%인데 비해 받아차기는 22.2%이며 홍選手는 總得點率이 8%인데 받아차기는 20%의 比率을 나타낸다

〈表-20〉 Heavy Weight 받아차기 得點率

選手 區分 技術		청(강선수) 원호단			홍(박선수) 동아대		
		總 數	得點數	得點率 (%)	總 數	得點數	得點率 (%)
他 技 術	발技術	13	2	15.4	11	1	9.1
	손技術	2	0	0	0	4	0
	計	15	2	13.3	15	1	6.7
받아차기		7	1	14.3	5	1	20
總 計		22	3	13.6	20	2	10

〈表-20〉에서 청選手는 總得點率이 13.6%인데 비해 받아차기는 14.3%이며 홍選手는 總得點率이 10%인데 받아차기는 20%로 나타나고 있다
이大會에서全體選手의平均得點率은總18.13%인데 비해 받아차기는 43.98%로서 높은比率을 나타내고 있다.

1979年 第4回 世界選手權大會 派遣 最終選拔戰 競技 內容 記錄表

1979年 第4回 世界選手權大會 派遣 最終選拔戰 받아차기 得點率

이 대회에서全體選手의平均總得點率은15.58%이며 받아차기는 35.39%로 나타났다.

1979年 第6回 全國 大學 選手權大會 받아차기 得點率

이大會에서全體選手의平均總得點率은13.13%, 받아차기의 得點率은 23.52%이었다.

1979년 최우수 선수권대회 받아차기 득점율

이大會에서全體選手의平均總得點率은14.6%이며 받아차기의 得點率은 28.6%이었다

以上에서 上記한 4個大會의 競技內容을 分析하여 볼 때全體級選手들의大部分이 받아차기를 使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理由는 받아차기가 打擊의 強度가 크고 攻擊者는 攻擊을 할 때 力學的인 虛點이 나타나므로 상대선수가 이것을 捕捉하여 得點과 연결시킬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 4個大會에서는 諸技術의 總得點率이 15.36%인데 비하여 받아차기의 得點率은 32.87%로 나타났다. 따라서 他技術에 비하여 得點率이 높은 받아차기를 競技에 가능한 많이 誘導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다.

IV. 結論 및 提言

A. 結 論

1. 받아차기의 概念을 定義하여 보면 相對選手가 攻擊하여 오는 狀態에서 나타나는 力學的인 虛點을 捕捉하여 차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때는 몸의 中心點을 낮게 할수록 得點率이 높다

2. 받아차기는 모든 競技에서 使用되는 技術로서 大概의 選手들이 得點하기 쉽다는 理由로 받아차기를 꼭 必要한 技術로 認識하고 있으며 이를 使用하는 選手들은 總訓練 練習量中 半 以上 받아차기를 練習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받아차기는 一定水準 以上の 技術을 習得한 者 들에게만 可能하므로 高段을 所持한 選手들이 가장 많이 使用하고 있으며 또 重量級(미들, L-헤비, 헤비)에서 使用得點率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받아차기를 使用할 때는 反應速度와 體力의 7要素가 반드시 基本的인 姿勢로서 되어있어야 한다.

5. 받아차기는 相對가 攻擊하여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차는 方法 뿐만 아니라 相對로 하여금 攻擊하도록 誘導하면서 차는 方法과 또 攻擊을 하면서 차는 方法의 세가지가 있다.

6. 上記한 全 體級 選手의 손기술·발기술에 견주어 받아차기의 頻度數가 낮다고 해도 打擊의 強度가 크므로 得點率이 높게 나타났다.

B. 提 言

1. 받아차기는 正確性과 速度 및 柔軟性이 必要하며 몸의 平衡을 유지하면서 차야한다. 大韓 跆拳道協會 경기 規定 제28조에 得點 部位中 발技術로서는 얼굴·복부·左右 옆구리, 손技術로서는 복부·左右 옆구리로 規定하고 있으므로他 技術과의 連結動作이 重要하다.

2. 받아차기는 防禦技術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 現 規定에서는 優勢勝을 認定

하므로 相對를 誘導하면서 攻擊하는 받아차기가 되어야 한다.

3. 特別히 重量級에 있어서는 外國選手에 比한 短軀이므로 이러한 身體的 保完을 위하여 받아차기가 꼭 必要하며 이 技術의 定立이 많은 跆拳道選手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4. 우리 固有의 國技인 跆拳道는 運動 種目に 있어서 가장 많은 人口를 保有하고 있지만 科學的인 根據과 技能學的인 研究가 되어 있지 않은 實情이다. 이에 보다 體系化되고 理論的인 研究가 要求되며 科學的이고 合理的인 研究로서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이다.



足掌이 瞬發力에 미치는 影響

李 煌 求

(空港 中學校 體育教師)

目 次

I. 序 論

- A. 研究의 目的
- B. 理論의 背景

II. 研究의 方法

- A. 研究 對象
- B. 檢査 期間
- C. 檢査 種目
- D. 檢査 方法

III. 結果 및 考察

- A. 瞬發力의 概念
- B. 體重 및 足掌의 區分
- C. 種目別 檢査
- D. 種目別 瞬發力 比較

IV. 要約 및 結論

- A. 要 約
- B. 結 論

參考文獻

I. 序 論

A. 研究의 目的

人間의 生活은 本能的인 動作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自然環境間의 相互作用으로 人類社會와 더불어 오랜 세월속에 變遷, 發展되어 왔다. 이러한 個體의 健康과 幸福을 추구하는 人間의 本能속에서 건강을 다지는 신체 活動인 Sports는 人間生活과 永久的인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存在한다고 느껴진다.¹⁾

오늘날 現代社會는 文明의 發達로 인하여 身體活動

이 감소되고 있으며 아울러 精神의 疾患, 自然公害, 人爲의 公害로 人間身의 健康은 차츰 퇴보하고 있음은 世界各國이 當面하고 있는 課題이다. 이점을 勘案할 때 우리의 體力를 保持하고 증강하여야 할 時急한 危機에 處해 있다는 점을 생각할때, 筆者는 基礎 體力훈련의 重要性을 절감하고 기초체력 육성 방법중 瞬發力에 대하여 本主題를 택하게 되었다.

모든 운동은 달리고 뛰면서 시작하여 種目에 따라 高度의 技術을 要하게 된다. 우리의 人體중 足掌은 몸을 이동하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이며 필수적 부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必須의 부분에 대하여 測定하여 보는 것조차 생소했다고 생각된다.

즉, 足掌과 관련이 깊은 운동은 육상경기 종목이며, 그중에도 도약(Jumping), 투척(throw), 달리기(running)에서는 순발력이 결정적인 因子라 하겠다²⁾ 또한 競技운동중 跆拳道는 몸체의 이동뿐만 아니라 공격의 70~80%를 차지하는 발차기가 바로 足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즉 足掌이 크면 공격할때 Power가 클 것이며, Jump 할때 많이 뛴 것이라는 막연한 상식밖에 없는 것이다. 球技운동중에도 농구가 瞬發力에 큰 비중을 차지하며, 우리가 日常生活을 영위하는 데도 순발력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사료된다.

足掌의 크기가 제자리 넓어지기 Sargent Jump에 어느정도 영향이 있는지 실지 測定하여 瞬發力과의 관계를 定立함에 目的을 두고 本研究에 임하였다.

B. 理論의 背景

足掌에 대해선 文獻에도 별다른 연구가없이, 足에

1)李建永,跆拳道 普及實態에 관한 調查研究慶熙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學位 論文 1979) p.11

2)朴結洙,體力育成의 科學的 基礎(서울:敎學社), 1977), p.237

3)金英斌 外 2명, 體育大辭典(서울:경향신문사 1961), p.774

관하여 分類하면 足關節, 足筋, 足根骨, 足根中足關節 등 근육과 관절에 대해서만 論하고 있다.⁴⁾

跆拳道에서는 足타라고 하여 足의 技術이 바른 손 3개의 위력을 나타내고 있으며 技法에 있어 손보다 신묘한 것으로 여러가지의 발차기를 구사하여 오늘날의 다양한 跆拳道 기술을 만들어 놓았다.

이러한 足掌을 軸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爆發力은 英語의 筋力(strength)과 순발력(power)은 다같이 우리말로 힘(力)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두가지 用語는 筋力과 爆發力으로 엄연히 다른 것이면서 동일한 뜻으로 사용하거나 混同하여 쓰여지는 경우가 많다.

Power란 $force(F=m \times a)$ 와 속도를 포함하는 개념이고 strength는 force 만을 뜻하고 있다.⁴⁾

爆發力은 元來 物理적인 개념으로 단위 시간에 행해지는 일의 量을 意味한다. 따라서 힘(力)과 속도의 요소로 동시에 포함하는 운동은 'power'를 나타내는 것으로 모두가 순간적이고 폭발적으로 행해진다.

순발력의 검사 종목으로는 Sargent Jump, 제자리 넓이 뛰기(Standing Broad Jump), 던지기의 종목이 있으나 本研究에서는 Sargent Jump, standing Broad Jump로 局限하여 研究하였다.

II. 研究方法

A. 研究對象

本研究의 추진과 결과 검증을 위해 體育授業에 관심도가 높은 서울시 江西區 中學校 2학년 14個學級중 남학생 5개學級을 임의 선정하였다. 검사인원은 69명×5=345명을 대상으로 測定했으나 種目別 결석학생과 지체부자유자 등 15명을 제외한 330명을 한정하여 검사 실시하였다.

B. 檢查 期間

1. 檢查期間: 1980. 5. 6~6. 14
2. 資料分類: 1980. 6. 15~6. 30
3. 資料處理: 1980. 7. 1~7. 12
4. 論文作成: 1980. 7. 13~8. 14

C. 檢查種目

檢查 集團을 分類하기 위하여 檢查學生의 체중과 左右 足掌을 測定하였다.

4) 尹南植, 體育測定檢查의 實際(서울: 大光印刷公社, 1976)

爆發力 檢查種目으로 제자리 넓이뛰기, Sargent Jump 던지기 등이 많이 쓰이나 檢查에서는 두가지 種目으로 限定하였다.

1. 體格 檢查

a) 體重 檢查

b) 足掌左, 右 각 길이 및 넓이測定

2. 爆發力 檢查

a) 제자리 넓이 뛰기

b) Sargent Jump

D. 檢查方法

1. 體重檢查

교실에서 팬티만 입고 公認, 體重機로 0.1kg단위로 기록하였으며 計測은 오전 10시~11시 사이에 실시하였다.

2. 足掌 測定

足掌의 크기는 本研究에서 基礎이 되므로 필자나 足掌의 크기를 잴수 있는 도구(그림)를 제작하여 足의 길이와 넓이를 左, 右, 각각 mm單位로 기록하여 本研究에는 右足만을 標準대상으로 하였다.

3. 爆發力 檢查

a) 제자리 넓이뛰기(standing broad Jump)

① 砂場에서 檢查한 결과 誤差가 많아 平地에서 구름판을 사용치 않고 구름선을 긋고 測定한 것이 本檢查의 特色이다. 모래터보다 10cm정도 記錄이 低調하였다.

② 姿勢는 다리를 약간 벌려 고추선 자세에서 팔의 진동과 무릎의 굴절을 충분히 이용하여 되도록 멀리 뛰게한다.

③ 距距離는 구름선에서 가장 가까운 착지점까지의 직선 距離를 잰다.

④ 着地할 때 القدم이나 손을 뒤로 짚었을 경우에는 한번 다시 試技를 시켰다.

⑤ 두번 뛰어서 그치고 기록을 cm단위로 記錄했다.

b) Sargent Jump

① 후판에 cm단위로 선을 긋고 中央에 줄자를 부착시켰다.

② 손바닥에 흰가루를 바르고 후판에 선자세로 손을 추켜 올려 표시를 한다.

③ 발을 자연스런 姿勢로 벌리고 振動을 주어 최대한 뛰어 후판에 손끝을 찍는다.

④ 記錄은 처음에 선자세에서 직은점과 Jump하여 적은 손끝까지의 거리를 記錄點으로 認定한다.

⑤ 2회를 實施하여 좋은 기록을 cm단위로 인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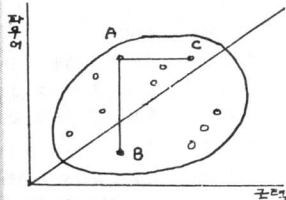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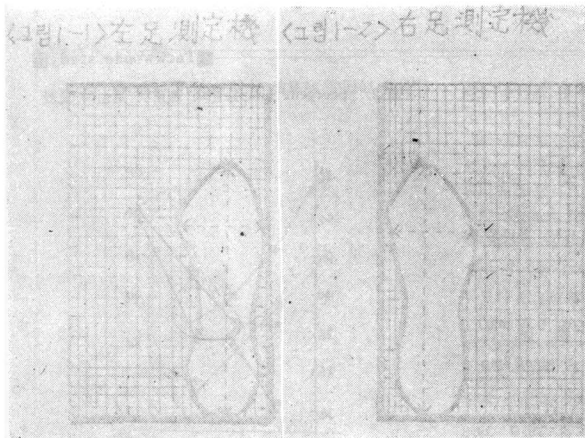


그림 2 크기과 POWER

體重別로 A, B, C, D 4個 Group를 각 足掌의 길이 넓이 別로 小, 中, 大로 다시 分類하였다.

II. 結果 및 考察

A. 瞬發力의 概念

瞬發力은 힘과 속도를 포함하는 概念이며 근육의 길이를 단축하면서 수축하는 等長性 收縮(Isotonic Contraction)시에 내는 힘이 瞬發力이다.

그러므로 도약, 투척, 달리기에서는 순발력이 결정적인 조건이다. 瞬發力은 筋力과 收縮速度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그림에서 A와 B는 筋力은 같으나 瞬發力이 다르며 A와 C는 筋력은 다르나 순발력이 같아 이 것은 속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筋력과 함께 민첩성이 증가하는 것이다.⁴⁾

B. 體重 및 足掌의 區分

1. 體重 區分

검사인원 330명을 體重別로 4個 Group로 分類하였다.

A Group: 36kg이하 81명

B Group: 37~41kg*88명

C Group: 42~46kg 80명

D Group: 47kg이상 81명

2. 足掌區分

〈表 1-1〉 A Group

크기및인원 구분	足길이및인원	足넓이및인원
小	220mm이하 24명	85mm이하 23명
中	221~227mm 25명	86~89mm 27명
大	228mm이상 32명	90mm이상 31명

〈表 1-2〉 B Group

크기및인원 구분	足길이및인원	足넓이및인원
小	231mm이하 28명	89mm이하 28명
中	232~238mm 34명	90~92mm 27명
大	239mm이상 26명	93mm이상 33명

〈表 1-3〉 C Group

크기및인원 구분	足길이및인원	足넓이및인원
小	235mm이하 23명	92mm이하 32명
中	236~244mm 32명	93~95mm 21명
大	245mm이상 25명	96mm이상 27명

〈表 1-4〉 D Group

크기및인원 구분	足길이및인원	足넓이및인원
小	243mm이하 30명	95mm이하 25명
中	244~249mm 24명	96~97mm 24명
大	250mm이상 27명	98mm이상 32명

위와 같이 分類하여 본결과 體重에 따라 足掌의 길이와 넓이가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體重이 무거

〈表 2-1〉 足掌의 길이로 分類한 檢査記錄

(單位: 넓이뛰기 cm, 점프 mm)

순발력 足크기 체중구분	넓이뛰기			Sargent Jump		
	小	中	大	小	中	大
A	177.0	178.9	187.3	34.9	35.0	39.0
B	187.5	195.0	200.5	38.6	38.3	39.2
C	197.3	205.3	194.7	38.6	42.4	41.5
D	207.2	208.4	205.5	44.0	45.1	44.2

울수록 足掌의 길이나 넓이가 비례한다는 結果를 보여 주고 있다.

C. 種目別 檢査

위와 같이 分類한 결과 體重이 가벼운 A, B 그룹에서는 순발력이 많은 차이를 이루고 있으나 C, D 그룹과 같이 체중이 무겁고 足길이가 큰 중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

〈表 2-2〉 足掌의 넓이로 分類한 檢査記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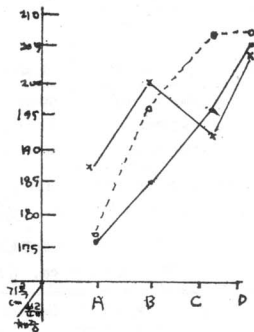
(단위 : 넓이뛰기 cm, 점프 mm)

순발력 足크기 체중구분	넓이뛰기			Sargent Jmp		
	小	中	大	小	中	大
A	177.1	180.4	186.1	35.3	35.6	38.3
B	190.2	191.1	194.3	37.6	38.7	39.5
C	199.0	199.2	200.9	40.1	40.3	42.4
D	206.8	206.9	207.2	42.5	44.9	45.5

體重이 무겁고 足넓이가 넓을수록 兩群 모두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瞬發力에는 足의 길이보다 넓이가 넓을수록 순발력이 좋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D. 種目別 瞬發力 比較

〈圖 1〉 넓이뛰기 記錄의 體重別 足길이 比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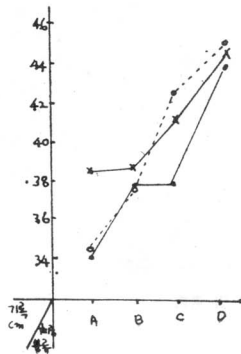


〈足길이 別分類〉

小 —●—
中 —○—
大 —×—

도표 1에서 체중 B군이 정상적인 향상을 나타냈고 體重 C, D군은 足길이가 큰사람이 오히려 기록이 저조함을 나타냈다.

〈圖 2〉 Scorgent Jump 記錄의 體重別 足길이 比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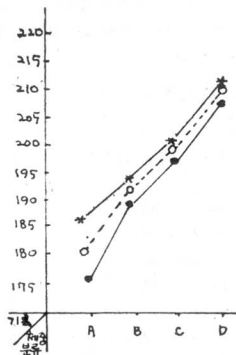


〈足길이 別分類〉

小 —●—
中 —○—
大 —×—

도표 2에서 체중이 가벼울 때는 足길이가 클수록 차이가 있으며 體重이 무거울 때는 足길이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圖 3〉 넓이뛰기 記錄의 體重別 足넓이 比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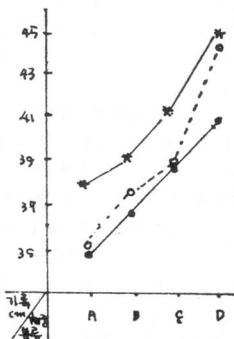


〈足길이 別分類〉

小 —●—
中 —○—
大 —×—

도표 3에서 체중이나 足넓이가 크면 클수록 비례적으로 기록이 향상되고 A群처럼 체중이 가벼울 때 足넓이의 크기에 당라 많은 차이를 나타냈다.

〈圖 4〉 Sargent Jump記錄의 體重別 足蹠이 比較



〈足蹠이 別分類〉

- 小 —●—
- 中 —○—
- 大 —x—

도표 4에서는 체중이 가벼운 A群과 체중이 무거운 D群이足の 넓이에 따라 현저한 차이를 이루었으며 B, C群도 정상적인 차이를 나타냈다.

IV. 要約 및 結論

A. 要約

지금까지 足蹠이 瞬發力에 미치는 影響은 다음과 같다.

1. 體重과 足蹠의 크기는 비례적으로 나타내고 있어 체중이 무거울수록 足蹠의 길이와 넓이가 큰 것이다.
2. 넓이뛰기 記錄에서 足蹠의 길이로 比較할때 體重이 가벼운 층에서 記錄의 향상이 많으며, 體重이 무거운 층에서는 足の 길이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Sargent Jump 記錄에서 체중이 가벼운 A群에서

는 足蹠이가 클수록 記錄이 좋으나 B, C, D群에서는 足蹠이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足蹠이는 체중과 足蹠기에 따라 기록이 향상되었으며 체중이 가벼운 층에서는 足蹠이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였다.

5. Sargent Jump에서도 足蹠이와 體重에 따라 記錄의 차이를 나타냈으며, 특히 체중이 가벼운 A群과 체중이 무거운 D群에서는 足蹠이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냈다.

B. 結論

上記要約을 통하여 足蹠과 瞬發力의 관계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체중과 足蹠과의 관계는 체중이 무거울수록 足蹠역시 큰 것으로 나타났다.
2. 足蹠의 길이와 순발력은 체중이 가볍고 足の 길이가 작을때 차이를 나타내고 체중이 무겁고 足蹠이가 클수록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足蹠의 넓이와 순발력은 체중증가와 足蹠이의 크기에 따라 比例的으로 기록의 향상을 나타내고 있어 足蹠의 크기는 瞬發力에 지대한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參考文獻

1. 金度容, 陸上競技, 서울:大林出版社, 1973.
2. 金英一, 外 2名, 體育大辭典, 서울:경향신문사, 1961.
3. 朴喆斌, 外 1人, 體體育成의 科學的基礎, 서울:敎學社, 1977.
4. 文教部, 해부·기능학, 서울:서울신문사출판국, 1973.
5. 尹南植, 體育測定의 實際, 서울:大光印刷公社, 1976.
6. 李煥求, “跆拳道 普及實態에 관한 調査研究” 慶熙大學校敎育大學院碩士學位論文, 1979.
7. 崔仁範, 體育管理, 서울:受賞界社, 1976.
8. 韓國大學體育敎材研究會, 體育原理, 서울:學校敎育社, 1966.

친구는 서로를 점유해서도, 상대방을 자기의 소유로 간주해서도 안됩니다.

어떤 종류의 사랑이건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유의 공간을 갖지만 친구는 서로를 소홀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우정은 조심스럽게 키워야하며 육체적인 정신적인 아픔을 벗어나기 위해 이용되어서는 안됩니다. 물론 무엇보다 순수하고 계산되어 지지 않은 동정이 담긴 무목적성이 우정의 본질이지요. —루이제 린저—

태권도의 거둬차기 발기술

안

해

목

(미도태권도장 사변)

태권도에 있어서 발차기 기법은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이 방대한 것이지만, 공격기법을 크게 나누면 관절을 이용한 차기와, 몸체를 이용하여 관절을 거의 쓰지 않는 상태로 공격하는 기법으로 생각할 수 있고, 두가지 형태의 절충적인 방법이 있겠다.

여기에서 관절을 이용하여 한번 공격이나 방어를 한 발을 이용하여 여러번의 동작을 전개하는 형태를 거듭차기라 이름 붙혀 본다.

몸체를 이용한 공격기법은 그 동작이 대체로 크며, 따라서 그 공격한 발을 다시 사용하는 데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러나, 방어에서 공격으로 연결하는 때는 약간의 무리가 있으나 깊은 수련을 하면 사용할 수 있다.

태권도를 어느 정도 수련한 태권도인이라면 한쪽의 발만으로 지면을 딛지 않은 채, 혹은 약간 딛고 여러번의 공격이나 방어를 누구나 할 수 있으나, 시범용이 아닌 실전용 기법에서는 두번 이상은 실효성이 없으므로 쓰여지지 않고 있다.

거듭차기를 크게 나누면,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경기에서 흔히 보는 계속 연거퍼차기는 공격에서 공격으로 이어지는 거듭차기이고 둘째, 공격에서 방어하는 기법. 셋째, 방어에서 공격하는 기법. 넷째, 방어에서 방어로 이어지는 거듭차기가 있다. 앞의 네가지 기법중에 방어에서 방어로 이어지는 기법은 보통 사용하지 않는다.

《기법의 특성》

요즈음의 모든 「스포츠」는 기교보다 힘을 위주로 변형되어 가고 있다. 무도 「스포츠」인 태권도도 예외는 아닌 것이다. 그래서 아기자기한 기교보다, 대형기술, 강한 힘 등을 추구하고 있다.

태권도는 일정한 기법만을 열심히 수련하는 무도가 아니고 온몸과 손과 발을 전부 사용해야 하는 무도이다. 태권도의 생명은 일격필살의 파괴력에 있지만, 거기에 수반되는 잔기술을 터득해야만 큰 기술이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고, 고도의 수련을 통하면 잔기술도 어떤 강한 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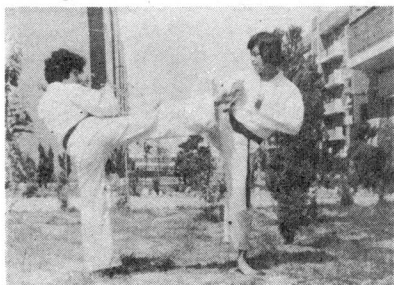
술과 같은 파괴력을 지닐 수 있게 된다.

거듭차기는 단일동작만으로 경화되어버린 근육을 부드럽게 해주고, 전혀 쓰이지 않는 근육을 단련시켜주며, 먼저 배우고 익힌 대형기술에 큰 도움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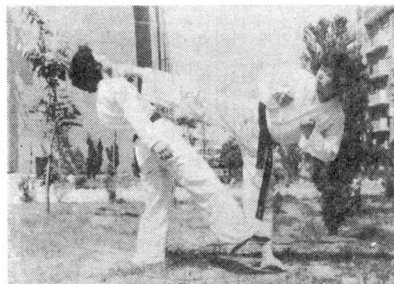
그것은 공격기법의 다양화와 함께 습성화 되어버린 일정한 공격목표를 여러방면으로 확산시켜주는 큰 역할을 한다. 계속 연거퍼차기에 있어서는 기의 흐름의 정지상태를 거부하기 때문에 동일 목표에 같은 공격을 할 수 없다.

공격 목표물이 이동해야 하며 따라서 아래에서 얼굴까지 이동폭이 크고 파괴력은 일정하다.

A-①



A-②



◇A의 형태

1) 동작 설명 : 사진 A-①은 상대의 오른발 돌려차기를 오른 무릎들어서 정강이로 막은 상태이고 사진 A-②는 막은 그발로 계속하여 열차기로 상대를 공격한 모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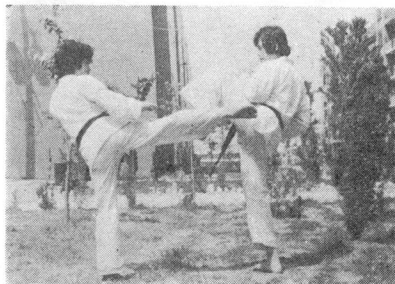
2) 발의 사용 : 무릎막기는 돌려차기나 몸통몸

돌려차기로 공격하여 올 때 막기로 사용하고 계속하여 거듭차기로 반격할 때는 열차기를 주로 하나 밀기 돌려차기 깃찌기도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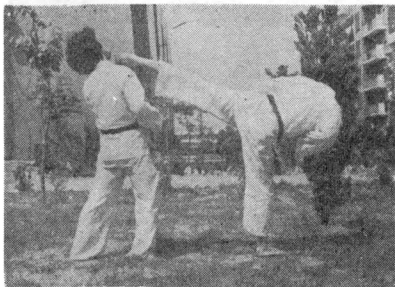
3) 공격 목표 : 열차기→(얼굴, 목, 명치, 배해혈, 무릎, 발목), 밀기→(명치 허벅다리), 깃찌기→(발등), 돌려차기→(얼굴, 몸통)

4) 보충 설명 : 상대의 발이 지면에 닿아 발이 움직이기 전에 재빨리 공격한다. 반대로 몸통이 하를 공격하다. 상대의 돌려차기가 빠르게 들어올 때 공격하던 발을 회수하여 무릎막기를 할 수도 있다.

B-①



B-②



◇B의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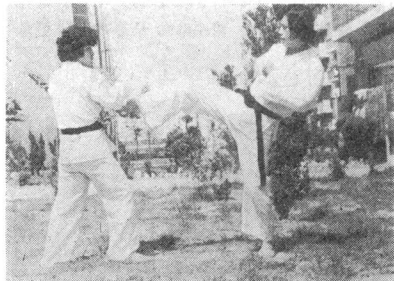
1) 동작 설명 : 사진 B-①은 상대의 오른발 돌려차기 공격을 왼발 들어서 바깥무릎으로 막은 상태이고 사진 B-②는 막은 발로 상대의 얼굴을 공격한 모양이다.

2) 발의 사용 : 상대가 돌려차기, 몸돌려차기, 반대돌려차기, 후리기, 비틀어차기를 할때 바깥

발목으로 막는다. 거둬차기는 얹차기, 얹차기, 짓찌기, 밀기가 있다.

3) 보충 설명 : 안발목막기와 다른 점은 막기를 할 때 몸통이 거의 상대에게 노출되므로 자도상 아래 공격은 할 수 없다. 그리고 상대의 공격이 얼굴일 때도 얼굴이 상대의 발과 사자를 이루므로 방어에 효과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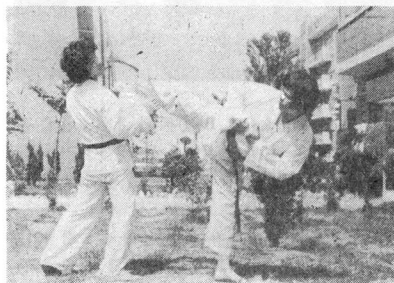
C-①



C-②



C-③



◇C의 형태

1) 동작 설명 : 사진 C-①은 오른앞 차기를 하는 것이고 사진 C-②는 오른발로 상대의 가슴을 미치는 상태이며, 사진 C-③은 얹차기한 발을 거둬차기로 얼굴둘러차기 한 모양이다.

2) 발의 사용 : 얹차기 한 발을 거둬얹차기 할 수도 있고 짓찌기와 돌려차기, 얹차기, 밀기, 내려찍기 등 모두 유효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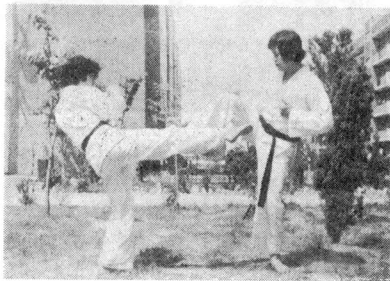
3) 공격 목표 : 얹차기→(정강이, 무릎, 남심, 명치, 얼굴), 짓 찌기→(상대의 앞에 발, 허벅지, 발 등), 돌려차기→(명치, 얼굴), 얹차기→(명치, 얼굴, 대퇴부, 무릎, 정강이), 밀기→(아랫배, 명치, 가슴, 얼굴), 내려찍기→(얼굴, 어깨, 가슴)

4) 보충 설명 : 시초의 얹차기가 야래일 경우는 공격폭이 넓으나, 몸통 이상일 경우는 아래 공격을 할 수 없다. 그것은 속도가 떨어지며 힘이 약해지고, 이중의 동작을 취해야 하기 때문이다.

내려찍기나 짓찌기, 밀기에 있어서는 지면에 닿은 발을 미끄럼발로 앞으로 나아가면서 앞차기를 했던 발은 자연히 더욱 구부러져 상대와의 거리를 줄이고 타격의 힘을 증대 시켜야 한다.

밀기와 짓찌기의 차이는 발바닥으로 공격함은 같으나,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 짓찌기나 찍기를 할 수 없으므로 자연히 상대를 밀어야 한다.

D-①



D-②



D-③



◇D의 형태

1) 동작 설명 : 사진 D-①은 상대의 오른 앞차기나 반달차기, 돌려차기를 오른 발바닥으로 막은 상태이고, 사진 D-②는 그 발을 그대로 비틀어차기 한 것이며, 사진 D-③은 돌려차기 또는 발등돌려차기의 모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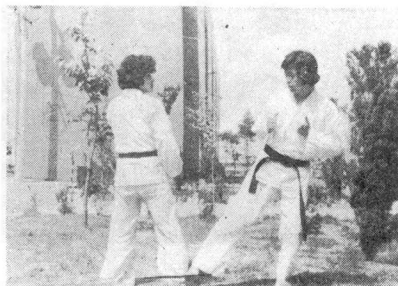
2) 발의 사용 : 막은 발로 밀어서 상대의 몸통이 정면으로 노출될 때, 비틀어차기 막은 상태 그대로 몸돌려서 돌려차기, 발등돌려차기 몸차세 그대로는 앞차기, 옆차기, 밀기 또는 짓찌기 내려찍기도 가능하다.

3) 공격 목표 : 비틀어차기→(옆구리, 명치) 돌려차기(명치, 옆구리, 얼굴), 발등돌려차기→(명치, 옆구리, 얼굴), 옆차기→(옆구리, 얼굴, 명치), 앞차기→(얼굴, 명치), 짓찌기(발등), 내려찍기(얼굴, 어깨, 가슴), 밀기(몸통전체)

4) 보충 설명→내려찍기와 짓찌기는 특히 왼 발을 미끄럼발로 상대쪽으로 다가서야 한

다. 돌려차기와 발등돌려차기의 차이점은 상대가 앞으로 다가와서 거리가 좁혀질 때는 발등돌려차기를 하고 아주 가까운 상태에서의 거둬차기를 쓸 때는 오른무릎 차기를 해야 한다.

E-①



E-②



◇E의 형태

1) 동작 설명 : 사진 E-①은 상대의 앞에 발의 발등을 아래차기로 찬 상태이고 사진 E-②는 상대앞에 발의 오금을 치거나 걸어서 상대의 중심을 잃게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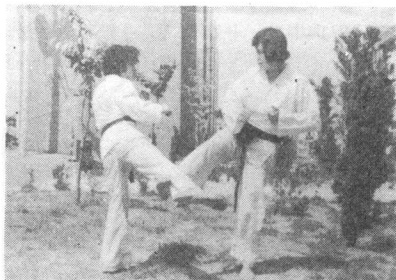
2) 발의 사용 : 첫번째의 차기는 발등, 무릎, 대퇴부를 아래돌려차기로 차고 계속하여 거둬차기로 오금치기와 걸기로 상대를 넘기거나 중심을 잃게하여 상대 공격력을 상실시키고 다음의 결정적인 공격에 도움주기 위한 동작이다.

3) 공격 목표 : 뒷축→(무릎, 발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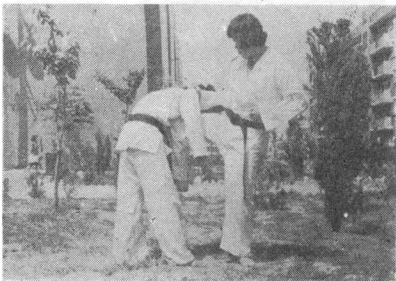
4) 보충 설명 : 발등이상의 차기는 무릎치기를 할 수 없으므로 무릎걸기를 해야 한다. 걸기란 치기와 달타서 상대에게 좁혀 가까이 접근하고

공격발의 관절을 구부려 앞으로 당김을 말한다.

F-①



F-②



◇F의 형태

1) 동작 설명 : 사진 F-1은 상대의 앞에 있는 오른발의 발목 뒷부분을 나의 오른발목을 안으로 제쳐 갈퀴리와 같이 하여 끌어올려 중심을 무너트린 상태이고, 사진 F-①는 중심이 무너져 앞으로 닦아온 상대의 어깨를 오른손으로 잡아 당겨 무릎올려치기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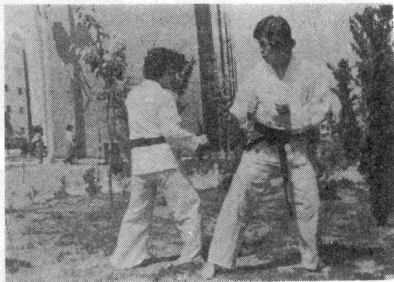
2) 발의 사용 : 무릎치기를 할 수 있고 걸어올린 발로 상대의 뒷발 무릎관절 차기, 찌끼기, 밀기에 쓰면 극히 유효하다.

발등돌려차기도 하고, 상대의 몸이 뒤로 쳐지면 뒷차기도 효과를 본다.

3) 공격 목표 : 무릎치기→(명치, 얼굴, 남십) 찌끼기→(무릎관절, 발등), 발등돌려차기→(명치), 뒷차기→(남십, 아랫배)

4) 보충 설명 : 상대가 다가오면 선제 공격함에 유의해야 한다. 잡지 발을 쓰지 못하는 상태에 처하게 된 상대의 손 공격을 조심해야 한다. 앞의 발이나 뒤의 발 똑같이 거듭차기로 사용할 수 있다.

G



◇G의 형태

1) 동작 설명 : 사진 G는 오른발 돌려차기를 완전히 했을 때 상대가 물러나므로 공격했던 발이 겨우 앞축만 땅에 닿은 상태이다.

2) 발의 사용 : 상대가 공격 실패를 알고 곧바로 들어올 때 돌려차기의 반탄력을 이용하여 반대돌려차기를 한다. 또는 무릎 구부려서 뒷차기 옆차기를 한다.

상대가 반격 의사없이 물러났을 땐 왼 발을 이 끌어가며 반대돌려차기를 한다.

3) 공격 목표 : 반대돌려차기→(얼굴, 허리, 무릎, 발목), 구부려서차기→(허리, 대퇴부, 무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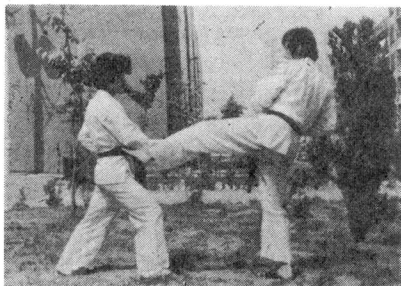
4) 보충 설명 : 반탄력을 최대로 이용해야하며 가장 유망한 공격은 반대돌려차기이다. 상대와는 완전한 사각이므로 아래와 얼굴을 제외한 몸통은 등쪽 공격밖에 할 수 없다. 발은 지면을 눌렀다 힘차게 박차야 한다.

◇H의 형태

1) 동작 설명 : 사진 H는 상대가 오른발 앞에 나와 있을 때 왼발로 앞차기 공격을 해서, 상대의 오른 아래막기에 공격이 끊어진 상태이다.

2) 발의 사용 : 상대가 막은 발을 헤치고 전진

H



할 때, 공격했던 발을 그대로 상대에게 밟는다.

3) 공격 목표: 밀기→(태퇴부, 낭심, 아랫배)

4) 보충 설명: 공격이 실패해서 상대가 반격하는 것을 공격 「리듬」을 죽이고 시간을 얻기 위해서다.

공격이 실패해서 상대가 급히 들어오므로 시간적 여유가 없다. 사진 H와 같은 상황에서는 태퇴부를 밟는 방법 뿐이다. 다리를 급히 구부리며 그 탄력으로 약간 뒤로 미끌어져, 아랫배나 낭심을 가격 할 수도 있다.

◇I의 형태

총설: 상대의 돌려차기 공격을 발날들어 바깥막은 상태이다. 상대의 가슴이 전부 노출되는 가장 좋은 상태에서 공격을 가할 수 있으며, 발바닥으로 상대의 가슴, 얼굴을 밀 수 있고, 앞차기도 명치, 낭심 공격도 유효하다.

막는 방법이 힘이 드나 일단 공격할 땐 매우 좋은 조건에 놓이게 된다. 사진 B-①을 참고 바람.

◇J의 형태

총설: 몸통이나 아래를 돌려차기 하다 최초 공격의 부분보다 높은 몸통이나 얼굴을 공격한다. 오직 돌려차기 공격 뿐이다.

◇K의 형태

총설: 아래 옆차기 한 발을 몸통이나 얼굴을 다시 공격하는 동작이다.

태권도의 폼세 고려에서 ②번 ③번 동작이 이

형태이다. 최초의 발차기는 가법계, 두번째의 차기는 강하게 한다. 아래에서 몸통공격이 고려 폼세에 나와 있거나, 몸통에서 얼굴, 아래에서 얼굴 공격도 할 수 있다.

◇L의 형태

총설: 자세를 아주 낮추어서 뒤돌아 아래 후리기로, 상대의 무릎이하 부분을 강하게 공격하여 상대가 넘어지게 하며 공격했던 발을 다시 360° 회전하여 상대의 몸통이하 부분을 뒤후리기로 공격한다.

이 동작에선 가속도가 생명이 된다. 빠르지 않으면 상대로부터 치명적인 반격을 받게 된다.

◇끝 말>

태권도는 「스포츠」이지만 그에 앞서 무술이며 무도다. 따라서 발기술도 특점위주의 차기도 중요하지만, 밀기, 걸기, 밟기, 막기, 치기, 잡기의 기술도 연마를 게을리 하다면 「복싱」처럼 몇가지의 기술로 「챔피언」을 가리는 단순 「스포츠」와 뉘 우려도 있다.

이렇게 되면 태권도 중주국이고 아니고가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다.

그런 슬픈 결과가 오기 전에 열심히 태권도를 하자. 그리고 새로운 태권도를 하자.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지원하자. 태권도는 우리 모두의 것이다. 기술 연구 분야에 좀더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서 영원히 앞서가는 중주국이 되기를 우리 모두는 바라고 있다.

우리의 태권도를 다듬고 가꾸는 데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자.

※ 태권도 기술에 대한 연구 및 정보 교환 하실 분 연락 주십시오.

연락처: 판악구 심림 8동 미도APT

상가 201호 미도태권도장

사 범 안 해 육

전화 855-7527

비 오는 계절

金 健 中

◇지난 줄거리◇

10여년을 후진육성을 위해 몸바쳐온 한문호 관장은 무인가 도장이라고 고발을 당해 벌금을 물게 된다. 그런데 그 고발자가 파벌의식에 충만한 ○관 A도장의 출판장이라는 데서 완결과 회의를 느껴, 메리고 있던 문사범에게 도장을 물려주고 떠난다. 문사범은 한관장을 대신해서 참신하게 도장을 운영하던 어느 날, 그 지역 협회 전무이사직을 맡고 있는 Y사범이 찾아 왔을 때 불길한 예감이 스친다.

이 지역 전무이사직을 맡고 있는 Y사범은 자리에 앉기가 무섭게 말문을 열었다.

「문사범, 다르게 아니고 이번에 우리 지역에서도 국민학교부 시험을 열려고 하는데 의견이 어때?」

말이 문사범의 의견을 묻는다는 것이지 강요나 다름없는 어투였다.

「……글쎄요. 꼭 시험을 갖을 필요가 있을까요?」

문사범이 회의적인 태도로 대답을 하자

「이사님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직껏 우리 지역 자체로 시험을 한번도 한적이 없잖아?」

Y사범은 뻑뻑했던 담배를 부벼고며 힐난하는 투로 반문해 왔다.

「그렇긴 하지만 이지역에 몇개의 도장이 있다고 시험을 합니까? 아직은 시기상조 같읍니다. 정 시험을 나가고 싶으면 도 협회에서 주최하는 시험도 있고, 중앙에서 주최하는 시험 있잖읍니까?」

「어허……이사님 무슨 소리야. 그래도 우리끼리 해야 메달도 많이 돌아가서 부형들에게 체면도 서도 그 행사를 통해 이지역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과시할 수 있는거 아니겠어?」

「그래서 저는 싫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우리 지역에서 시험 열자는 의도요

목적입니까?」

「……그렇진 않지. 다만 그런 점도 있다는 거지.」

Y사범은 엉겁결에 말해놓고도 정곡을 찌르는 문사범의 말에 얼버무리고 있었다.

「아무튼 말야 자네를 빼놓고 이지역 사범들은 거의 찬동했으니까 시험공문 보내거든 제발 좀 참여해.」

억양을 높여 말해 놓고는 후딱 도장 문을 밀고 밖으로 나갔다.

문사범은 Y사범이 나간 뒤 얼마동안 생각에 잠겼다.

적어도 예술이나 무예는 남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요 스스로 내면의 세계를 갈고 닦은 하나의 도(道) 일진대 그것도 정당성이 있는 대회도 아니고 나누어 먹기식의 메달과 행사 그 자체를 위한 전시효과 때문에 시험을 열고자 하는 Y사범의 의도에 영 뒷맛이 개운치 않았다.

한달 후,

예정대로 현수막이 나붙고 포스타가 길거리 담벼락이나 전선주에 나붙어 있었다.

“제 1회 XX지역 국민학교 태권도 선수권 대회”

참으로 이름하여 거창한 대회를 알리는 내용의 문귀 들이었다.

문사범은 속모르는 부형들의 독촉과 성화에 못이겨 대어섯명의 선수를 출전 시켰다.

시합장은 국기원을 방불케 할 정도로 큼직한 △△국민학교 강당을 빌었다.

처음 열리는 시합이라 그런지 아님 Y사범의 면밀한 행사계획이라 그런지 몰라도 이 지역의 웬만한 유지와 학부형들의 참여한 숫자는 선수 숫자 만큼은 되었다.

문사범은 펴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개회식에 입했다.

개회식이 끝나고 경기가 시작 되었다.

첫 게임에 문사범도장의 선수와 윤관장 도장의 선수가 대전하게 되었다.

일회전에서부터 문사범도장의 선수가 착실하게 아랫배 득점을 따 내었다.

이회전에 이르러 득점을 뺏기는 가 싶더니 이내 회측이 머리에 명중하며 상대선수가 비틀 대었다.

승패는 뻔 했다.

윤관장은 배심석에 앉아 있다 말고 미간을 찌푸렸다.

이내 주심의 손에 의해 문사범도장 선수의 손이 하늘로 치솟았다.

얼마의 시간이 흐르고 경기는 한창 무르익고 있었다.

묘하게도 윤관장 도장 선수와 또 한번 결전을 치루게 되었다.

거의 막상 막하였지만 문사범도장 선수의 물려차기가 정확히 열구리에 명중했다. 이내 게임 종료로 알리는 호르라기 소리가 울리고 양선수는 승패를 기다리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

잠시후,

주심의 손이 엉뚱하게도 윤관장 도장 선수의 손을 들었다.

「어어?」

문사범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코퓷에서 어리둥절하게 바라보기만 했다.

항의를 할까 했으나 심판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걸 선수들에게 보이고 싶어서 꺾 참았다.

경기는 이내 계속 속행 되었다.

그러나 번번히 게임에는 이겨놓고 엉터리 없는 판정에 결승전에 진출했으나 한 선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은메달 선에서 그쳐야 했다.

부아가 치밀면서 끓어 오르는 속을 꺾 꺾 참았다.

그순간 한문호 관장과 같은 그 명백한 성격이 판정을 했다면 하는 생각만이 떠오르며 이내 한문호 관장이 보고 싶어졌다.

어쨌거나 경기도중 문사범을 제외하곤 거의 다른 사범들은 심판의 판정으로 인하여 울명 줄명한 언사와 울근 불근한 태도로 경기장은 살벌하고 침울 하기만 했다.

이런 모습, 과연 아름답지 못한 꼴을 부형과 지역사회 유지들에게 불유쾌한 인상만을 남겨준 결과라 되었다.

우승기가 무엇인지 우승기를 타기 위해 어떤 도장은 하얀떡까지도 참가 접수나 따 보자고 출전 시킨 곳도 있었으니 참으로 경기가 아닌 하나의 감정의 대립장 같기만 했다. 천목을 도모한다는 의도와는 너무도 아이러니 하지 않은가.

경기는 싸움과 대립으로 지연되고 지연 되다 보니 어둠이 사방을 뒤덮은 늦은 시각이 돼서야 끝났다.

문사범은 대어섯개의 메달을, 선수들 목에 걸어주고 도장으로 돌아 오면서 못내 오늘 경기에 대하여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해야 했다.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어찌해서 그렇게 마음이 좁고 더구나 그 메달이 무엇이길래 어린 동심의 눈은 무서워함이 없이 오히려 명예에 급급해서 추태를 부려야 하는가 하는 점이 못내 마음을 어둡게 했다.

경기의 승패야 어찌됐건 어린 동심이 구겨지는 법이 없고 활짝 열려 있는 내일의 광장을 위해 뛰어갈 수 있도록 지도자는 해야 하지 않을까? 하고 문사범은 스스로 자신을 달래며 보았다.

선수들 뒷바라지와 부형들에게 시합의 올바른 취지를 설명해 주다 보니 목이 짝 잠겨 버렸고 피로가 온 몸을 향해 스멀 스멀 기어 오르고 있었다.

선수들과 같이 중국 음식점에서 짜장면을 먹고 도장에 돌아오니 밤이 꽤나 깊은 시간이었다.

그런데 어느 부형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 부형은 아들을 출전 시키지도 않았지만 늦도록 도장에서 문사범이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었다.

「웬일이십니까?」

「아휴 사범님 너무나 수고가 많네요. 우리 애가 집에 와서 사범님이 시합장에서 너무 혼났다고 꼭 사범님 사다드리라고 해서 가져왔어요.」

그 부형은 사이다 두병과 빵 서너개를 내밀었다.

「……………」

「오해 하진 말아요. 이건 우리애가 저금통을 털어서 사온 것 그대로 가져왔어요. 우리애 성의니 꼭 받아 두세요.」

순간 문사범은 감상에 젖어서가 아니라 가슴이 뭉클해지며 오늘 시합장에서 있었던 무거웠고 침울했던 마음이 짝 가시는 것 같았다. 그리고 이내 눈시울이 붉어졌다.

「……고맙습니다. 그 녀석 참.」

그 부형이 돌아간 뒤 문사범은 그 사이다 병과 빵을 쏴어 안고 얼마를 어린 동심의 세계에 매하여 생각을 기울였고 참으로 그런 구김살 없는 동심을 위하여 몇몇한 태권도 지도자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 사이다와 빵이 비록 얼마 아니되는 값의 물건이었지만 그에게는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물건 같았다.

사이다 병 뚜껑을 따자 흰 거품이 병을 넘쳐 문사범의 손아귀를 흠뻑 적서주었다.

가을이 되었는지 아침 저녁이면 재벌 서늘했다.

운동하기에는 알맞는 계절이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승풍 심사가 있었다.

지난번 심사 때 불합격한 녀석을 데리고 얼마를 씨름하다보니 무척 피로했다. 그 녀석은 1년이 넘도록 남보다 몇배의 교육을 시켜도 품

세가 되질 않았다. 그러나 문사범은 오히려 그 녀석에게 애착심이 갔다. 바로 그 녀석 같은 놀음 가르치는 태서 문사범은 태권도사범으로서의 긍지를 느낄 수 있었다.

물론 잘하는 녀석들이야 그런대로 귀여웠지만 남보다 머리가 어둡고 남보다 둔한 녀석을 남과 같은 수준으로 만든다는 보람 또한 문사범에게는 커다란 보람이요 즐거움이기도 했다.

「사범님, 저는 암만해도 안돼요.」

그녀석은 스스로 미안했는지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다.

「임마! 안되는 게 어딴? 하면 되는 거야. 남들이 한번 할 때 너는 몇번씩 더 노력 하는 거야.」

문사범은 실로 그 한마리의 어린 병아리조차도 낙오없이 키우기 위해 격려하고 있었지만 답답하고 피로한 것은 숨길 수 없는 노릇이었다.

마약 태극 7장을 반복 연습을 시키는데 우체부가 속 도장으로 들어섰다.

「미국에서 편지 왔읍니다.」

「미국요?」

우체부가 돌아간 뒤.

걸봉을 살펴 보았다. 물론 한문호 관장에게는 편지였다.

한 관장이 부재중 인지라 망서리다가 혹써나 해서 그는 걸봉을 조심스레 해집어 뜯었다.

미국에 있는 Q체육관에서 한관장을 초청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미국 Q체육관 관장 하사범은 한관장과 친구이며 같은 시기에 송단까지 한 태권도 추마고우였다. 언제인가 얼핏 한관장을 통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 쉽게 편지 내용이 납득이 갔다.

그러나 저러나 한문호 관장이 부재중이고 어메있는지 행방을 알 길이 묘연했다.

지난번 발신인 주소도 없이 한관장은 그저 산수도에 임하고 있다는 소식만을 전해오지 않았는가.

문사범은 갑자기 어찌할 줄 몰라 한동안 미국에서 온 편지만을 손에 들고 명청하게 서 있었다.

태순양

최경철



행 복에 대 하 여

김 영 태

〈전대 측산학과〉

언제나 위대한 사상에 살고 말초적인 것은 경시하도록 하라.

카알 켈티의 작품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의 첫머리에 나오는 말이다.

이것은 인생의 많은 괴로움과 슬픔을 가장 쉽게 극복하는 길일 것이다.

우리는 조그마한 불행에도 좌절을 느끼며, 눈물을 흘리며, 심지어는 현실도피의 현상인 지살을 시도하기까지 한다.

현재의 어려움, 슬픔, 고통은 그 당시에는 자신의 커다란 몫을 차지하게 되지만 그러한 불행을 참고 극복해 나간다면, 그 불행은 후에도 자신의 삶에 있어서 하나의 도전에 불과한 것이며 또한 아름다운 추억이 되는 것이다. 사회는 도전에 대한 응전으로 발전하는 것처럼 인간의 생활도 도전에 대한 응전으로 개인의 향상은 물론 나아가서는 성공의 한 요인이 되기도 할 것이다.

고통과 괴로움은 결코 사람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강하게 만드는 것이다.

어느 호젓한 산비탈에 피나리 보짐을 등에 걸치고 짙은 신발에 지팡이를 휘두르며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의 정취는 볼래야 볼 수 없는, 옛날의 풍경처럼 허술한 그림 조각에 나앉아있었고, 우리들 둘레에 거세게 휘몰아치는 근대화의 새바람은 나그네의 행색조차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된 것이 눈에 익어간다.

사람의 발자국이 달나라에 찍히는 순간부터 달의 신비가 벗겨짐과 아울러 시인이 노래하던 달, 한많은 사람들이 시름지던 달, 꿈결처럼 그

려보던 달은 죽어버렸다고 하거니와 우리들에게 소박하고 순진한 운치에 호뜻하게 하던 광경들은 차츰 사라져 가고 있다.

우리들은 현대문명에 의해 우리의 고유행복을 잃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농민들의 인식, 이웃간의 인정, 아름답고 마음 호뜻한 이야기들이 현대 문명의 발달과 정비례 해서 사라지는 것 같고 사회는 더욱 삭막해져서 우리의 행복한 가족생활과 삶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다.

산다는 것은 일부러 괴롭고, 성가시고, 고달픔을 찾으려 함이라고 말할 사람은 없을 줄 안다. 누구나 보다 행복하기를 바라고 찾으려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면 행복이란 무엇인가.

곰곰히 생각해 보면 사람이 찾고자하는 행복이란 어떤것인지 꼬집어 말하긴 매우 어려운 것이다. 각자 제 나름대로 한 응큼, 한 아름답고, 한 동우리의 행복을 마음속에 그려보고 있는 것이지만.....,

행복이란 원래 있는 듯 없고 가까운 듯 잡히는 않는, 다가서는 듯 가버리는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

행복이 생활을 기쁘고 윤택하게 해주는, 맑은 공기처럼 가볍고 또한 지속적인 것이 아닌만큼 고귀하다고 할 수 있겠다. 모든 고귀한 것은 드물고 어렵다고 철인 스피노자는 그의 명저 에티카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은 인생의 진리를 간파한 명언이라 나는 생각한다. 세상에 고귀한 것은 반드시 드물고 어렵다. 금이 어디에나 굴러다닌다면 절대로 귀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데서나 진주를 구할 수 있다면 진주는 값이 싼 것이다. 성공이 쉽게 얻어진다면 성공에 영광이 따르지 않는다. 승리가 위대한 것은 많은 희생과 고난을 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의 생활을 해나가야 하겠는가?

나는 이렇게 생각해 본다.

첫째, 인간은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바로 사는 것, 알차게 사는 것, 참되고 아름답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노동자는 힘든 노동일로 생활해 나간다. 그러나 노동자는 삼중으로

향락한다. 노동에서 향락하고, 노동의 댓가로 향락하고 노동후의 휴식으로 향락한다. 정신적인 생산, 인간감정의 발전, 인격적인 협조와 봉사가 있는 곳에 참된 행복이 있고, 참된 인생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둘째, 길의 선택문제이다.

생활에 있어 문제란 것은 길을 선택하는 문제이다. 좋은 길과 나쁜 길, 좋은 길에도 더 좋은 길, 가장 좋은 길이 있고 나쁜 길에도 더 나쁜 길, 가장 나쁜 길이 있다. 길이여러 갈래로 갈리기 때문에 선택의 문제가 있는 것이다.

세째 평범한 인간이 되라.

인간은 조용하게 혼자 시간을 보낼 줄 아는 것을 배워야 한다. 쉼을 필요가 없다. 인간은 제 나름대로 값어치가 있는 법이다. 담배가게 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술파는 사람도 있어야 세상이 재미 있지 모든 사람이 돈있고 권세 있는 사람뿐이라면 무슨 맛이 있겠는가?

인생이란 어리석은 바보 이외에 모두 나름대로 살가치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스스로 자기의 가치를 추구하고 생각하는만큼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마라. 나쁜 사람이 되어서도 안되고 그저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저 사람이 되고 노력하는 데서 그 뜻으로 인해 행복이 구하여지는 것이다.

넷째, 행복하게 되기위한 방법으로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다.

오로지 자기 행복을 위하여 자기 일생을 바친 사람에게 결국 행복이 돌아 가진 못하고 결국 실의에 합락되며, 남과 더불어 행복을 느끼며 일생을 바친 사람에게 참다운 행복이 되돌아 간다는 것은 오묘한 패러독스가 아닐 수 없다.

사람의 육체는 행복해 지기를 바라는 강력한 의지와 행동 앞에선 자질구레한 불쾌감은 자취를 감추게 된다는 것이 현대 응용 심리학의 결론이다.

이것은 자연의 조그마한 진리이다.

우리는 행복을 기다림 속에서 노력하는 데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詩

우리들의 바뀌었기

—柳 桓—

人形을 산다.
나와 꼭 닮은 얼굴을 가졌으나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에게
사과를 먹이고
옷을 입힌 뒤
마주보며 시작하는 精神統一
氣合소리 한번에
그는 사람이 되고
나는 人形이 된다
—무사히 끝낸
우리들의 바뀌었기—

壁이 무너지며
그는 뛰쳐나간다
解放되는 言語들

窓속에서 나는
풀려있다
제자리로 벗어나며
빛을 내는 事物들
時計가 멎는다
지친 음성으로 부르는
그는 돌아와 있다

눈으로 옷을 벗기면
이를 수 없는 選生에 속은
그 人形은 이미
不在가 되어있다
時計가 다시 숨쉬고
壁이 門으로 바뀐다

꽃과 나무

임 영 인

먼 곳에 있는 친구에게서 엽서가 날아와 있었다.

바닷냄새가 물은 손바닥만한 종이조각위에 물처럼 흘러내리는 친구의 필체가 까다까다 머리를 숙이며 인사를 했다.

그렇지

친구와 친구의 우정같이

내 그대를 사랑하지

수수께끼의 삶

내 그대 품에서 노래하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그대 나에게 행복을 주거나

아픔을 주거나

아랑곳없이

극단의 열정으로 생애 몰두하며 자기 연민이 라던가 치기, 감상주의 같은 약하고 소심한 감정의 위험에 어떠한 절망적인 불행을 겪으면서도 절대 빠져들지 않았던, 신화처럼 살아있는 루·살로메의 시를 쓰며 친구는 바다의 색깔은 프러시안 블루라고 했다.

침다는 것은 매때로 어둡고 황막한, 무엇이 될지도 알수 없는 끝없는 무모함으로 닦아오는데, 이유없이 아득아득 절망스럽다.

친구는 자주 바다를 그리워하는 바다병을 앓으며 그 절망의 몸짓을 감주려 했고 나는 그가 무엇때문에 떠나는 가를 알면서도 왜 하고 묻지 않았다.

어떻거나 떠도는 먼지처럼 권위와 역겨운 강요가 있고 이해하기보다 무시하고자 하는 독선이 있으므로, 언제나 있었던 벽은 그대로 있었던 자리에서 두꺼워지는 것이고 끼리끼리 슬픈 나이의 친구를 찾아, 아니면 자기 혼자만의 침

묵의 집에 틀어박혀 어쨌든 인생에서 살만한 가치를 찾으려 애쓴다.

나는 책상위에 다소곳이 놓여있는 친구의 이야기를 접어들면서 수수께끼의 삶이 어떠한 아픔과 고통을 행복과 환희와 함께 줄지라도 친구의 우정처럼 그것을 사랑하겠다는 목소리에 사랑을 느꼈다.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 위대한 어릿광대의 춤같은지라도 가장 아름답고 참혹하도록 순수한 푸른 나무와 같으므로.

그림자처럼 하루 하루의 길이가 짧아지는 느낌이이고 얼음처럼 햇빛이 그렇게 줄어드는 느낌이고, 내 키와 내 가슴의 크기도 그렇게 작아지는 느낌, 느낌의 기막힌 악몽에 밤과 낮을 시달리며 우리가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생명의 명제는 빛이 아닌가.

희망이요 구원이 아닌가.

비가 오면 한아름의 꽃을 사곤 했었다.

아스라히 자갈한 안개꽃과 장미를 가슴에 안고 젖어있는 창결에 꽃이 젖어있는 마음을 위안하려 했었다.

비오는 날 활짝 피어 밝고 맑게, 내 방안을 따뜻하게 하던 꽃은 그러나 다음 바람부는 날 이후, 구름긴 날 황혼이 오면 즐기에 갈색 반점이 생기고 꽃잎은 때만 행주치마처럼 시들어 꽃병 속에서 작게 작게 신음하는 것이었다.

일종의 시위와도 같이 그 시들음은 어김없이 왔고, 비오는 날의 따뜻한 기쁨은 여위어 얼음벽에 머리를 부딪치는 기분으로 시든 꽃송이를 거두어 쓰레기통의 깊이 깊이 던져넣었다.

화려한 것은 덧없다고 생각해야 할까?

아름다운 비오는 오후에 향기로운 꽃향기가 없이 그대로 온 몸의 축축함을 방치해 두어야 할까?

시드는 것이 두려워 생화의 예쁨을 멀리하고 꽃집이 있는 골목을 우회하며 우리는 무엇으로 창문의 황막함을 치장할 수 있을까?

꽃을 사며 나는 욕망을 생각했다. 언젠가 무엇이 되어보고자 하는 욕망, 어떻게 무엇을 이룩하고자하는 욕망, 신세계와 유토피아를 꿈꾸는 욕망, 갖고 싶은 것, 버리고 싶은 것, 인정받고 싶은 것, 행복을 맛보고 싶은 것, 끊임없

이 솟구치는 물줄기처럼 우리의 내부에 아직 일렁이는 색깔이 많은 희망 사향들, 아직 우리 앞에 당도해 있지 않음으로 아낌없이 꿈꿀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은 한가지 한가지 피었다 시드는 꽃송이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실현의 가능과 불가능을 반반씩 보유하고 있는 어떤 욕망이든 손에 넣어 궁굴리면서 차츰 현란했던 색깔을 감추고, 그 나름대로의 새로운 회의와 만족을 얻도록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날개를 접듯 하나 하나 욕망을 부수고 날려버리며 현실이라는 생활에 아주 가깝게 접근하는 것이 아닐까.

그리하여 우리는 어느때가 일년생 꽃나무의 생리에서 벗어나 다년생 나무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라.

나는 어른들에게 강요하지 말기를 바라고 싶다.

하지 말아라 그러면 안된다라는 식의 고정관념으로 젊은 아이들의 행동을 규제하지 말았으면 바라고 싶다.

어른들의 가치관과 젊은이들의 가치관은 다를 수도 있고, 어른이어서 현명하기보단, 젊기때문에 순수하고 용감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들 스스로 아픔과 절망을 극복하고, 가장 솔직하고 타당한 한시대의 주인으로 클 수 있도록 그냥 바라보며 격려해야 할 것이다.

인생의 선택이기 때문에 명령하고 강요하고 떠다밀 권리는 없는 것이다.

오히려 너무나 예의 바르고 겸손하고 말잘들은 아이들에게 주체성을 갖고 반항하라고 충고할 일이다.

언제나 반항은 무모할 수 있기 때문에 아름답고, 다치기쉬운 꽃같은 감정이기 때문에 옳바른 가치구현의 과정이 되는 것이다.

모든 젊은 아이들이 젊은 젊고 속은 늙은 구태의연한 애늙은이가 된다면 더 이상 우리에게 발전은 없을 것이다.

이십세대는 매맛을 의무가 있는 것처럼 주장할 권리가 있는 것이고, 경제적인 능력의 완전한 자립을 못하는 대신 좀더 옹고 참다운 것의 도전이 재산이며, 모오든 권위에 받기를 들

므로서 그들은 어른이 피어서도 권위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다.

먼 곳에 있는 친구를 아주 가깝게 느끼며 나는 그와 나의, 그들과 우리의 아직 찢들지 않은 고여 썩는 물이 아니라 오물을 씻으며 흘러가는 아름다운 성장의 과정을 보았다.

그리고 서로 서로 자극을 주고 받으며 미워하는 대신 사랑하는 법을 배우며, 지상에 뿌리를 내리고 죽지않는 푸른 잎을 키우는 나무로 생명 의 단 과실을 맺을 일이다.



재 호 에 게

유 석 만

네가 태권도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매우 기뻐했다.

너는 이제 갓 이십세이고, 신체적인 건강함도 그렇거니와 인생에 대한 강한 의욕을 갖게 되는 나이임으로 네가 스스로 몸과 마음을 단련시키고자 태권도에 관심을 갖게 된 것에 박수를 치는 것이다.

너도 알다시피 나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마쳤으며 마치 싸움을 걸듯이 내 운명을 향해 팔을 걷어 부치고 절대로 패배하지는 않겠다는 오기로 젊음을 건디고 있었다.

그러나 생각했던 것처럼 내 또래의 거의 모든 아이들이 받고 있는 가정의 보호와 부모의 애정 어린 채찍이 없다는 것은 아주 우울하고 기분 상하는 일이었고, 먹고 자는 것, 공부하는 것과 학비를 버는 일은 무거운 짐처럼 생각되곤 했었다. 그 시대의 겨울 외투처럼 무겁고 거추장스러운 생활의 책임을 내가 왜 쉽게 벗어 던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니?

나는 지고 싶지 않았다. 나는 나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으므로 적당히 버림 받아도 좋다는 생각에 나는 견딜 수가 없었지.

환경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이미 나도 어쩔 수 없게 배당 되어진 운명과 같은 것이므로 일차적으로 그것에 굴복하면 나는 내 인생의 더 많은 기회와 발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

재호야! 너도 알 것이다. 사시 사철 내 자취방에서 나던 곰팡내와 찬물로 여러번 씻어 먹는 다기 보담 꿀꺽 꿀꺽 삼키던 쉼 밥मंत्री, 무절

서하게 쌓여 있던 책과 옷가지들을……

그러한 자취방에 너를 초대해 놓고, 이 형은 독설과 읊담패설로 실없이 너를 웃겼으며, 아무 목 부터 웃목까지 일렬로 소주병을 진열하며 밤새 우둔한 놈들 처럼 술먹기 내기를 하고 뺏속까지 뒤집을 듯 머러운 것들을 토해내었었다.

나는 외로웠고 방향없는 증오에 이빨을 갈았으며 배부른 놈들에 대한 적의로 눈알을 붉혔었다. 모든 조건이 구비되어진 놈들, 하려고만 들면 일사천리로 장애 없이 사회의 명예를 얻고 계속 선택 받은 것처럼 잘 살 놈들. 그들이 내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아니었으나 난 그 당시 이상하게 잘 사는 놈들을 보면 배알이 꼴리고, 그들의 겸손과 동정에 치욕을 느끼고 했다.

나는 내 스스로 나를 책임질 수 밖에 없음으로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외롭기때문에 쉽게 쉽게 옳지 않은 유혹에 가담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었다. 보아주는 사람은 없었으나보란듯이 나를 지키며 내가 하고 싶은 경영학을 계속 공부하여 할수만 있다면 나도 경영학의 권위자가 되거나 훌륭한 인격의 실패하지 않는 사업가가 되거나 하고 싶었지.

너는 나에게 욕심이 너무 많다고 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수를 하며 너는 술에 취해 내 문에 대고 발길질을 하며 형 나옴아구나와서 싸우자구나 나는 형을 때려 눕히고 말테야 소리를 지르곤 했었다.

물론 나는 이제 서른 둘의 나이이고 열정적으로 이빨을 갈면서 보냈던 이십세로는 돌아갈 수가 없다. 이제 나는 멋이라고 너는 그러지만 돈을 좀 벌고 야간 대학원에 만년 학생처럼 드나

틀며 강의실을 지키고 있다.

너는 끝없이 학교에 대해 애착을 갖는 나에게 사치스러운 허영일 뿐이라고 공격을 하며, 옛날의 가난하지만 오기가 충천했던 나를 되짚게 했다.

재호야! 나는 지금의 살전 나에게 육설을 퍼붓는 너를 사랑한다. 매맞지 않기 위해 내가 배웠던 태권도를 그때 나와 같은 나이의 내가 배우고 있다는 것에 박수를 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집이 세고 오기가 있는 너의 젊음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나 생각해 보자.

나는 생각 없이 태권도장의 문을 밀고 들어가 상매를 매려 놀히는 기술이나 배우자고 옷통을 벗었던 것인데, 나는 한 파묵한 사범님의 지도를 받으며 태권도를 익히는 동안 밖으로 갖고있던 나의 적의가 차츰차츰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 도장에 모인 모든 수련생과 사범들간에 어떤 격차가 없었고 다만 인간적인 유애와 따듯함이 그 작은 장소를 감싸고 있었던 것이다.

나의 적의와 증오는 내 환경적인 불행에서 오는 자각지심이었었고, 제스스로 자기의 실력을 갖고 공정한 입장에서 겨루며 승자와 패자도 없는 공통적인 발전을 위한 심신의 수련을 하는게 인생이라고 깨달은 것이다.

나 혼자 남을 희생시킴으로 부귀영화를 누리겠다는 것이 정말 이기적인 욕심이지, 내가 공부한 만큼의 실력으로 타당한 대우를 받으며 하고 싶은 것을 계속하고자 하는게 욕심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은 물질 즉, 돈을 인생의 목표로 삼을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학식을 갖추고 싶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돈 보다도 인생의 가치를 진실에 둘 수도 있을 것이다. 각각 모두 그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갖고 제 인생을 경영해 나가고 있다.

나는 내가 돈 보다 진실된 사람이나 긍지, 보람에 가치를 둔다고 해서 돈을 목표로 인생을 경영하는 사람들을 경멸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다.

나는 이미 지독한 가난이 어떤 것인가를 알만큼 배가 끓았었고 한 때는 배불리 먹기 위해 내 자존심을 헐값에 팔아 넘기려고 까지 했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으며 그것을 극복하고 나니 나는 이미 가난이라는 것에 대해 겁을 먹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애정을 갖고 회상하게 까지 된 것이다.

재호!

너도 알다시피 나는 결코 겸손한 놈이 아니다. 겸손하기는 커녕 남들이 알아 주거나 말거나 내 잘났다고 떠드는 맛에 살았었다.

너처럼 착한 놈에게 살살 못났다고 약을 올려 성내는 네 모습을 보고 나는 좋아라 했었고, 미친놈 처럼 노래를 부르며 내 눈물을 감추었었지. 난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운동을 하며 맘에 짊어 사범님의 불호령을 받으며 나는 이상하게 목젓까지 치미는 애정을 느꼈다.

네가 내게 말 했던 애정결핍증 성격 파탄자라는 데테르를 나는 아직 가슴에 붙이고는 있다.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으므로 사랑할 줄은 모르고, 증오할 줄만 안다고, 냉혹하고, 비정하다고 너는 나를 공격했었다.

네 말이 맞다. 나는 이기기 위해 나를 꾀꾀이 세우고 싸울줄만 알았지 정작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는 모르던 놈이었다. 내게 사랑은 무가치 하고 개같은 잡소리의 예기였었지.

그러나 재호야! 지금은 아니다. 그 때의 나는 젊었으므로 날뛰면 날뛰는 만큼 싱싱할 수 있었지만 지금의 나는 어느 정도 탈판한 태도로 여유를 갖고 삶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으며, 우리 나라 정신의 미덕을 함축시켜 담고 있는 태권도 정신을 너에게도 심어 줄만큼 어른이 된 것이다.

나는 해 내고 말 것이다. 현재 네 눈에 보듯이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돈을 굶어 모으며 생활의 안락과 재 혼자 배부름의 포만감에 젖어 있지는 않다.

물질의 환원 원리와 전통적인 문화 유산의 계승이 곧 이 어른이 된 형의 회사적인 양심이라

는 것쯤은 충분히 알고 있고 계속 부끄러움도 깨닫지 못하고 사는 배부른 돼지가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재호야!

그저 건방지고 부정적인 것이 네 나이의 멋이라는 착각만큼은 말아 다오.

물론 네 선배들이 매우 발음만큼 완전한 인격체가 아니더라도 그들은 충분히 너희를 가르킬 재능과 실력이 있는 것이고 그것으로 벌써 네가 존경을 표할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서로 존경하며, 똑 같은 인격으로 배우를 하고 한 사회의 아름다운 질서를 구현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편견 없는 사랑을 나누자.

나는 너의 칭찬을 듣는 것 보다, 너의 핀잔과 악의 없는 욕설을 듣는게 좋다.

그러므로 나는 가장 위험한 독선에서 나를 건져낼 것이고 안일함에서 나를 일깨울 것이며 어른이 된 형 보다도 너와 네 또래의 젊은 놈들은 훨씬 날카롭고 무서우리 만치 똑똑하다는 것에 자랑스러움을 느낄 수 있으니까.

재호야!

열심히 배워라.

재수를 하면서도 어이 없이 당당하더니 밤새 코피를 쏟고 공부하던 너를 나는 알고있다.

할일 없는 놈들처럼 빙글거리고 여자나 만나는 것처럼 보이니 실속 차릴 것은 남 보지 않을 때 무섭게 하는 놈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열심히 운동하고 튼튼한 몸을 함께 무엇 보다도 태권도 그 정신을 깨닫고 실천하길 바란다.

잘 살아라 찌석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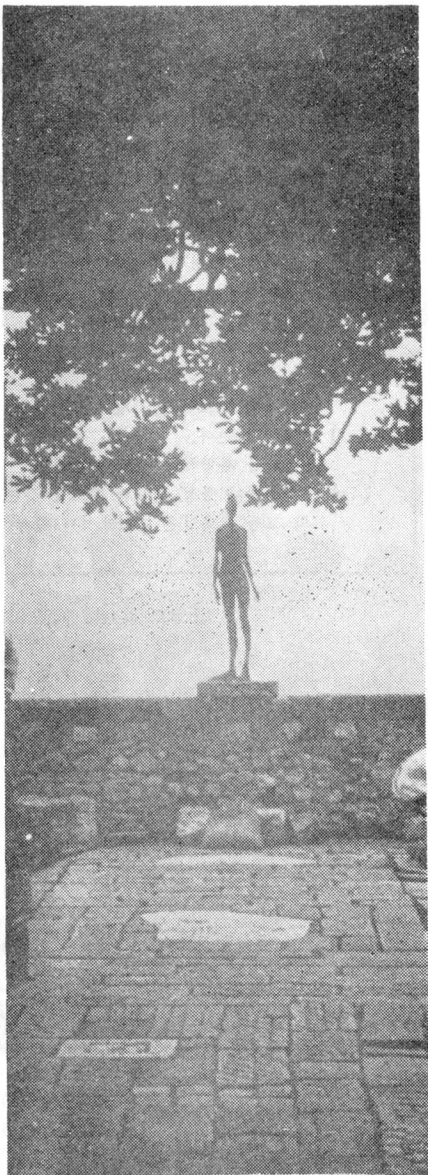
언제 날 잡아서 옛날의 어느날 처럼 낚시나 함께 가자.

인간을 사랑하는 것. 약한 인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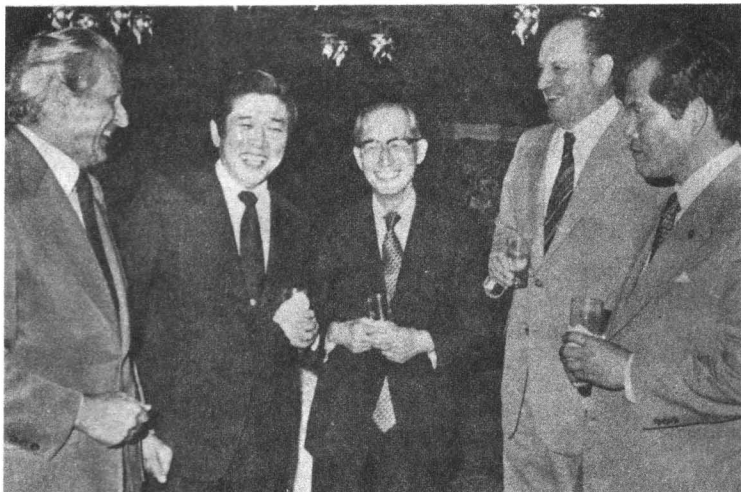
불필요한 인간도 사랑하는 것.

그리하여 그들을 재판하지 않는 것.

—H. 헷세—



태권도 종목 I.O.C 총회승인 및 세계태권도 연맹공인 자축연회 Celebration of recognition of Taekwondo and the World Taekwondo Federation by the I.O.C.



신라호텔에서 열린 자축연회에서 김운용 회장은 일본대사 료오조 스노베씨, 칠레대사 조지 파라데스 웨처 씨, 대한체육회회장 조상호씨, 스위스대사 테오도르 듀드리씨와 함께 환담을 나누었다.

President Kim chats with Japanese Ambassador Ryojo Sunobe, Center, Chilean Ambassador Jorge Parades Wetzer, second from right, president of the Korean Amateur Sports Association Cho Sang-ho right, and Swiss Charge d' Affaires Theodor Dudli, lef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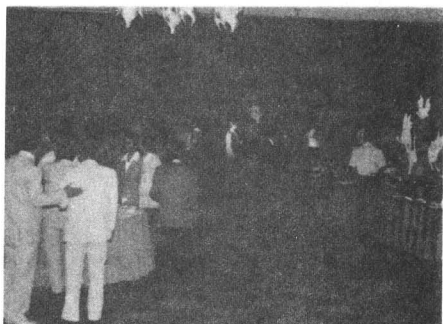


태권도종목 I.O.C 총회승인 및 세계태권도연맹공인 자축연회에서 김운용총재가 이규호 문교부장관을 안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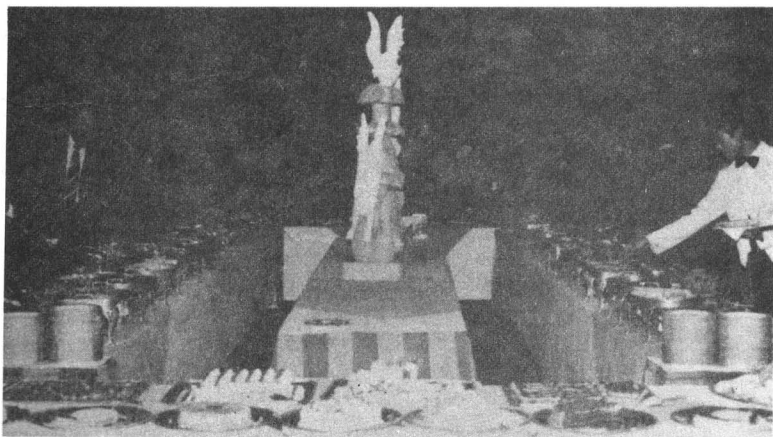
Dr. Kim Un-yong, President of K.T.A., talks with Education Minister Lhee Kyu-ho, at celebration of recognition of Taekwondo and W.T.F by the I.O.C.



태권도협회이사들과 함께 환담을 나누는 김운용회장. President Kim Un-yong has a pleasant talk with directors of K.T.A



마련된 음식을 둘러 태권도 I.O.C 승인을 함께 기뻐하는 Taekwondoists have a pleasant talk together at Hotel Shilla Dynasty Room.
태권도인들



제 1 회 어린이 태권왕 겨루기대회

Ist Children's Taekwondo Cup Tourna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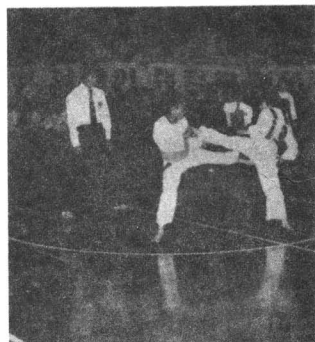
제 1 회 어린이 태권왕 겨루기대회를 주최하는데 이바지한 서울 남산 청년회의소 이상빈 회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하는 김운용회장

WTF President Kim presents appreciation plaque to Mr. Lee Sang Bin, president of Seoul Namsan J.C, for his contribution to organizing of the tourna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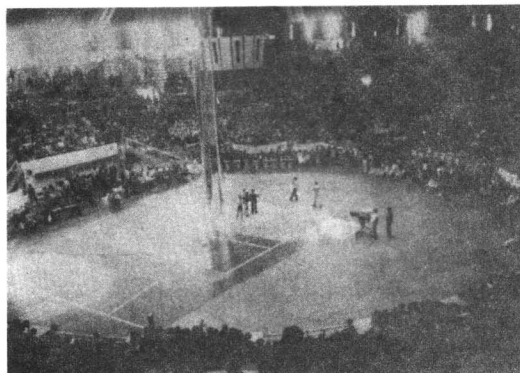


개회식전경

A scene of the Opening Ceremony.



경기스냅. A scene of the Compet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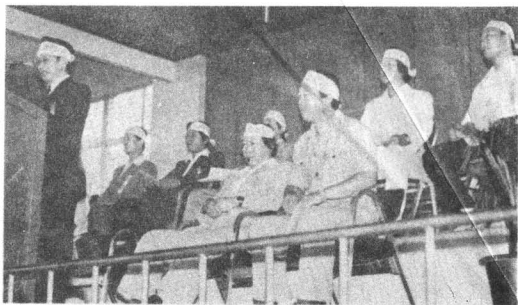
경기장전경

A scene of the Jang Chung Gymnasium's arena

전국 태권도인 열기대회
**National Taekwondoist
 Rally for Clean Society**

개회식

Scene of the Opening Ceremon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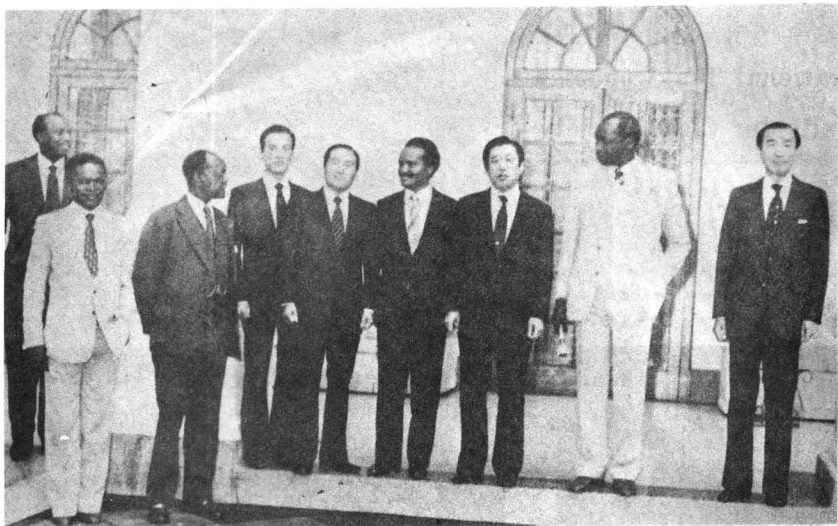
결의문을 낭독하는 대한태권도협회의
 강원식전무이사.

Mr. Won-Sik KANG, Secretary-General of KTA, reading aloud the adopted resolution.



결의문을 합창하며, 사회정화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태권도인들.
 The national Taekwondoists support the resolution, and follow Kang sentence by sentence.





세계태권도연맹총재이자 대한태권도협회 회장인 김운용박사는 아프리카 케냐국의 대통령 다니엘 아랍 모이씨와 접견한 후 케냐국 국방성장관인 가리우키씨, 주케냐 한국대사 장익용씨등과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President of the WTF, Dr. KIM Un-Yong, poses for a photograph with the Kenyan President Daniel arap Moi (on the president Kim's left) who received h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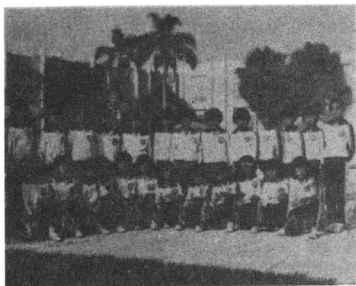


공산권국가 폴란드의 태권도인들. 오지리의 이경명사범의 수제자인 저지코나스키씨가 본국 폴란드에서 태권도를 가르치고 있다.

The Pole instructor Jerzy Konarski poses with his student in Poland.

미동국민학교 어린이 태권도 순회 시범

The Midong Primary School's Taekwondo demonstration team go U.S.A's exhibition tour.



미국의 템파프로리다에서 시범을 마치고
After having demonstration, children's taekwondo
demonstration team poses at Tampa Florida, U.S.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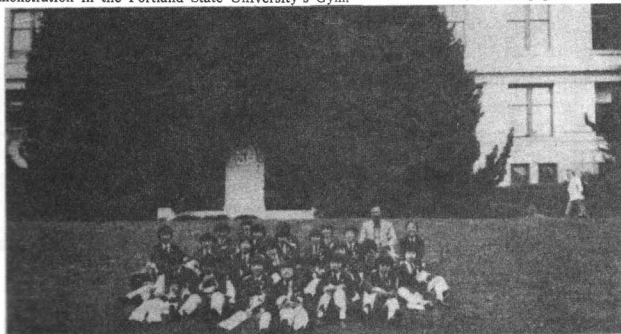
어린이시범단의 시범.
The Demonstration of the Midong Primary School's taekwondo
demonstration team.



미국 포틀랜드대학에서 열린 시범대회를 관람하기위해 모인 관중들
The Local crowd are watching the
demonstration in the Portland State University's Gy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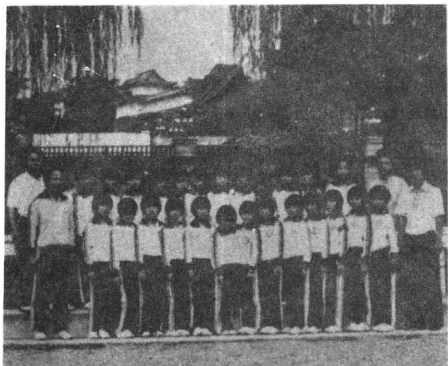


한국거류민단이 운영하는 통일일보사를 방문하고 나오는 시범단
Children demonstration team visit the Tongil Ilbo SA
(the newspaper Co. run by Korean residents in Jap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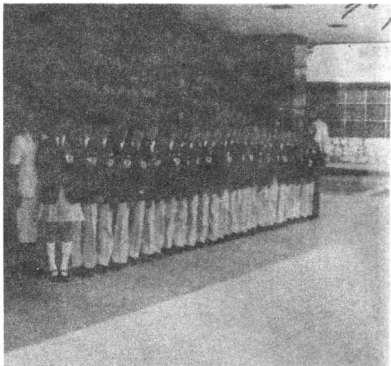
캘리포니아대학 캠퍼스에서 시
범을 마치고

After having a taekwondo
demonstration, the team pose
at University of California's
Campus in Los Angeles.



동경궁성 앞에서

Children pose at the Imperial palace of Tokyo, Japan



로스앤젤레스에 주재하는 김용길사범의 체육관에서

Midong primary schools TKD demonstration team pose with Kim Yong-Kil, who reside in LA, athis Gymnasi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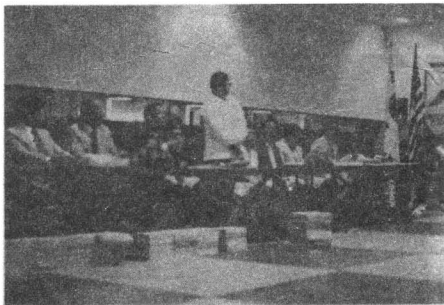


어린이시범단의 시범.

The Demonstration of the Midong Primary School's teakwondo demonstration te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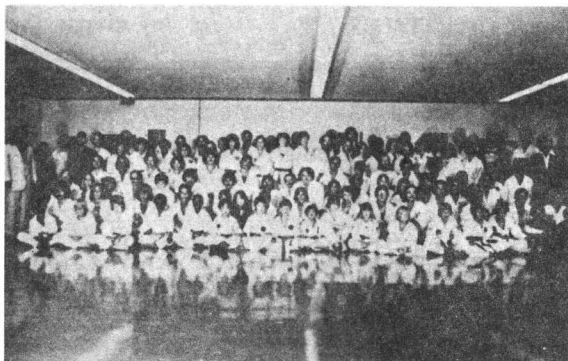


동경 시내관광을 하고 있는 태권도시범단
The taekwondo demonstration team go sightseeing in the Tokyo c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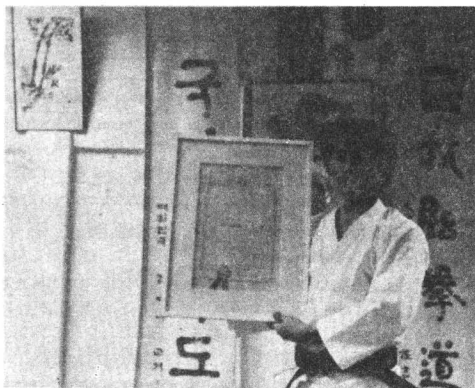


마이아미시의 부시장이 태권도시범단을 맞아 환영의 인사를 하고 있다.
The deputy mayor of Maiami delivers address of welcome at the TKD demonstration opening ceremony.

세계로 뻗어간 태권도 Taekwondo in the World.



미국의 노영철사범과 그의 수련생들
The instructor No Young-chul
poses with his student in U.S.A.



김운용총재님의 공로표창장을 전달받고
(콜롬비아 주재 이기정 사범)
Instructor Lee Ki-jung delivered an
appreciation plaque from WTF President
Kim.



오지리의 김순철사범이 시범을 보이고 있다.
The demonstration of the instructor Kim
Sun-chul in Austria.